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주석 시리즈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지음

김 영 균 옮김



KJ 강제임스
King James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 주석

©2014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긴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4.1.8.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사진 | 이종열 av1611@naver.com

디자인편집 | 김화영 korea95@empas.com

■ ISBN 978-89-89741-70-1

■ 정가 18,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누가복음 24:27)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누가복음 24:44)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한복음 5:39)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0-12)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

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4-15)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러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9:10)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1월 1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시면 성경에는 창조 혹은 창조주를 증명하기 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믿어야 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뿐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차적인 사항입니다. 성경의 핵심 목적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골 1:16-17).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이루셨으며(히 11:3)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루셨습니다(계 4:11).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창조에 대해 깨달을 수 있으며(롬 1:18-20), 그분께로 나아가는 데(히 11:6) 충분한 빛과(요 1:1-5), 믿음(롬 12:3)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선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율법과 규례들(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모두)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를 행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6)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라는 이름은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신 그 이름입니다(출 3:14). 한 분이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존재도 없고 미래의 존재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딤후 1:17). 그분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에다 거대한 “시간 지킴이들”을 놓아두실 때(창 1:14) 영광 가운데 계셨으며 이것들이 사라져버릴 때에도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 1:1-5, 14).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계신 이(I AM)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요 8:5-8). 그분은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오라.”(마 11:28)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외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주어진 내용은 우리 주, 즉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신 것들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덜 들인다면 자신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답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 구약성경은 23,214절이고, 590,439 단어이며 이 단어들 중

“and(그리고)”라는 단어가 35,543번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은 929장이고 2,728,10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창 1:2-4)

창세기의 첫 네 절은 나중에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계시 될 위대한 구원계 획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에 관해 더욱 많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낼지도 모르지만 결코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는 배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제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시 100편). 그러나 자궁 안에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비밀로 남겨 두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시 139:13-16).

2절에서 우리는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므로 인해 빚어질 비극적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및 욥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그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형체가 있는 텅 비어 있는 모습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아담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때와 장소와 이유에 대해 성경공부 시간에 탐구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는 그저 타락의 무서운 결과들뿐입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인생들, 일시적이든 비천한 것이든 그저 어떡하든 만족을 얻고자 울부짖는 공허한 메아리들, 인간의 생각과 종교들과 역사를 뒤덮고 있는 그 (오!) 어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담 이래로 인간의 이야기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나선 소경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형제 없는 공허함은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곁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공허함도 어둠도 성령께서 극복하지 못할 만큼 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개혁된 어둠도 어둠에 불과합니다. 개선된 공허도 공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멸 안으로 성령님의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권능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혼도 아담의 타락의 파멸로부터 구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둠 안으로 빛을 가져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골 1:13)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벤전 2:9)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함께 역사하여 죄의 침입으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분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의 욕심들이라는 형체 없는 공허로부터 구원받은 혼을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자녀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있듯이 빛 안에서 걷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구약성경의 정가운데 위치한 구절은 역대기하 2:17이고, 구약성경의 정가운데 장은 욥기 29장이며,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역대기상 1:25입니다.

1월 3일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창 1:11)

셋째 날에는 세 종류의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들 셋은 인간의 종류와 관련해 많은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 식물은 풀인데 이 단어는 주님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사 40:6-8) 풀은 약하고 생이 짧고 아무리 멋진 것일지라도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신약성경은 인간의 영광이 바로 그 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든 고상한 행위와 업적 그리고 본능을 뛰어넘는 고귀한 품성도 금방 사라져 가 버립니다(벧전 1:24). 결국 온 인류는 지푸라기가 되어 그들이 비웃던 그 왕에 의해 다 타버리게 됩니다(말 4:1).

둘째 식물은 씨를 맺는 채소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바(창 1:29),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비록 과일나무처럼 과일을 맺지는 못하나 풀과 달리 씨는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육신적이지만 형제들의 돌봄과 양육으로(히 6:7) 씨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씨 맺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막 4장, 마 13장, 눅 8장). 채소는 그 안에 씨를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 안에 썩지 않는 씨를 갖고 있습니다(벧전 1:23).

비록 채소가 작고 약하긴 해도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할 수도 있고 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몸 안의 약한 지체들도 전체의 활력을 위해 필요합니다(고전 12:13 이하).

셋째 식물은 열매 맺는 과일나무입니다. 많은 설교와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복음증거와 구령을 열매 맺음과 결코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약한 채소는 씨를 뿌려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열매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성숙한 성도가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는(갈 5:22-25) 믿는 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이 재생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1에서 열매가 종류대로 맺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겔 15:2,6)의 뿌리(사 53:2)는 그 생명을 가지에게 보내어(요 15:1-6) 사랑과 기쁨과 화평 등을 생산해 냅니

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시 1:3), 홍수와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렘 17:8). 여건과 환경은 열매 맺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창세기의 6일이 문자적인 6일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존재의 뒤에는 그것을 움직이시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만 창세기의 각 날은 알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의 위대한 단순성이 이 사상에 치명상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생명은 셋째 날에 등장하는데, 이 식물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빛인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이 긴 영겁의 세월이라면 식물은 살아남아 태양빛의 도래를 환영할 수 없었을 겁니다.

1월 4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체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창 1:14)

이 구절과 더불어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6일을 3일씩 묶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 두 부분 사이에는 상응하는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의 각각은 다음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빛
2. 물
3. 마른 땅

이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넷째 날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3절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자세히 동일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가 옳바르지 못한 것은 창조의 날들이 실제적인 하루의 기간이라는 해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2절에서 비어 있고 형체가 없다고 묘사된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삼일 간은 하늘과 땅이 “형체”를 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반면 다음 삼일간은 그 “비어있음”을 채우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개요가 이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첫째 날: 빛	넷째 날: 빛들	둘째 날: 공기
다섯째 날: 새들	셋째 날: 땅	여섯째 날: 동물들, 사람

이처럼 첫째와 넷째 날이 상응하고 둘째와 다섯째 날이 상응하며 셋째와 여섯째 날이 상응합니다. 먼저 형체가 생기고 그 후에 채움이 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어진 “탁월하심”에 있습니다. 각 사이클은 하늘에서 주님과 시작하여 아래를 향해 땅으로 역사합니다(약 1:17).

4절에서 우리는 왕좌로부터 빛을 보는 바 8절에서는 이 빛이 첫 번째 대홍수의 물들을(벧후 3:4-6) 나눕니다. 7-13절에서는 이 전날들의 사역으로 땅에서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15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빛들을 보게 되며 20절에서는 날고 기는 생물들이 물에서 기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로 창조 세계의 왕관이지만 그러나 이는 다만 창조주께서 인간을 그 위치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9, 땅은 6.6x 1020 톤의 무게를 갖고 있으며 이 숫자는 물 한 방울 안에 있는 원자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창세기는 신약성경에서 60번에 걸쳐 인용 혹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율법서처럼 창세기 또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막 12:26, 눅 2:22, 요 7:23, 행 13:39, 15:5, 28:23, 고전 9:9, 그리고 히 10:28).

1월 5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 1:27)**

창세기의 처음 부분을 픽션이나 흥미 있는 구전 또는 모세의 묵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7에 대한 구원자이신 분의 주석이 마태복음 19:3-6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에 관해 주님과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필사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사실 이 필사본은 원본이 만들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존재하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의 선언과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갖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은 아메바나 가스나 먼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성인 남녀였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대로 최초의 인간은 유인원이나 원숭이가 아니고 가정과 사회를 세울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시하고 계시기에, 창세기 기록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최초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었지만 구속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1월 6일

“창조하시니라”(창 1:21, 27)

“창조하시니라(created)” 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3번이 쓰였습니다. 1장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나머지 두 경우에서 이 단어는 전에 있던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암시해줍니다. 21절을 보면 동물의 생명은 그보다 앞선 식물의 생명과는 아무런 유사 속성이 없는 분리된 창조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즉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이 장에서 쓰인 곳은 27절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기원과 관련해서 사용된바 이로써 인간은 이전의 그 어떤 존재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분리된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상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그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물질로부터 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21절 역시 “창조”란 단어가 쓰임으로 고래들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새들이나 물고기나 짐승들로부터 변이되어 등장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800번 이상이나 사용했습니다. 소위 거짓으로 “과학자”로 불리는 자들의 추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created)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1,533절과 38,267단어(영어의 경우)로 되어 있으며 그 중 “and(그리고)”가 3,678번 나옵니다.

1월 7일

“하나님”(창 1:22)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4번)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알파요,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8번)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라”(7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돌아보시고 보살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니라.”(3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특별한 관심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니라.” 우주의 운행에 있어 질서와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이는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긍휼 그리고 친절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니라.” 이는 그분의 성품이 이원적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등-역주)

성경은 인간의 책도 아니요, 민족들의 역사도 아니고, 교리 모음도 아니며, 계명의 책도 아닙니다. 종교논문도 아니고 삶을 위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1월 8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창 1:23)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들이 문자적으로 24시간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날들은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질학적 시대일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진화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창조를 받아들이려는 분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날(day, 또는 낮)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낮은 24시간의 일부로 더 큰 광명(태양, 창 1:5, 14)이 지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요한복음 9:4과 11:9 등이 있습니다.

둘째, 이 단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날을 의미하는 바, 예를 들면, “속죄일(the day of atonement, 레 23:27)” 같은 경우입니다.

셋째,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기간으로 (길건 짧건 간에), 예를 들면,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위 세 경우 중 첫째의 경우로 해석하며 이는 앞서 주어진 이유들(1월 3일자 참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명령을 주시던 그 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숙고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이 구절들을 보면 인간에게 노동할 것을 요구하신 6일간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신 6일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24시간의 휴식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날이 다름 아닌 24시간 임을 부인하려고들 하는지 모를 일입

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개의 지질학적 시대 동안 일하고 나서 빙하기에는 안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할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낮, day)”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75번 쓰였습니다. “날들(days)”은 63번 쓰였습니다.

신약성경 중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들이 창세기에서 인용하거나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창세기 50장 중 43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월 9일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에 따른 창조의 순서를 주의 깊게 주목해 주십시오.

1. 하늘들
2. 땅
3. 물
4. 빛
5. 궁창
6. 풀
7. 채소

8. 나무
9. 천체의 나타남
10. 물고기
11. 움직이는 것들
12. 날짐승들
13. 가축
14. 기는 것
15. 땅의 짐승
16. 인간

그런데 이 순서는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결코 추측일 수 없습니다. 만약 5가지 종류의 순서를 정하려면 120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9종류의 순서를 정하려면 362,800가지가 추측 가능합니다. 문제는 15가지를 추측하려면 1,307,674,367,900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한 순서를 맞힐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월 10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 1:26-27)

이 말씀에서 형상이란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에 관한 언급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니까요(딤후 1:17). 형상(image)은 표현이고 모양(likeness)은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지고 출발했으나 타락했을 때 모양은 상실했고 형상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상이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 셋은 하나입니다(요일 5:7). 이처럼 인간도 영, 혼, 그리고 몸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입니다(살전 5:23).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골 1:15-16). 그분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인 자신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히 1:3). 이 사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계 3:14)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고전 11:7)과 모습(similitude, 약 3:9)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likeness)을 회복하려면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셔야만 합니다.

토셉타(Tosephta, 랍비 문헌-역주)는 산헤드린 8장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을까?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실 때 동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자기도 관여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1월 11일

“지배하게”(창 1:26)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단지 천사들보다 약간 낮을 뿐 모든 짐승들, 날짐승들, 물고기들보다 더 높은 존재였습니다(히 2:6-8, 시 8:6-8).

그런데 이 통치권이 동산에서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루시퍼가 이 세상의 신(고후 4:4)이 되었고 세상의 왕국들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눅 4:6). 그의 제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예레미야서 27:5-10과 에베소서 6:10-14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의 통치권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도 않으셨고 도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래로 이 세계질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어떤 나라의 주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잃는 일일 뿐입니다. 이 세상 정부나 왕국의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그 영역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약속의 권능이 남아 있긴 하지만(창 9:1-4)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며(약 3:7) 전체 창조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롬 8:20-24). 짐승들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약간의 먹이에도 굴복하는 수가 있지만 이들의 굴복이 행복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 일부 회복할지 모르지만(요 5:22-23),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계 5:10, 11:15, 눅 19:12-27). 그때 가서야 아담이 몰수당한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롬 8:17-26, 사 11:1-11).

1월 12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창 1:31)

창조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별들 안에서 혹은 하늘들을 뒤집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흙을 파고 바위를 뚫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숲을 탐험하고 바다 속을 뒤흔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조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두려우신 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다섯 가지의 신적 속성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1. 그분의 영광(시 19장)

별이 빛나는 하늘이나 태양의 찬란한 비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장엄함은 그와 같은 경이로움을 만드신 분의 손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2. 그분의 권능과 신격(롬 1:18-21)

모든 인간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의 총합이 될 수 없음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총합보다 더 크신 분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3. 보잘것없는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시 8:3-9)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은 저 은하계 너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덩어리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 그분의 섭리적 돌보심(사 40:12 이하)

그분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항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강요라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5. 그분의 지혜와 권능(욥 38-39장, 28:23-28, 잠 3:19)

그분의 놀라운 길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존재합니다.

1월 13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 2:7)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전에는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을 화강암이 아니라 먼지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약하고 나약해서 은 신처와 필수품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자, 곰, 용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 최고인 자를 목자 없이(마 9:36) 길 잃은 양(사 53:6)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는 튼튼한 나무와 삼림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강한 인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시드는 풀로 묘사합니다(사 40:7-8, 약 1:10-11).

성경은 오래 존재하는 언덕들과 산들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즉시 지나가버리는 수증기(약 4:14)에다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창조주에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넉넉함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약함 때문에 절망하며 이 나약함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권능과 공물을 보이시는 유일하신 그분에게로 돌이킬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시 103:14)

수사학에는 반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먼저 진술해 놓고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창조를 거부한다는 것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작크 마틴 바준(Jacques Martin Barzun) 박사(콜롬비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치는 서양 문명의 전체에 걸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한 사상을 논

리적인 한계까지 이끌고 갔을 뿐이다. 그것은 진화와 발전이란 생명을 보존하고자 죽기까지 싸우는 가운데 적자생존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는 환상적인 사상이다.”

바준 박사의 책에 대해 타임지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다고 합니다.

“바준 박사는 이 모든 문제를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1859년으로 되돌린다. 이때는 마르크스가 경제학 비평을 그리고 리차드 와그너(독일의 작곡가요 시인)가 프리스탄과(Tristan)과 이솔데(Isolde)를 완성할 때였다. 이들 세 사람은 레닌과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적 선구자였다. 오만하고 현대적인 이교주의가 지난 천년간보다 더 많은 유럽을 재정복해 버린 것이다.”

적어도 한 사람의 지성인이 1914-1952년까지의 전쟁으로 빚어진 피비린내나는 살육이 종교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직시하였던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전쟁을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진화를 가르치고 공산주의자들과 나치, 그리고 파시스트는 진화론을 실천합니다. 전자는 더 위선적이고 후자는 더 공격적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월 15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창 2:10)

물은 지구상에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물로부터

나왔습니다(창 1:20).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전부 물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로운 물길이 흐르는 곳에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인간이 천진난만한 무죄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을 만드신 분 사이는 더 없이 좋았고 강이 동산으로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날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셔서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반역이 제압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던 강처럼 결국에는 온 땅을 치유(힐링)하고 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뒤 어린양께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실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계 22:1).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조화롭게 함께 거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7:37-39에서 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읽어 봅시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가운데 함께 흐르는 강가에 동거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죄들

을 용서받은 위대한 결과입니다.

1:20 바닷물과 인간의 피는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피가 6배 농도가 짙을 뿐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왜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역주)

1월 16일

동산에서의 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다름 아닌 노동의 의무라고들 흔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죄를 짓기 전에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 창조주와 조화로운 관계 아래에서는, 노동(일)이란 지적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는 창조물에게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노동(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계되어 있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게으른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계시록 22:3에서 보면 최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3:7-8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하에서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책임에 대해 동일한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산에서나 성막에서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 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 창조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찮은 일을 시킴으로써 굴욕을 맛보게 하시는 대신에 그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창조물 중 최고의 존재(만물의 영장)로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바깥에서 그리고 여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을 것처럼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뢰로서 자신의 일을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타락의 또 다른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 이로써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어버린 인간은 주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창 2:18)**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인간됨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다른 인간과 교제하고픈 갈망과 필요를 부여 받았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진 외로운 생존자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인간이든 홀로

간혀 지내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간은 오랜 고립을 겪으면 지속적인 정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조력자로 여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잠 18:22)라는 말씀이 얼마나 대조적인지요. 물론 독신을 택하여 고귀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중해서 주님만을 섬기고자 혼인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고전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는 성취되지 못한 욕구가 빗나갈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노처녀”라고 다소 거칠게 부르던,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축복”이라고 은혜롭게 부르던 간에, 은혜롭게 그리고 활기차게 홀로 살아가려는 여인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자를 위해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고, 여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과 같은 성(동성)을 지닌 자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으면 자살할 수도 있고 둘이 함께 있으면 살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인과 아벨). 여자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는 실패로 끝납니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이슬람의 확장, 십자군전쟁, 점령군, 그리고 골드러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취함과 폭력이 남성 문화의 전형적인 생활방식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자가 제공하는 균형이 없이는 남자는 짐승으로 퇴화해 버립니다.

1월 18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창 2:21-22)**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수술을 행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필요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청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표적이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남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마음으로 갈망했던 그것이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지도 않은 복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변경되어 여러분의 유익이 되었던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려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와 미끄러짐과 넘어짐, 혹은 악한 자의 공격 등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안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얼마나 많은 지키지 못한 약속, 질병, 혹은 일의 지연 등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빛의 권능이 어두움의 세력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로부터 몰아내었을까요? 어린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를 끝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한 일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하신 것과 행운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1월 19일

떠나서 연합하라

창세기 2:24에는 인간의 사회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왜 결혼이 이처럼 중요하고 영원한 제도 인지를 보여줍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창 2:21-23), 그리고 남자를 위해(고전 11:9) 지어졌으며 남자는 여자 없이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우리를 “연합”이라는 사상으로 인도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육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남자가 자기 몸의 절반을 잘라내고 내장의 절반을 제거한 후에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내를 내어버리고 도덕적,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사생아의 출생과 이혼을 고무 찬양하는 지구 상의 그 어떤 문명도 모두 다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모님의 돌보심과 권위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함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가

정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룯기 1장이 가장 생생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룯이 나오미와 연합(굳게 붙는)하는 장면이 나오고 16, 17절에서는 룯이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그녀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리라고 약속하면서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제 룯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미와 함께 죽고 묻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남녀가 결혼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의미하셨던 그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는 드디어 “그 남자와 그의 아내”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아닙니다. 이 둘은 별거뻔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3:4과 맥을 같이하는 구절입니다.

1월 20일

전체를 푸는 열쇠(창 3장)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창세기를, 3장을 건너뛰고 빨리 읽어 나아간다면 너무도 큰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천진난만함과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격했던 우리는 4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질투, 분노, 살인, 거짓말, 사악함, 부패, 반역, 심판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쪽 성경을 읽어가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

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죄와 죄와 죄가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 끔찍한 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열쇠가 곧 창세기 3장입니다. 이 한 장을 성경에서 빼 버린다면 성경은 당혹스러운 신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시험과 타락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세상도 정말 이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 없는 천진난만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혹은 천진난만함)라는 것은 지고의 선은 될 수 없습니다. 무죄는 의로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상태입니다. 의로움이란 시험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무죄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진난만함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험을 받아보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속한 것입니다. 반면 의로움이란 악 대신 선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성숙한 성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품은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움과 사랑을 한 쌍으로 여깁니다. 사랑 역시 그냥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로봇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순종하거나 반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창조물의 자발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 그룹들, 교단들, 그리고 개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로움과 의무준수를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반면에

사랑만 있다면 행실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만약 자신들이 기준에 미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남을 미워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 자신들이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편집증환자나 감상적인 사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반면 후자는 끔찍할 정도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며 행실이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관한 그 어떤 설교도 사랑의 결핍이라고 정죄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의로움만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균형 잡힌 기독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의와 사랑)를 모두 갈망하셨습니다.

1월 21일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창 3:1)**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험이라는 교리(the doctrine of temptation)”가 시작됩니다.

첫째, 시험의 원천을 고려해 보십시오. 뱀이 인간의 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인격체가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사실이 고린도후서 9:14, 계시록 12:9, 20:2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

고 있는 사건 만큼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죄는 바깥에서 인간에게 왔다는 사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제안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그 어떤 힘이 원인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드는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으로 자기 제안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넷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다룬 것으로 인해 빚어진 직접적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6의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3:2에서는 **“마음대로(freely)”**가 삭제되었고, 창세기 2:17의 경고는 창세기 3:3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로 약화되어버렸습니다. 성경번개가 아담이 아닌 그의 아내에 의해 저질러졌기에 디모데전서 2:14의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고(1절), 그 진리를 부인했으며(5절), 남자와 그의 아내는 이 마귀의 불신에 단지 동의하는 것 이상의 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어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 메시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에덴에서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1월 22일

“이제 뱀은…하더라(Now the serpent was)”(창 3:1)

“이제”와 “하더라(now and was)” 라는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문장인지요. (now는 현재 was는 과거이니 문법적으로는 기이한 조합이라는 것.-역주) 하나님의 영께서 이 단어들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독특한 단어의 조합으로 우리는 사탄의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전히 간교하다는 뜻임-역주).

지난 한세기 동안 대중문화(문학, 연극, 미술, 음악, TV, 영화, 비디오게임 등)는 사탄을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변신시켜왔습니다. 사탄은 전능한 괴물로 원치 않는 혼들을 강제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여겨지며 그가 멸시 받고 미움 받는 것은 그가 참된 신이요,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견해는 “사탄이 다스린다” 라고 외치는 자들(특히 거리설교자나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이렇게 외쳐댄다)이 퍼트리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견해들에 말려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과거도 현재도 똑같습니다. 권능을 지니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요 속이는 자이긴 하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죄를 짓도록 할 만한 힘이나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심을 던지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6000년 전에 파멸로 이끌었던 그 방법은 오늘날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속지 말라”(갈 6:6)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7)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3:6 인간의 문제들은 환경의 결과일 뿐이라는 교리는 에텐의 동산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

말을 하는 뱀

저는 뱀이 동산에서 미세스 아담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뱀과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만드실 정도로 권능이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분께서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계 13:15) 주께서는 틀림없이 살아 있는 창조물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끔찍한 “틀어짐”을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을 지배하는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이 위계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뱀이 여자를 이끌고 있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귀의 이 행동으로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큰 간격이 벌어집니다.

인간에게는 권위의 상징으로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위가 주어졌으며 이 이름 짓기는 땅의 창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니고 있던 능력 즉 언어

의 능력을 처음으로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뱀이 이 창조
의 질서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첫째 남자의 보완 자요, 동료이며 돕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데 여자는 뱀과 대화할 때 더 낮은 직급의 창조물에게 미혹되어 자신의 범주
를 벗어나 (남편을 의지하는 대신) 독립적이며 단독으로 행동하고 말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해주신 위치보다 자신을 더 높여주리라고 그녀가
바랐던 바로 그 행동으로, 뱀이 그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독
립해서 행동함으로써 그녀는 남녀의 역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비난과 변명이 뒤 이었고 이로써 남자와 아내와의 조화로운 관계는 무너지
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고 만 것입니
다. 마귀의 악한 계획이 제대로 성취된 셈입니다. 그의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의 선을 위해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모든 가능한 수
단을 동원해서 뒤집어 엮는 것이었습니다.

1월 24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창 3:3)

우리는 다시 한번 사탄은 자신의 활동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코치는 자기 팀에게 지시한 공격을 상대방 수
비가 막지 못하면 그 방법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 공격방식이 효
과가 좋은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시험은
(고전10: 13)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동산에서 그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6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Freely) 먹어도 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자가 인용할 때 보면 “마음대로(freely)”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창 3:2). 주님께서는 남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창 2:17)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에 보니 이 명령에다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창세기 2:17에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경우 “네가 반드시(surely) 죽으리라.”라고 형벌이 주어졌는데 이것마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로 변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존중하고 믿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4000년이 지난 후 사탄은 또 다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산이 아닌 광야가 무대였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과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4일 밤낮을 굶주렸고 야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귀는 늘 성공해왔던 바로 그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10-11에서 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나 시편 91편을 보면 이 마귀의 인용은 본문을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in all thy ways)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길에서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언제라도 (at any time)”라는 말이 없음에 주목하십시오. 이 덧붙인 말대로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됩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편구절을 알고 계셨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눅 4:12).

마지막 아담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으나 시험하는 자를 패퇴시켰습니다. (마귀가 무모하리만큼 담대하다는 것은 시편 91:13, 즉 바로 다음 구절이 여인의 후손에 의해 멸망 당할 자신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을 미혹해 타락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1월 25일

“그들이 그 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창 3:8)

타락한 인간은 참되신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시도할 뿐입니다. 그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새기고, 신들을 창작해 낼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신성한 물건들을 고안하고 거룩한 장소들을 봉헌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 3:10-12)

그 이유는 인간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신(god)은 믿을 지 모르나 주 하나님은 안 믿으려 합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한 그는 신들을 숭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9-20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Author)이시며 완성자(Finisher)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이끄시고,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들, 즉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1월 26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4-15)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분은 아담을 찾기 위해 동산으로 걸어오신 “주님의 음성(the voice of the Lord)”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태어날 분이 발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언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뱀의 패배, 처녀탄생, 아담의 구원 혹은 타락을 회복하는 것 대신 미래를 미리 말하는 첫 번째 예언에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서 스가랴(침례인 요한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출생에 대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눅 1:68-71).

이 말씀에서 저는 구원의 약속과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약속 대신 오히려 이 약속이 선언된 그 시점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since the world began)”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시작(땅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9과 저자의 책 <창세기 3장 성경공부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으로 되돌아가 “누가 첫 번째 예언자”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요 주 하나님의 음성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계 19:10)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뒤이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적 진리는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작 때 동산에서 하신 증언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게 되며 이 예언을 강조하기도 하고 더 확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경과 외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두는 주 예수님의 증언과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예언자는 다 이 첫 번째 증언에 일치하였습니다.

모하메드가 과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예언자의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그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구원자에 의해 사탄이 패배하리라고 예언하였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누와 간디, 또는 조로아스터가 진리의 전달자일까요? 그들의 증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선언과 일치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뱀과 동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실로 간단합니다.

3:15 죄로 어두워진 밤에 별 하나가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4:1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아기를 두고 남자라는 표현을 하다니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것은 마치 이브가 창세기 3:15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실제 출생은 요한복음 16:21에 나와 있으며 그 남자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성경공부개요>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과의 내용은 분명히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prophecy라는 단어가 흠정역에는 대언으로 번역되었으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예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역주)

1월 27일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3-24)**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한 쪽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존재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과 진노와 복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내던져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의 천사들, 그리고 어둠에 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 그 동산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 거의, 아니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면 인간들은 그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심판 날 이 선고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울까요?

23절에는 “내보냈다”고 했고 24절에는 “쫓아내셨다”고 하신 걸 보면 아담

과 이브는 저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흰 왕좌 심판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 호수의 선고를 받고 저항하다 내던져질 것입니다.

성경기록을 보니 인간 타락의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한 것 같습니다. 동산을 지킬 책임을 부여 받은 자가(창 2:15)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에 의해(창 3:24) 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맙니다. 그룹이 라는 창조물이 들고 있는 불타는 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음을(시 104:4)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 다시 한 번 아담의 후손에게 허락될 것입니다(계 2:7, 22:2, 14). 그때까지는 동산 안에서 누리던 그 특권이 인간에게 금지되었습니다.

1월 28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창 4:1)**

이제 우리는 죄의 기원으로부터 나아가 죄의 진행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 안에 있던 죄가 더 발전해서 가족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장도 처음 세 장처럼 여러 가지의 “기원들”이 등장합니다.

- 최초의 임신
- 최초의 출생
- 최초의 가족
- 최초의 씨족관계
- 최초의 종교

- 최초의 일탈(참된 종교로부터)
- 최초의 거짓말(인간이 말한)
- 최초의 다툼
- 최초의 살인
- 최초의 순교
- 최초의 문명의 징후들
- 최초의 불평
- 최초의 율법
- 최초의 도시
- 최초의 음악
- 최초의 산업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사탄이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마귀로부터 어떤 특별한 도발을 받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은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행위들을 다 마귀가 저지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1월 29일

예수님과 아벨의 비교

아벨과 예수님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14가지 사실을 상고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잘 읽고 아래 주어진 관련 구절을 확인해 보세요.

1. 두 사람 다 목동이었습니다(요 10:1-10).
2. 그들의 헌물이 드러진 것은 목동의 자격으로서였습니다(요 10:11).
3. 적대감을 야기시킬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요 15:25).
4. 그 이유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 27:18).
5. 자연사하지 않고(행 2:23) 친족의 손에 폭력적으로 죽었습니다(행 2:36).
6. 이들을 죽인 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막 12:9).
7. 이 헌물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히 11:4, 엡 5:2).
8. 그 헌물은 어린양이었습니다(벧전 1:19).
9. 그 희생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다(히 10:7-9).
10.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물을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히 11:4, 엡 5:2).
11.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을 받으셨습니다(히 10:12).
12. 이로써 아벨과 예수님께서서는 의롭다는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습니다(눅 23:47).
13.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헌물을 받으셨음을 공개적으로 살인자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행 2:32).
14. 아벨과 예수님의 헌물은 둘 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2:24).

가인은 자기 형제를 지키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벨을 죽이는 것이 자기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1월 30일

가인과 아벨의 헌물

아벨의 헌물은 믿음에 의해 드려졌습니다(히 11:4).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롬 10:1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실 만한 헌물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계시하셨을 수도 있고(가능성이 낮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을 동산에서 가죽으로 옷 입혀 주신 것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가능성이 많음) 주님께서 무엇을 헌물로 요구하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 다음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3. 둘 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쳤습니다. 한 마디로, 두 사람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장(창 3장)에 뒤이어 그 타락의 첫째 결과가 나타납니다(창 4장). 가인은 술꾼도, 마약 중독자도, 간음하는 사람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와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뿐입니다. 이로써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땅 위에 태어난 첫 두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변치 않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1. 진지함도, 신앙도, 경배도, 희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 헛됩니다.

2.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 누구든 올바른 헌물을 가져오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누구든 잘못된 헌물을 가져오면 거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오든 상관없이 누구든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4.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어린양이 흘린 피를 통하는 것 뿐입니다.

1월 31일

회개

“가인이 자기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창 4:8)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가인이 보여준 반응은 뒤이어 태어난 모든 불신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1. 가인은 자신의 길을 바꾸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도 그는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종교를 택했습니다.

3. 가인은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4.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버림받은 상태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마음을 살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에 의해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는 자신의 종교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택할 수 있었으나 죄가 그의 마음의 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를 넘어가서 자신의 길을 강제로 여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그 장애물인 죄를 제거하고) 주님을 들어 오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속죄와 무조건적인 정죄의 교리는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2월 1일

자아를 낮추기

우리는 성경의 첫 부분에서 어떻게 교만이 인간을 정죄하고, 어떻게 회개가 필수적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이 처한 상태를 확인해 보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잔인함, 교만, 자기 의지, 주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 등은 점차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며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타락한 부부의 첫 태생에게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벨에게는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동생이 올바른 길을 택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인데 어째서 이 간단한 구원의 길을 놔두고 혼을 잃어버리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교만하고 거만한 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과 같은 죄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저지른 그런 죄들에 대한 용서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롬 2:5).

“하나님께서 복음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이것이 신약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이 다른 사람의 증언(사 53:1)과 구원자의 완성하신 사역(일)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린바 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바 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주 조롱하고, 해코지하고, 놀려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난 후 직장이나, 예배당, 혹은 다른 곳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겸손한 자세로 만나야 비로소 그 믿는 자가 회개하는 그 자를 그리스도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좋은 길을 찾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대다수는 가인의 길을 걷다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들어 올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벧전 5:6).

2월 2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창 4:8)

아벨의 살해 사건은 향후 인류 역사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당하게 될 박해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살인자로, 신약성경은 그의 자녀들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요 8:44, 요일 3:12, 마 10:36).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들 때문에 종교를 비난하거든 논쟁하지 마시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십시오. 수세기에 걸쳐 로마 천주교가 저지른 피 비린내 나는 학살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자녀들이 저지른 십자군 전쟁, 숙청, 대량학살 등을 통해 수많은 조상들을 수천년 동안 잃어온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경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뿐이라고 주장하는 파당들이 유럽대륙의 영적인 파산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 전 대륙이 대학살을 겪은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와 회교와의 전쟁들로 역사책이 꽉 차 있다는 현실 앞에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입니까?

그들이 뭐라 하거든 동의하십시오. 종교에 대한 그들의 비판에 동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창세기 4장을 보여 주면서 그 모든 악행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위대한 아벨이시요, 선한 목자이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평화의 통치자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이분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2월 3일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창 4:17)

창세기 4장은 어쩌면 창세기 1장보다도 더 다윈주의(진화론)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를 전개해 가기 위해 다윈의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옳으며,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알 수 없는 긴 시대라고 가정하고 또한 이 모든 시대의 말미에 드디어 인간이(남자와 여자가) 기적적으로 등장했다고 칩시다. 셀 수 없이 긴 영겁의 시대의 끝 무렵에 남성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던 그 순간 여성도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00,345,882년 동안 인간이 없다가 첫 번째 침팬지가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말한 지 두 달 만에 두 번째 침팬지가 “내가 금방 차릴게요.” 라고 했더니 참으로 편리한 상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상에 동조한다면 당신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원숭이-사람”이 “사람-원숭이”가 되었다가 “사람-사람”이 되려면 더 많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벽화를 그리고,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발명하고 철기와 궁극적으로 농구까지 배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어떤 박물관 안내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뼈들은 60억 4년 된 것들입니다.” 그러자 관광객 중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라고 묻자, “아, 그건 말입니다 부인, 제가 이 박물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4년 전

에는 이 뼈들이 60억 년 된 것이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니 동굴도 없고, 진흙집도 없고, 유목민도 없습니다.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토착 원주민들이 뼈들을 목에 걸고 불 주위를 돌며 노래한다고 아니하고 오히려 하프와 오르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특하게 생긴 큰 돌로 뭔가를 갈거나, 찍거나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가죽 조각을 댄 막대기에 돌을 묶어 팽이를 만들려면 10억 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이런 기록 대신 놋과 철을 다루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따르면 이 모든 일들이 아담과 그의 자녀들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은 물론 동굴에 살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만 이들은 항상 문명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도망자들이 남긴 것들은 아마도 자연에 노출되었던 다른 물건들보다는 더 오래 남아 있었겠지요. (예를 들면, 암석 벽화, 질그릇 조각, 그리고 기타 현대인들이 그렇게도 관심을 보이는 쓸데없는 물건들 말입니다.)

룻과 다윗과 엘리야는 모두 동굴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환란 때 믿을 남은 자들 또한 바위 굴 속에 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처음 시작은 강하고, 빠르고, 지적으로 매우 우월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조심스럽게 읽지 않는다면 혹시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를 몇 가지 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저를 늘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작자들과 도둑들(잭슨, 샤프론 등등)이 함족(주로 아프리카 흑인)에 조금이라도 모욕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을 하면서도 연방학교의 교과서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전물에 너무도 탁월하게 전개되어 있는 진화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자료에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유인원인 자가 흑인의 용모를 갖춘 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자는 결국 진화해서 백인 풍모를 지닌 현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함의 후손들)에게 이 어찌 끔찍하고 분노가 치밀게 하는 모욕이 아닌지요? 저는 이런 사실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흑인이라면 저는 택시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흑인을 안 태우려는 택시 운전자들 때문에) 그 따위 잘못된 진화모델에 대해 더 크게 항의할 것입니다.

2월 4일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놈 땅에 거하더라.”(창 4:16)

이 순간부터 우리는 두 노선을 따라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즉 가인의 길과 셋의 길입니다. 이 두 노선은, 우선 가족 안에서, 그리고 뒤이어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창세기의 새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록 앞선 역사는 뒤따르는 역사와 무관하지는 않으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6-24 가인의 노선

창세기 4:25-5:32 셋의 노선

창세기 6:1-8 홍수의 물 아래서 두 노선이 끝나버림.

창세기 2:4-4:24까지의 내용은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들의 죄.
- 이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함.
- 아벨이 살해당함.
- 가인의 후손이 라멕에 이르자 인간의 으스스대며, 통제 받지 않는 폭력이 절정에 달함.

이 부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행히 암울한 분위기 속으로 한줄기 빛이 비치고 있는바 다름 아닌 다음 부분인 6:1-8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셋은 가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했으며 이로써 살해당한 아벨과 함께 경건의 자취가 사라져 버리는 대신 에녹의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향후 성경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한 종족이 멸망하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민족을 보존해 나가는 현상 말입니다.

2월 5일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비교

우리는 성경기록을 통해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유사한 점을 적어도 20가지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1.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둘 다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창 4:2, 13:15).
2. 둘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헌물을 거부하였습니다(요 1:11).
3. 둘 다 자신들이 선택한 희생물을 바쳤습니다(롬 9).

4. 둘 다 자기 의를 고집한 죄를 지었습니다(롬 10: 3).
5. 둘 다 하나님께 헌물을 거절당했습니다(창 13: 39).
6. 가인이 자기 동생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었으며(창 4:7) 이스라엘 또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했습니다(신 28:13).
7. 둘 다 앞서 언급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상실해야 했습니다(사 9:14).
8. 둘 다 살인자가 되었고 시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행 5:36).
9. 하나님께서는 둘 다에게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행 2:22-23).
10. 하나님께서는 이들 둘 다에게 피의 증언이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7:23).
11. 이들은 둘 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렘 24:9).
12. 이 저주 중 한가지는 그들에게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창 4:12, 레 26:34-35).
13. 그리하여 둘 다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신 28:65).
14. 가인은 자기가 받을 벌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역시 언젠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스 12:10).
15. 가인은 죄의 결과 내쫓겼습니다(창 4:14). 이스라엘 또한 약속의 땅에서 내 쫓겼습니다.
16.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 때문에 얼굴을 숨기셨습니다(호 1:9).
17. 그들이 죄를 지은 이래 모든 사람의 손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신 28:66).
18.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세계 어느 곳에 서든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 가인을 죽인 자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엄중한 형벌을 받을 입

니다(창 12:3).

20. 가인은 도시 생활을 확립했고(창 4:17), 이스라엘인들도 오늘날까지 대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2월 6일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창 5:1)

성경에는 비슷한 타이틀을 지닌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입니다. 전자는 구약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책을 읽어 가노라면 “그리고 그가 죽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조금 더 살고 또 어떤 자는 다른 자들 보다 상당한 업적을 쌓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녹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아들들 모두에게 동일한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을 보면 “낳고” 는 있는데 “죽으니라” 는 없습니다. 출생은 있으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선하게 살았고 또 어떤 자들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명단에는 사망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첫째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 15:22) 아담을 통해 태어난 자는 다 죽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자는 다 영원히 삽니다.

당신이 한번 밖에 태어난 적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는 오직 육체적 생명을 얻을 뿐이나 이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두 번째, 즉 영적 출생을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2월 7일

아담으로부터인가, 유인원으로부터인가?

알파인 인터내셔널(The Alpine International)이라는 곳에서 “그 어딘가에 있는 섬”에서 학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관심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유인원들이 모여 개최한 것임.-역주)

1. 인간들이 우리(유인원)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꾸준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2. 우리(유인원)는 이 문제를 특별히 숙고하고 진지하게 연구하였기에, 그리고
3. 우리(유인원)들 중 몇이 인간들이 발행하는 일간지를 읽고 살인과 이혼과 온갖 스캔들 같은 현상은 우리 종족의 그 어떤 전통과도 연관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4. 우리(유인원)는 댄스 홀을 방문하여 그 안에 있는 몇몇을 목격한바 우리의 과거 행적과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5. 우리(유인원)는 당신들(인간)의 일간지의 주말판에 나오는 오락섹션을 분석해 보았는데 우리 과거의 자료에는 그와 같은 종류가 전혀 없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6. 우리(유인원)는 당신들(인간)의 전쟁터를 방문해 보았고 잔인한 학살 모습을 확인한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여 우리 종족이나 우리의 서식처인 정글 그 어디에서도 그런 비극에 대해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인간과의 친족관계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바이며 이를 주장한다면 우리 종족과 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모욕으로 간주할 것이며, 또한 전혀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 종족을 대변해서 미국인들 앞에 본 사건을 제시하고 만약 그 거칠고 절반쯤 구워진 인종(흑인을 말하는 것)이 일말의 정의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종족과 우리 종족을 관련짓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적어도 인류의 스캔들이 줄어들 때까지는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유인원 족은 인간이 자신들의 지위를 우리보다 더 높이든지 혹은 낮추든지 간에 더 이상 우리와 자신들을 엮지 않을 때까지 인류와의 모든 외교 관계를 이에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모든 유인원들이 서명하였음

옥스퍼드대학교의 세이시(Sayce)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 및 신약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오늘날 무지와 엉성한 지식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

2월 8일

“셋의 전 생애는 구백 십 이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창 5:8)

창세기 5장의 출생과 사망 기록에는 주목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에노스, 에녹, 그리고 노아이며, 이 세 사람은 영적인 생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하였더라.”(창 4:26) 이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로마서 10:9-10에 나오는 구원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속의 갈망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교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창 5:24)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녹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구원이 담고 있는 진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보면 또 다른 적용 가능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자아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해서 더 이상 인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우리는 섬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걷게 되고, 같이 걷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셋의 노선에서는 그 어떤 발명품이나, 예술이나, 문명도 찾아볼 수 없음을 주목하십시오.

가인의 노선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술분야와 인문학 쪽에 종사하는 자들은 가장 극렬하게 성경적 진리와 도덕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거의 모든 문화와 시대에 걸쳐 입증된 사실입니다.

2월 9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라.”(창 5:22)

걸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의 여러 측면들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1. “내 앞에서 걸으라.”(창 17:1)는 말씀은 진지함을 의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 길을 걷는지를 살펴보고 계심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2. “주 네 하나님을 따라 걸으라.”(신 13:4)는 말씀은 순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고자 합니까? 그분께서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이 완전하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코스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분 안에서 걸으라.”(골 2:6)는 말씀은 그분과의 놀라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나는 내 옆에서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내 앞에서도 내 뒤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성경의 교리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 발 위에 서 있곤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가 걷기 시작하면 깔깔대며 웃

곤 했습니다. 큰 걸음을 걸었다가 작은 걸음을 걸었다가 멈췄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디로 가든 아이들 또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교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과 걷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작은 생명이 그의 인생을 확 바꾸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래로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꿈속에서 사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악과 대적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유 14,15절). 가인의 노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진신했고 중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하늘에서의 완전한 교제에 초대됨으로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내딛을 때 그의 발은 땅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 다음 걸음을 내딛으니 하늘 위에서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살전 4:13-18).

유다서는 에녹을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옛 인류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목적들이 완성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시고 노아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2월 10일

창세기 5장에 관한 마지막 묵상

“하나님께서…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2절) 남편과 아내가 된 남녀는 한 육체가 됨으로써 동일한 이름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도 고린도전서 12:12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엡 5:30-32).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 하리라.”(29절) 저는 구원받은 이래로 노아를 위로자라고 부르거나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단지 노아가 선포한 말을 믿고 그의 권고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옛 성도들”은 그 누군가가 진리를 위해 여전히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의 보존자로서 노아는 위로자이신 분과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뭔가 더 통찰력 있는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진화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진화론을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지질학적 시대”라고 인정하고 대략 짧게 잡아 이 날이 5백만 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360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3절)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와 학생이 되려면 우리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다윈의 날의 길이인 5백만 년을 360으로 곱하고 다시 아담이

셋을 낳을 때까지의 130년을 곱하면 셋은 아버지가 2,340,000,000,00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난 셈입니다. 허허허!

이제 우리는 다윈의 탐험선 “Beagle호”에게 작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2월 11일

예수님과 노아의 방주

우리는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어떤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방주와 예수님은 둘 다 인류가 멸망을 당하기에 앞서 피난처로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창 6:13-14, 계3:8).

2. 이 둘은 다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피할 길이었으며 결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고후 4:6).

3. 방주는 땅에서 자란 살아 있는 식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창 6:14, 사 53:2).

4. 그 살아 있는 식물은 피신처를 예비하기 위해 잘려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죽어야만 했고 잘려야만 했으며 필요한 곳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숨 또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찢겼고 그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박힌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단 9:26).

5. 방주는 겉모습이 멋지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사 53:2).

6. 둘 다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래프팅(뗏

목타기)도, 산꼭대기도, 잠수함도, 홍수에서 인간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체험도, 침례도, 그 무엇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창 4:12).

7.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긴 했지만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청받은 것은 사실입니다(창 7:1, 마 11:28).

8. 그런데 구원받은 유일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9. 방주에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것처럼 많은 화물을 실어야 할 그 엄청난 배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뿐인 문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요 10:9).

10. 그 문은 옆(구리)에 있었습니다(요 19:34).

11. 방주는 봉인되었고 안전했습니다. 밖에 칠한 역청은 외부로부터 파괴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았고, 안에 칠한 역청은 내부에 있는 그 어떤 작고 약한 창조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창 6:14). 일단 모든 생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창 7:16, 롬 8:38).

12.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 구원의 3중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을 신뢰한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받고(롬 5:8-10), 영, 혼,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살전 5:23).

13. 창문은 3층에 있었습니다. 만약 2층이나 1층에 있었다라면 이 세상에서 오직 사망과 파멸만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은 위쪽에 있었고 이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함이었습니다(골 3:2).

1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이르든지, 거기에는 모두를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요 14:2).

15. 이 항해를 위해 믿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빌 4:19).

16. 방주는 온갖 바람과 비와 파도와 맞부딪혔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물 한 방울 맞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 바람 한 점 맞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온갖 진노를 다 받으셨 습니다(시 42:7).

17.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 달력을 바꾸어 유월절이 매년 첫째 달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유월 절이 제7월 14일이었습니다. 방주는 7월 17일 안전하게 멈추었습니다. 예수 님께서도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 습니다. □ 심판의 홍수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창 8:4, 출 12:2).

18. 동물들 간에 평화와 조화가 있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싸우지 않았고 서로 사이 좋게 지냈으니까요.) 방주 바깥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 물고 뜯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삶의 방 식을 바꾸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변화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다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9.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진 진노를 피하기 위해 땅으로부터 들려 올려졌습니다.

20. 이 들려 올려진 자들은 심판이 끝나자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1. 방주에 타고 있었던 자들은 정화된 창조세계로 걸어 나왔습니다.

2월 12일

홍수 이전

오늘날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유주의 교회의 설교와 종교 방송에서 사라져 버렸으며 라 오디게아 시대의 기독교 서적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멈추는 그때, 사악한 자들을 아끼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온 세상을 덮어버린 홍수일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현대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은 물론 내적인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창 6:5).

2. 인간의 악한 마음은(6:5) 거룩하신 그분의 마음에 슬픔을 줍니다(6:6).

3. 인간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멸하시고자 하셨고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6:7).

4.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폭력에 대해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는 폭력적인 반응으로 응수 하였습니다(6:11-13).

5.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멸망은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과(6:7) 이 창조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것(7:4)을 다 포함 할 수 있습니다.

6. 남자, 여자, 토끼, 조랑말, 소년 소녀, 원숭이, 판다, 귀엽고 작은 바다표범, 아기, 노래하는 새, 강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홍수로 죽었는데 이 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움직이고 기거나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홍수에 쓸려 나갔습니다(9:21-23)

당신은 어찌면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혼을 타오르는 불 호수에 내던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자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복음 전도자 여러분, 사악한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기를 얻거나 받아들여지도록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고 그들도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2월 13일

가인의 아내와 기타 수수께끼들

“다 좋은데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요?” 우선 빌리 선데이 목사의 훌륭한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자신의 혼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6:1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아담과 이브로부터입니다),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6:1)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여동생과 결혼한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친족과의 혼인을 금하는 법은 홍수가 끝난 후 수세기가 지나서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사촌 혹은 육촌들과 혼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풍습은 금지되었습니다. 친족과의 혼인은 인간의 혈통이 부패되어 그와 같은 혼인이 위험스러운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허용되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2절)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 데 누구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사람 ㉠동생, 사촌, 이웃집 처녀 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물 중 몇이나 방주 안에 들어 갔을까요? 만약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노아의 방주 장난감 세트”처럼 장난감 방주 안에 기린과 얼룩말 한 쌍만 들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그리는 것은 더 쉬울 것이고 장난감 세트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것과 다릅니다.

적어도 모든 종(여기서는 SORT로 Kind, 즉 종류가 아님. 다시 말하면 고양이과에 속한 암수 두 마리를 말함. 고양이과에 속한 모든 종류의 고양이를 두 마리씩이 아님)의 두 마리가 대표로 탑승했습니다(6:19-20). 둘은 통치적 측면을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것의 번식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각각의 정결한 동물은 암수 일곱 쌍 즉 열 네 마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 갔는데 이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몇몇 동물은 종의 멸종 없이 희생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창 8:20). 일곱은 도덕적 측면을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게 나아 올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창 7:9)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부주의한 독자는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물의 수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방식을 기록한 것입니다(즉 둘씩 차례로 들어갔다는 말임.▮역주).

노아는 어떻게 그 모든 동물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19에서는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명을 받았는데 7장 1절에서는 동물들 없이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네게(To thee)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지 너와 함께(WITH thee)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7장 9절 에서야 비로소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노아에

게(UNTO Noah)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노아가 동물들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동물을 방주에 태운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2월 14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창6:8)

인류 역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되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 어떤 경륜 하에서 간에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11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엡 2:8-9)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며(시 51편, 딤후 3:5) 은혜와 행위를 섞어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11:6).

일부 세대주의 자들은 십자가 이전에는, 인간은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며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 첫 1500년 기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첫 1500년 동안에는 지켜야 할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해야 합니까? 후일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도 이 율법은 민족들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한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4000년 동안 히브리민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추정해야 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을 때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 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이로다.”(출 34:6)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율법 하에서는 희생도 못 드리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 즉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청했고(시 51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시 32편). 어느 시대건 믿는 자는 자신들의 원형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롬 4:11-12).

하늘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 행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왕좌 주위에 모여 자신들의 업적이 아닌 그분의 업적에 근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세대주의 재고찰>, “제8장 구약성도들의 구원”을 보십시오.-역주).

2월 15일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창 7:11)**

홍수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창조를 인류역사의 제 1년이라고 계산한다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간 설교하며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셨으니(창 6:3, 벰전 3:20)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 노아는 480세 였습니다(창 7:11). 이로써 방주의 건축은 1536년에 시작되었고 홍수는 1656년 발생합니다.

2월 10일: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감(7:1-9)

2월 17일: 홍수가 옴(7:10-11)

3월 26일: 비가 그침(7:12)
7월 17일: 방주가 안착함(8:1-4)
10월 1일: 산 봉우리가 보임(8:5)
11월 11일: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냄(창8:6-9)
11월 18일: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옴(8:10-11)
11월 25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8:12)

인류역사가 시작된 지

1657년 1월1일 노아가 방주를 열었음(8:13)
2월 27일 모두가 방주를 떠나감(8:14 이하).

2월 16일

방주의 건축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2월 15일자 내용은 방주의 건축기간이 120년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이번 내용은 그 전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역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데도 자주 반복해서 주장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데 1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과 성경교사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다른 선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히 들여다보면 그런 주장이 확실히 보장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위에 인용한 성경구절(창 6:3)에 근거해서 나오는데 실은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땅의 폭력으로 인해 땅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계시를 13절까지는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다음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노아가 첫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500세였습니다(창 5:32). 이 사실은 잘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창 7:11).

셋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의 아들은 이미 성장해서 결혼을 한 뒤였습니다(창 6:18).

넷째, 세 아들이 세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신 당일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방주를 건축할 기간은 최대한 100년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기로 마음먹은 바로 당일 노아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창세기 9:24과 10:21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됨으로 세 쌍둥이라는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섯째, 가운데 아들인 셈은 홍수가 끝난 후 2년이 되었을 때 100살이었습니다(창 11:10).

따라서 우리는 방주의 건축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120년 미만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2월 17일

창세기 6-7장에 관한 마지막 묵상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사실들은 저자의 책 <흥미진진한 진리들(Fascinating Truth)>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6:4 아이슬란드의 국기에는 용, 독수리, 황소, 그리고 거인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이 나라의 신화 속에 나오는 수호신들입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 구전에 따르면 곡과 마곡은 영국제도(British Isles)를 지키는 거인들이었습니다.

6:13 “끝(the end)” 모든 죄, 악, 슬픔, 문제, 고통이 그 언젠가 최후의 끝을 맞이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죄인들을 설득하시지만 은혜의 날이 끝나는 때는 오고 맙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의 끝은 오고야 말았습니다(겔 7:2, 3, 6). 또한 만물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7:1 이 구절을 계시록 22:17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부르심은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7:1 노아를 구원한 것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방주를 건축해서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었기에 멸망을 피한 것입니다.

7:1 “들어오라(come in)” 예수님은 우리만 폭풍을 통과해 가도록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직접 폭풍을 통과해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7:20 “네게로 나아오리니” 19절에서는 노아가 동물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정확하게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말씀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 에 의해 데려와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나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2월 18일

크게 넘침(prevailing)

창세기 7장을 읽어가노라면 홍수의 물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의 강도가 점점 더 증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비가 오며”(4절)
2. “홍수의 물들”(7절)
3. “큰 물의 모든 샘들이 넘치고”(11절)
4. “물들이 불어나”(17절)
5. “물들이 넘쳐서”(18절)
6. “크게 불어나며”(18절)
7. “크게 넘치므로(prevailed exceedingly)”(19절)

잘못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 그와 같은 멸망, 그와 같은 파

멸, 그와 같은 완전한 멸절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42:7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의 진노 아래 고통을 당하시며 갈 보리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외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바람과 파도에 얻어 맞고 흔들리는 작은 방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겪고 있는 사람의 아들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악함과 폭력에 대한 형벌 전부를 인간의 구원자요 대변자이신 분께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창 7:17) 이 들린 방주는 심판 중에서도 믿음으로, 저주받은 인류를 버리고 방주의 보호 하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는 다름 아닌 구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고뇌의 순간에도 땅에서 높이 들린 채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요 12:3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물들은 땅 위에 넘쳤습니다. 물들은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 위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섰습니다.

2월 19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창 8:1)

홍수 이후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는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이 완전한 멸망

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2절의 “깊음”이라는 단어는 땅 위에 있는 궁창에 관한 말씀이지 땅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첫째, 둥근 지구 속에 바깥을 뒤덮어 산꼭대기를 덮을 만큼의 물을 저장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8장 3절 말씀에 보면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물들은 지구 바깥에서 왔음이 확실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뒤덮은 홍수(벧후 3:5), 즉 창조 후(벧후 3:4, 창 1:1) 발생한 물의 넘침(벧후 3:6)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창 1:2).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에 땅을 뒤덮은 홍수 후에 땅 위로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시나 그것은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바람이 불게 하신 것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역주)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물러나셔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심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다행히 노아는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던 마음 상태(창 6:5)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창 8:21).

물들이 줄어든 것(창 8:1)과 물들이 물러나는 것에 관해서는 저자의 책 <어휘의 정의(By Definition)>을 참고 하십시오.

2월 20일

까마귀와 비둘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살아남은 동물들에 앞서 두 마리 새가 먼저 방주를 떠났습니다.

먼저 까마귀가 나갔고(창 8:3) 이어서 비둘기가 나갔습니다(창 8:8). 땅은 아직 질척거렸고,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썩은 시체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둘기는 방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깨끗하지 않은 새이며(레 11:15, 신 14:14) 물이 줄어든 후 남겨진 썩은 고기들을 먹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것처럼 지저분한 땅에는 결코 발을 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이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핵심은 7절에 나오는 짧은 표현인 “여기 저기(to and fro)”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탄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보고할 때 스스로 사용한 표현입니다(욥 1:7, 2:2). 이것은 거짓 교리에 영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엡 4:14). 이것은 또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을 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암 8:12).

반면 비둘기에 대한 기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연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

이와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홍수 후의 역사를 뒤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이 먼저 선수를 치고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은 뒤이어 나갔으나 자리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기록은 예언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환란 동안 사탄과 그의 어둠의 군대가 풀려나고 주의 영계서 두 증인, 144,000명 그리고 이들의 회심자들을 통해 증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증인은 거부당할 것이고 결국 증언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나뭇잎이 새롭게 움틀 때가 되어야(창 8:11, 롬 11장) 땅이 비로소 사람이 다시 살기에 적당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2월 21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창 8:20)

우리는 희생과 헌물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나아간 처음 두 번의 경우는 향후 뒤이은 모든 경배행위에 관한 교리적 진리를 확립시켜줍니다. 성경의 처음 여덟 장에 나타난 희생과 헌물의 기본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거짓종교와 거짓 교리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획득하려면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배나 헌물이 아니라 뇌물이나 상업적 계약, 혹은 구매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이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호의나 축복에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창 6:8).
2.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출하십니다(7장).
3. 노아는 이에 감사의 표시로 헌물을 드립니다(창 8:20-21).

이 순서는 창세기 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1. 아벨과 2.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 시대에는 인간은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구원받는다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교리입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출되고 나서야 희생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양의 피를 적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박으로부터 피신하기까지는 주님께 헌물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노아가 바친 헌물은 번제 헌물이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노아는 하나님만을 위해 온전히 자발적인 헌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4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즉 번제 헌물이 바치는 자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희생물을 바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 희생물을 드리는 종교는(개신교든 천주교든 이방종교든) 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호의에 감사하고자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노아가 희생을 바치는 이 말씀들로부터 우리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정결 혹은 부정이란 말은 건강이나 음식과 관련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는가 아닌가에 관한 언급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가 깨끗하니 소를 그분께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그 소는 깨끗하므로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거룩한 것만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께서 박쥐는 부정하다 하시고 그것을 헌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요 이에 그 사람은 그 어떤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월 22일

노아와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창 9:8-9)**

우선 언약의 주체가 먼저 등장합니다(9절).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약은 당연히 두 당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곧 내가”

11절을 보십시오. “내가…세우리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맺는”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운”

이것은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그에 합당한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언약의 핵심 주제는 숨을 쉬는 그 어떤 생물도 다시는 전세계적인 홍수로 인해 익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들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자 함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13절)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약”과 “나의 무지개” 라는 표현에서 “나의”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창 6:18을 보십시오). 또한 언약의 표적이 인간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홍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버리고, 이른바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붙들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다시 예전의 폭력과 악한 길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인간은 노아의 날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리니…”(15절)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리니…”(16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 할 수 없느니라.”(딤후 2:13)

노아와의 언약은 노아의 홍수가 전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인 홍수에 불과하다는 이론들을 정면으로 완벽히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라.”(11절)

만약 창세기 7장의 홍수가 중동지역 지중해 연안에 한정되거나 지구의 어떤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것이었다면 그때 이후로 지구상에 발생한 모든 국지

적인 홍수들은 전부 이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의 홍수가 국지적인 것이었다면 미시시피강이 범람하여 미주리 마을이 잠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심을 입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덮었던 세계적 홍수였다면, 그 어떤 몬순도, 허리케인도, 태풍도 그리고 그와 유사한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의 순전함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23일

창세기 9장에 관한 몇 가지 단상

9:1 1853년 러시아의 한 농부가(이름은 키릴로프, Kirilov) 두 번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왕 앞에 출두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부인은 그에게 57명의 자녀를 낳아 주었습니다. (네 쌍둥이 4번, 세 쌍둥이 7번, 그리고 쌍둥이 2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1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쌍둥이 6번 세 쌍둥이 한번) 당시 총 72명이 다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9:2 도시 사람들은 동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야생동물들을 무서워합니다. 물론 날카로운 이, 턱, 송곳니 같은 것들을 지닌 동물이라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 각각 안에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을 놓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야수를 겁주거나 새끼가 위험하다고 믿게끔 하거나 일부러 화를 돋구거나 하면, 동물은 결국 본성의 일부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짐승들은

가능한 한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9:5, 6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회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고 살인자를 벌 주려는 것입니다. 논지의 핵심은 “사형과 같은 극형이 무슨 유익을 가져오는가”가 아니고 “살인자가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살 자격이 없다”입니다. 사람을 죽인 이유로 처형된 인간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9:13 현재의 사회주의자들이 무지개를 인종통합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실상 밝은 분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분리된 색깔이 혼합된 것입니다. 색들이 진정으로 통합되면 각각의 색깔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9:23 성경은 뒤를 향한다(backward)는 말을 인간이 타락한 원래의 위치나 상태로 돌아갈 때 사용합니다. 뒷걸음을 친다는 뜻으로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 쓰였습니다.

9:23 우리가 과거의 죄들을 다룰 때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2월 24일

노아와 아담

아담과 노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1. 두 사람 다 큰 홍수 후에 있었던 새로운 시작을 담당했습니다(창 1:1-3, 벧후 3:5-6).
2.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다스릴 통치자로 임명하셨습니다(창 1:28, 9:2).

3. 둘 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창 1:28, 9:1).
4. 홍수 후 각각 동산지기로 일했습니다(창 2:15, 9:20).
5. 둘 다 동산에서 생산된 무엇인가를 먹고 타락했습니다(창 3장, 9장).
6. 둘 다 타락의 결과 벌거벗은 채 발견되었습니다(창 3:7, 9:21).
7. 둘 다 다른 생명체로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창 3:21, 9:23).
8. 이들의 죄는 후손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롬 5:12, 창 9:24-25).
9. 둘 다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0. 세 자녀 중 하나가 약속의 씨를 낳았습니다.
11. 두 사람의 타락에 이어 이 세상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뒤따랐습니다(창 3:15, 창 9:21-27).

2월 25일

두 홍수 1 지구의 연대

지구의 나이에 관한 다섯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은 없다.
2.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먼 과거 언젠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3. 지구는 매우 젊고 인류도 매우 젊으며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4. 지구는 매우 오래 되었고 인류는 상대적으로 젊다(과학적 주장).
5. 지구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인류는 매우 젊고 이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

하셨습니다. 지구와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즉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않고 그저 계시다가 갑자기 6000여 년 전에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논리는 지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요 1:1-5).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골 1:17).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모든 보이는 것들 것 만드신바(벧후 3:10-12) 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 세워두신 계획과 목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시 139: 16).

창세기 처음 세 구절은 하늘(소문자 heaven)과 땅(소문자 earth) 그리고 빛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가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하늘	공간
땅	물질
빛	에너지 - 전자기 스펙트럼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진 단단한 공간이 하늘(대문자 Heaven)이라고 불리며 마른 땅이 인간과 짐승을 위한 거처로 형성되어 땅 (대문자 Earth)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하늘(heaven)과 땅(earth)을 하늘(Heaven)과 땅(Earth)과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는 정확합니다. 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낮(Day), 밤(Night), 저녁, 아침 그리고 첫째 날은 창

세기 1:5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와 1:2 사이에 간극(gap)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음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 원 창조는 물로 뒤덮혀 있었음(1:2).
-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혀 있었음(1:2).
-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단한 공간으로 형성하셨음(1:6).
-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공간을 일종의 구조물을 만들고자 나누셨음(1:7-9).
- 이 단단한 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Earth, 창 1:10)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1:14-19) 땅(Earth)의 거주자들도 만드셨음(1:20 이하).

2월 26일

두 홍수 2

베드로서신에 나오는 홍수

베드로후서 3:3-13까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절들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비웃는 자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된다”는 거짓 주장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책망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창세기 1:1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때”와 “지금” 사이 그 어느 순간엔가 만물의 질

서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5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보다 훨씬 더 큰 그 무엇을 잠기게 한 홍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한 때 홍수로 뒤덮혔던 하늘들과 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계적 규모로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하늘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홍수는 창세기 7장의 홍수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 경고는 어떤 세상이 그 첫 번째 홍수 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땅이 아니고 땅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삼상 2:8). 베드로후서는 그 홍수를 앞으로 있게 될 하늘들과 땅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전의 홍수가 멸망시켰던 것과 달리 불살라져서 원소가 해체될 것이고 뒤이어 새 하늘과 새 땅이(10-12절)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삼켜버린 베드로후서의 홍수는 다름 아닌 창세기 1:2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다면(창 1:2), 현 세상은 불로 멸망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월 27일

두 홍수 3

시간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욥기 22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강한 자(the mighty man)”가 나오는데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존귀한 자(the honorable man)”와 대결하였습니다(욥 22:8). 예수님께

서는 그 강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사탄, 마 12:26-29), 그 존귀한 자는 자기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 자신의 혼을 포기한 그 남자 아담이었습니다(딤후 2:14).

이 강한 자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넘치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욥 22:11). 그는 하늘과 별들과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욥 22:12-14). 이것을 사탄의 반역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13:12-14을 비교해 보십시오.

15-16절에는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진 사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이는 창세기 1:5 이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이라는 표현은 영어 “out of time”을 번역한 것으로 시간의 경계 밖에서,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역주) 그런데 16절에서 이 끊어짐은 홍수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창세기 7장이 아닌 창세기 1장의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일어났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 시간의 경계 밖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16절과 20절에서 사용된 “끊어졌다(cut down)”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14:12과 맞아떨어지므로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을 언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주에서 걸어 나와 정화된 지구(Earth)에서 다시 채우기(replenish)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22장의 홍수에서 남은 자들은 불이 소멸시켰습니다(20절).

욥기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시간 이전의 인종은 그들의 세상을 혼돈의 어둠으로 남겨놓은 홍수에 의해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전에 인류(오늘날 우리와 같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천사들은 “사람(인간)”과 같은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

두 홍수 4

사탄의 타락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탄의 타락을 독자들에게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바 이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은 한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장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 없이 살았던 한 피조물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타락했을 때 한 무리의 천사들을 대동했다는 사실 또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곳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 창세기 1장의 침묵이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절)

“빛이 있으라.”(첫째 날), 창조는 없고 허락만 있음(3절)

궁창의 형성(둘째 날), 창조는 없음(6절)

물들을 모음, 그리고 식물 생명을 나타나게 하심(셋째 날), 창조는 없음(9-12절)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됨(넷째 날, 14-18절)

바다 생명과 새들이 창조됨(다섯째 날, 20-22절)

육지 생명과 사람이 창조됨(여섯째 날, 24-27절)

이를 바탕으로(창세기 1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것) 아담 이

전 시대에 있었던 타락의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천사장, 정사 및 권능 등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1:3과 그 이후의 구절들은 이들의 창조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영적 존재들은 창세기 1장의 실제적인 6일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2월 29일

두 홍수 5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

창세기의 홍수 기록에 따르면 하늘의 창들을 통해 깊음의 샘들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창 7:11). 이에 대해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하에서 솟구친 물과 합쳐져서 땅덩어리를 잠기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11이 말씀하는 큰 깊음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세기 7:12은 이 두 가지 원천(하늘의 창들, 깊음의 샘들)으로부터 물들이 비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창세기 8:3은 홍수가 끝나자 그 물들은 땅(지구)을 떠나 되돌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3-4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홍수의 물들을 취하사 그것들은 단단한 형태로(firm-ament) 만드셨고 그 결과 그것은 아래에 있는 창조세계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키는 유리바다가 되었습니다(계 4:6, 15:2, 고전 13:12). 이 바다는 지금

은 단단한 얼음으로 되어 있으며(욥 38:30) 거울처럼 작용하여 위로는 모든 것이 빛이요 아래로는 모든 것이 어둠이 됩니다(욥 37:18, 26:7).

이로써 온 창조의 세계를 비추실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날은 보이지 않게 되고(계 21:23), 결국은 해와 별들을 만드셔야만 하신 것입니다(창 1:14-18).

“깊음”, 혹은 “큰 깊이”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양의 물 덩어리는 하나님의 왕좌 밑에 놓여있습니다(창 1:2, 49:25, 신 33:13). 이에 대해 잠언 8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놀랍다고 하겠습니다. 깊음의 샘들은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으며 단단하게 되었고(28절), 땅을 뒤덮지 말라는 칙령을 하나님께서 이 깊음에게 내리셨습니다(29절). 이 잠언 8장의 구절들은 창세기 1:2 이외에는 해당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은 시편 104편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들을 펼치셨고(2절), 이것들을 자신을 덮고 있던 빛을 가리기 위한 휘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들은 물들 속에 그 들보들을 얹으셨습니다(6절). 주의 꾸밈으심에 물들의 일부는 산들을 따라 오르고 땅의 골짜기들과 샘들에 이르러 그분께서 물이 흐르는 길로 정하신 곳들을 채워줍니다(7-11절). 또한 주님께서서는 이 물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9절).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왕좌 아래에는 물이 있다.
2. 이 물은 단단하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3. 이 물이 바로 지금 땅 위에 있는 물의 원천이다.
4. 이 물은 한때 땅을 뒤덮었다.
5.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원천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땅에 물을 공급하고자 보내진 이 물의 일부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노아의 날에 있었던 홍수는 이 큰 깊음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7.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지구를 덮은 두 번째 홍수가 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깊음을 통과하여 하늘로 가게 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사 51:10-11).

3월 1일

두 홍수 6 땅을 다시 채우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replenish, 다시 채우라로 번역 가능함)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에 있었으나 이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시대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가 텅 비게 되자 다시스의 배들과 시돈의 상인들이 그 장터를 다시 채우려고 왔었습니다(겔 27:25, 사 23:2).

사실 성경에서 “replenish”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한때 꽉 차 있었다가 텅 비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 넣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8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

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replenish”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담의 임무가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둘째로 현대 성서들이 “replenish”를 “fill(채우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체계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는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보면서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날에 있었던 사건과 노아의 날의 홍수를 비교함으로써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진리를 거부하려면 두 홍수에 대해 편협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plenish(다시 채우라)”의 분명한 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들에만 동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대체하고자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곳에 놓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과 매머드 그리고 앵무조개 화석의 두개골 조각 등이 수천 억 년 전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노아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죄 값을 치루고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하늘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월 2일

두 홍수 7

어두움

창세기 1:1과 1:3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찾아보십시오. 어둠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항상 심판, 혹은 심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12에서 아브라함은 큰 어두움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악한 파라오를 대적하여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출 10:22). 신명기 28:29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9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은 사망,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삼상 2:9) 욥기 10:21-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같으니이다.” 시편 143:3과 잠언 20:20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0, 8:22, 9:2, 29:18, 42:7, 60:2 등에서는 어둠이 대환난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언자들은 이 땅에 다가올 끔찍한 심판을 묘사할 때 어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8:12)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2:13)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5:30)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신약 서신서에서도 어둠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나 사탄의 권능,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관한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16:10-11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 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2의 어두움이 우주의 첫 번째 질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죄의 결과 혹은 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늘도 빛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가져온 무엇인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성경기록에는 온 땅이 어둠에 파묻힌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탄의 반역(창 1장)할 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였고(4복음서), 그리고 셋째는 심판이 대환난에 임할 때입니다(마 24장, 요엘 2장 등).

3월 3일

두 홍수 8

마지막 묵상

창세기 1:2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렘 4:23) 이 구절들을 읽고 창세기 1:2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어둠이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어져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렘 4:24-25)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홍수가 한번뿐일 경우 창세기 1:20 이전 혹은 이후의 사건일 것이고 만약 홍수가 두 번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렘 4:26-27) 여기서 우리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도시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렘 4:29) 이 심판은 땅과 그 거주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들마저 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 하늘들에서 그분의 진노를 야기시킨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 진술의 일부가 거짓이 되고 맙니다. 환난의 끝 무렵, 즉 주님의 재림 때 “아무 사람도 없다(there was no man)”는 말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양과 염소 민족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곱의 고난 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없던 때는 단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므로 도시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입니다. 이 때는 어떤 인종이 있었으나 멸망 당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이 아담 이전의 인종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도시, 기념비, 그리고 문명들 중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놀라운 유적들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와 연관된 구절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곳을 다시 채워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그는 다산(열매를 많이 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

기 1:28 말씀과 일치함에 주목할 것.-역주)

합당치 않은 과학과 합당치 않은 성경 해석 사이에는 많은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과학과 건전한 성경의 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3월 4일

상상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창 8:21)

성경은 상상이란 사악한 자의 교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시 10:2).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홍수 이전은 물론 홍수 이후에도 선포된 바 있습니다(창 6:5, 8:21).

인간의 상상력이 낸 것은 온갖 퇴폐적 행위일 뿐임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한 받지 않은 생각의 부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시 2:1), (2) 주를 향한 악한 행위(나 1:11), (3)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악한 행위(애 3:60-61), (4) 동료 인간을 향해 해악을 끼침(시 62:3), (5) 자기 형제들에게 해악을 끼침(스 7:10)이며 상상력은 더 나아가 속임수(시 38:12)와 전쟁(시 140:2)까지도 일으킵니다.

상상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며(신 31:21) 화평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신 29: 19). 상상은 인간을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고(렘 13:10, 특히 바알에게로 이끌), 온갖 종류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롬 1:21).

상상은 거짓 대언자의 거짓대언의 원천이요(렘 23:17), 바벨탑 프로젝트 역

시 상상의 결과였습니다(창 11:6).

하나님께서서는 거짓 상상들에 대해 경고 하시건만(스 8:17)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무시합니다(시 21:11).

주님께서서는 마음의 상상들을 알고 계시며(대상 28:9)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을 따르는 모든 자를 흠어버리실 것입니다(눅 1:51). 신약 성도들에게도 상상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고후 10:5).

3월 5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창 9:3)**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히피문화와 샤머니즘 및 뉴에이지 사상과 성경의 경계선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고 진화론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는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강식품운동가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건강식품” 대해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화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첫 번째 주장: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동산에서 (채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채식을 하기를 원하신다”.

답변: 문제는 채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마 15:11).

(2) 두 번째 주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서 푸른색 야채를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다.”

답변: 그렇다면 노아 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뭔가를 먹어도 된다고 지시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들 모두 병들어 죽기를 바라셨다는 뜻입니까? 방주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 분께서 붉은색 고기와 돼지 고기를 먹여 인간을 죽게 하셨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단입니다.

(3) 세 번째 주장: “고기를 먹으면 더러운 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아시겠지만 제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답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움직이는 모든 것(창세기 9:3에 따르면 음식(고기)의 정의는 모든 움직이는 것입니다.)을 먹지 말도록 금하면 미혹하는 영의 지시를 따라 사탄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4) 네 번째 주장: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의 식단을 따라야 한다.”

답변: 레위기의 율법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동물과 깨끗하지 못한 동물의 구분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벌써 있었고 노아는

홍수 이후 이 모든 것을 다 먹도록 명 받았습니다. 이 위생법은 (식사법 포함)은 히브리인들을 성별하고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5장은 이런 규례가 주님의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거듭난 지체도 속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5) 다섯 번째 주장: “야채와 채식을 하면 체중이 줄 것이다.”

답변: 야채와 채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찹니다. 과체중은 너무 많이 먹고 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비난하지 말고 음식의 양을 문제 삼으십시오.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은 뷔페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다이어트 콜라를 시켜먹는 사람입니다.

(6) 여섯 번째 주장: “좋소, 어쨌거나 반드시 채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단은 건강에 더 좋고 장수를 보장한다고 믿소.”

답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입장이 점성가의 입장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연구를 거부했으니 그것은 그 연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뉴에이지 사상이 잘못 났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뉴에이지 요리책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3월 6일

노아의 타락

다음 사실은 분명합니다.

- (1)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9:20).
- (2)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9:21).
- (3) 그것은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9:21).
- (4) 술 취한 결과 그는 벌거벗었습니다(9:21).
- (5) 그의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9:22).
- (6) 이 사건은 그의 손자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9:25).

이 사건들의 정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세한 상황에 관해 아무런 추측을 할 필요 없이 포도주나 독주를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술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술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입술에 중독성 음료를 댄 첫 번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치명적인 음료를 단 한 방울도 손대지 마십시오.

다음 사항은 사람들이 계속 선포하고 있으나 실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 (1) 홍수 후 기후가 변했으며 노아는 포도들이 발효한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
- (2) 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일종의 동성애를 행했다.
- (3) 이 때문에 함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 중 첫 번째 것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둘째 것은 말씀에 의해 반

박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가 보고(saw), 고하매(told) 라고 만 합니다(9:22).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주는 가나안에게만 해당되는바 이는 함이 벌써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필자가 쓴 <성경과 술>과 <성경과 인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함의 가족(창 10:6-20)

함의 가족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님롯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창세기에는 강한자(mighty)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는데 그 중 세 번이 님롯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용된 이래로 이제껏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님롯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홍수 이전의 반역의 영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님롯에 관한 책들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이 가장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님롯은 바빌론의 옛 이름인 바벨의 창건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경 곳곳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이 바빌론은 향후 경건치 않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예표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지은 죄는 바빌론제 옷 때

문이었습니다(수 7:21).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재앙은 이런 저런 형태로 다 바빌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빌론은 불경건한 도시이며 제국이고 신약에서는 불경건한 체계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바빌론이 언급된 모든 성경구절들을 다 찾아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빌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님롯은 또한 시날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Shinar) 땅은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이 놓이게 될 장소입니다. 필자의 <스가랴 주석>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가들이 의도하는 바처럼 모든 것이 무 자르듯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님롯이 주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296번 쓰였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혹은 “하나님의 관찰 하에” 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쩌면 미가 7:2에 나오는 자들 같은 강력한 사냥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자꾸 추측을 하면 상황이 악화 될 수도 있으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족의 후손이 아프리카에 퍼졌다는 주장은 시편 105, 106편에서 이집트는 함의 땅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족의 거처를 아프리카 대륙에만 한정 하는 것은 오류가 될 것입니다. 시날(창 10:10)은 현대의 이라크 지역이며 니느웨는 중동의 중심입니다(10:11). 나중에는 앗시리아가 님롯의 땅이라고(미 5:6) 나오기도 합니다. 극동의 거짓 신 중 하나인 부처는 함족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0:6-20의 핵심 요점은 가나안과 그의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15-19).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

는 자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이시(Sayce)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를 가나안이 주목 받는 시대로 데려갑니다. 때는 이집트의 제 18, 19대 왕조 때입니다. 가나안은 이때에만 주목 받은 종족이었으니까요.”

창세기 9:25, 1805년 토마스 제퍼슨이 미 상원에서 행한 연설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버림받은 그 아들(함족인 흑인을 지칭함: 역주)은 오직 노예제도라는 입구를 통해 문명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한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주장했던 자였으니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월 8일

창세기 10장에 관한 상고

1절 함. 미국의 일부 지역에는 흑인을 반대하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있는바 이들은 성경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전 10:30)라는 세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접하면 함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에 대한 증오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치고는 어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05-106편에는 이집트가 함의 땅이라고 하는바 이집트는 예레미야서 46:1-2에서 이방인이라고 불립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 누구도 홍수 이전에 이미 자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습니다.

10절 에서와 님롯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들입니다.

16절 여부스 족속. 이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여부스를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요새는 나중에 시온으로 알려졌고 그 언덕은 모리야로 불렸습니다(삼하 5:6-9).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헷 족속의 관계는 에스겔서 16:3, 4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세워진 사실은 사탄이 먼저 선수를 쳐서 약속의 땅과 그 수도를 장악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25절 벨렉. 이 이름의 의미는 지진이며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들, 민족들, 그리고 언어들로 나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5, 20, 32절에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땅이라고 불리는(창 1장) 한 장소에 있던 마른 땅이 실제로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매혹적인 진리들>을 보십시오.)

3월 9일

바벨탑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돌 대신 인간의 벽돌을 사용합니다(창 11:3-4). 구속 받은 사람들은 참된 교회로 묶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회반죽을 사용하는 반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라는 들러붙는 진흙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인간사회는 거짓종교, 혹은 공통된 공격적 성향 혹은 더러운 생각들을 쏟아내는 왁자지껄한 대화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공통된 믿음과 상호 사랑에 의해 이

웃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목적들을 이루고자 세상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회 반죽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진흙을 사용합니까?

앞서 가인과 님롯의 경우(4:17, 10:11) 도시건설은 사악한 자들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생활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삶이 아닙니다(사 5:8).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탑이(4절)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구라트라고 알려진 성전 탑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늘에까지” 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거나(신 1:28처럼), 혹은 그 탑의 꼭대기에 둥근 지붕의 돔을 만들어 곳에 십이궁도를 그려 놓고 우상숭배를 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설교 목적으로 그리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역시 성경 본문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월10일

바벨과 사도행전

창세기 11장과 교회 역사에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두 경우 모두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1절, 행 4:32-33).
2. 두 경우 모두 야망이 침투해서 그 결과 사람들은 영적 수단이 아닌 세상

적 수단에 호소합니다.

3. 바벨탑 계획과 교회 역사 모두 언어의 혼란으로 종결됩니다.
4.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언어는 심판에 의해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5.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심판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은혜로 번복되었습니다.
6. 미래 어느 날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로 통일 될 것입니다(계 7:9, 습 3:9).

3월 11일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창 11:6)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인류 전체와 개인에게도 해로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인간은 이미 과거에 도시문명을 세웠으나 이 모든 것이 홍수로 파멸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우리는 옛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은 잊은 채 하늘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 의해 야기된 멸망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형벌은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열매의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동산에서 획득한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지혜와 합쳐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사

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식과 힘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는 결국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제한을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행로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올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같은 것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과 이들을 망치게 될 죄 사이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3:13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그러나 사례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창 11:30)

사례는 죽은 혼에 생명을 주고 그 혼을 죄의 공허함으로부터 일으켜 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회심하지 않은 혼의 영적 불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혼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사라는 본능적으로 늘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임은 밤낮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다른 여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을 하게 될 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불임 때문에 하갈에 대해 질투하게 되었고(16:5, 6),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21:9). 때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쓴 뿌리를 갖거나 원한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만과 공허를 인식하고 있는 죄인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대해 쓰라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는 바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보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자신도 갖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을 수도 있는 바 이것은 속으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동정심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망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3월 13일

창세기 11장에 관한 메모

1절에 나오는 언어(language)와 말(speech)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전도 별 도움이 안될 듯합니다. 시편 19:3에서도 이 두 단어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어(language)는 포르투갈과 브라질에서 다르게 말합니다(spoken). 영어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언어(language)를 넘어 그 언어가 말하여지는(spoken) 방식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8절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주께서(단수, 6절) 이르시되 우리가(복수, 7절) 내려 가서…이처럼 주께서(단수, 8절)…널리 흠으셨으므로” 이를 통해 한 하나님께서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언어만 나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도 나누셨습니다. 이는 벨렉이 살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10:25, 11:18-19). 과학은 대륙이동설과 지각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4000년이 지난 후 성경을 겨우 따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저자가 쓴 <매혹적인 진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의 위치에 관해서는 저자의 책 <스가라서 주석>을 보십시오.

창세기 11:28에 보니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최초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또 다른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이민을 떠나기 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3월 14일

창세기의 주제와 기록 목적

창세기 전체를 읽고 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첫 열 한 장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 읽고 나면 몇 가지 사항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 아담의 노년, 신비의 인물 넘롯, 홍수 후의 인류의 재건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12-50장까지는 실제적으로 단 네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우리는 매우 만족합니다.

첫 11장은 인류 전체의 일을 다루고 있는 반면 나머지 39장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의 특정한 기록 목적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 한 장은 사실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기 위한 도입에 불과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긴 기간은 짧게 언급되어 있는 반면, 짧은 기간의 사건이 깊게 다루어집니다.

4복음서 총 89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단지 4장만이 그분의 인생 첫 30년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3년 반에 대해서는 무려 85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무려 27장이 그분이 배반당하시고 고통당하신 한 주간에 할애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중심인물입니다. 창세기 12:1부터 25:1까지가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 또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 뒤로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앞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3월 15일

창세기의 주제(계속)

성경은 첫 열한 장에서 인류 전체를 집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5, 20, 31, 32절 등을 주의 깊게 보면 가족들, 언어들, 땅들, 민족들 등과 같은 단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2:1-2을 읽어보십시오. 너의, 너를, 네가,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장에서부터 “민족들”과 “땅들”로부터 한 개인과 한 지역(땅)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창세기 3-11장에 기록된 제한받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것은 이 땅의 다른 가족들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불행한 일이지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어야만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창세기 12:3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이방인, 이교도, 민족들, 섬들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와 연관되어 취급될 것이다. 이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친구가 되면 복을 받고 이들이 선민의 대적이 될 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인류역사에 있어 세 번에 걸쳐 있게 되는 전환점 중 첫 번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2장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대환난의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의 4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히브리 민족 이전 시대(창 1-11장)
2. 히브리 민족시대(창 12-행12장)
3. 이스라엘이 버림받음(교회시대)
4. 이스라엘의 회복(재림과 그 이후 시대)

3월 16일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2장에서 인류는 세 번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노아의 후손 또한 실패했으며 이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인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이번에는 한 개인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복을 가져오게 될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될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음의 목적을 갖고 세우셨습니다.

1. 인류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사 44:8)
2.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롬 3:2)
3. 메시아와 구원자를 예비하는 그릇이 될 것(사 53)
4.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롬 11:8-12)

요나서(저자의 주석을 참조할 것)와 소선지서 그리고 4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위의 4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철저히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선교사와 빛의 전달자로서 사명은 내던지고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는 인종차별 민족이 되어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복을 알리고 전해 주기를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자랑하는 대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임을 내세웠습니다(요 8장). 예수님께서 이 방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자, 그들은 무리를 지어 회당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눅 4:20-30).

심지어 부활 후에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을 정도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보고하자 회의적 반응과(행 11장) 논쟁(행 15장)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 유대 민족은 언젠가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할 것입니다(롬 11장).

3월 17일

창세기 12장에 관한 메모

“네 아버지 집에서”(1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혹은 그의 조상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수 24:2, 15). 홍수가 있을 후 400년이 흘렀고 셈의 후손들은 그동안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어찌면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을지도 모릅니다(사 51:1, 2).

12:2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복

을 주도록 하십니다.

12:3 헨리 포드와 아돌프 히틀러는 각자 서로의 사진을 각자의 책상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포드의 반 유대적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포드는 나치에게 많은 기부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미국이 공산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대한 반격의 일환이었습니다.

12: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는 세 가지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첫째, 한 씨에 대한 약속, 둘째, 한 땅에 대한 약속, 셋째, 온 세상을 복 주신다는 약속.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8번의 기록이 들어 있는바 매번 하나님께서는 이들 약속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씨에 관한 약속: 12:2, 13:16, 15:5, 13, 14, 17:2-6, 15-26, 22:17

땅에 관한 약속: 12:7, 13:14-15, 17, 15:18-21, 17:8, 22:17

복에 관한 약속: 12:3, 18:18, 22:18

3월 18일

“선민”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민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만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경우에만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 까닭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의 역사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매혹적인 진리들>을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이 성경 무대의 주역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원

칙들을 수행하는 책무를 위탁 받았기 때문입니다(신 7:9, 롬 9:1-6).

유대민족의 임무는 4가지였습니다.

1. 전 세계적인 우상숭배 상황에서 한 분 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신 6:4, 사 43:10).

2. 이 한 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신 33:26-29, 대상 17:20-21, 시 102:15).

3.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존하는 것(롬 3:1-2).

4.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롬 9:4).

3월 19일

히브리역사를 올바르게 나누어 보자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는 일곱 시기로 나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들을 일시적으로 제쳐놓은 시기가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출애굽까지

2. 출애굽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3.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국의 수립까지

4. 왕국의 수립부터 포로(바빌론)시기까지

5. 포로시기

6. 포로시기가 끝난 회복 때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교회시대

7. 회복, 환난, 그리고 왕국

이 간단한 개요만 잘 이해해도 교회시대 2000년 동안 교회를 더럽힌 이단

들과 거짓 교리들의 95%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오해함으로 발생하는 오류들은 저자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월 20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창세기 12:1-4에서 형성되어 13:14-17, 15:1-7, 17:1-8에서 확인된바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 언약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 (1) 육체적 후손, 히브리 민족(창 13:16, 요 8:37)
- (2) 이스마엘을 통해 이룩된 아랍민족들(창 17:18-20)
- (3)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영적인 후손(요 8:39, 롬 4:6, 9:7, 갈 3:6, 29)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 언약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 (1) 물질적으로(창 13:14, 15:18, 24:34)
- (2) 영적으로(창 15:6, 요 8:56)

3.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 언약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 (1)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음

(2)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채택됨

4. 네가 복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3:13-14을 보십시오.

5.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리라.

6.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이 두 사항은 다음과 같이 놀랍도록 성취되었습니다.

(1) 이스라엘이 흩어진 역사 속에서

(2) 미래에 있을 환난시대와 천년왕국시대에서(신 30:7, 사 14:1-2, 욥 3:1-8, 미 5:5-7, 학 2:22, 스 14:1-3, 마 24:40-45)

7.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은 창세기 3:15의 말씀의 범위를 좁혀 줍니다(갈 3:16, 요 8:56-58).

선물로 받을 약속의 땅은 세 번에 걸친 흩어짐과 회복에 관한 예언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창 15:13-16, 렘 25:11-12, 신 28:62-65, 30:1-3).

이들 중 두 번은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현재 세 번째 흩어진 상태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회복될 것입니다(신 30:3, 렘 23:5-8, 겔 37:21-25, 눅 1:30-33, 행 15:14-17).

3월 21일

아브라함을 부르심

1. 부르심

창세기 12:1에서 “전에 이르시되(had said)” 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창세기 11:31-32과 사도행전 7:2-4에 몇 가지 사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1)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수 24:2).
- (2) 분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후 6:17).
- (3) 데라는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연기하면 할수록 실행은 더 어려워
집니다.

2. 반응

- (1) 믿음으로(4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2) 모든 것을(5절): 완전한 헌신
- (3)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음(6절): 마귀는 대적하고자 준비를 갖추
고 있음.

3. 경배

- (1) 하란이나 우르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 (2) 경배하기 전에 먼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4. 여정(8-9절)

- (1)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히 11:13, 뱌전 2:11).

- (2)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고후 5:1-8).
- (3) 벧엘(하나님의 집)과 아이(폐허 더미) 사이에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 (4) 또 다른 제단(8절)

3월 22일

궁지에 몰린 사람(창 12, 13장)

아이(폐허 더미)와 벧엘(하나님의 집) 사이에 장막을 친 아브라함은 아직 확고히 위치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1. 기근에 몰린 아브라함(12:9)
 - (1) 이집트는 잘못된 길입니다.
 - (2) 순종하는 도중 기근이 찾아옴
 - (3) 믿음 후에 찾아오는 기근
 - (4) 제단에서 맞이하는 기근
 - (5) 징계와 시험을 위해 주어지는 기근(창 26:1, 42:5, 룖 1:1, 삼하 24:13)
2. 실망으로 내몰린 아브라함
 - (1) 믿음에서 벗어나자 욕신이 자리잡음(12:11-12)
 - (2) 거짓말을 함. 이로 인해 가족을 위협에 처하게 함(13절)
 - (3)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됨(14-16절)
3. 회개로 내몰린 아브라함

- (1)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을 예방함(딤후 2:13)
- (2) 하나님의 은혜가 파라오로 하여금 사례를 취하지 못하게 막음
- (3) 뱀엘로 돌아옴(13:3)
- (4) 제단으로 돌아옴(13:4)

4. 이 사건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

- (1) 롯이 세상의 맛을 봄(13:1)
- (2) 부(재산)가 텅이 됨(13:2, 5-6)
- (3) 하갈이 집안에 들어옴(16:1-3)

3월 23일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하는 예표적 가르침

사라는 갈라디아서 4:22에 따르면 은혜의 언약의 예표입니다.

물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은혜의 언약과 세상, 이 두 가지를 섞는다는 것은 끔찍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은혜 안에 아무런 뭍이 없음을 배우게 될 때, 은혜를 떠나 보낼 것입니다(19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증을 잃었고 세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타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피하거나 호의를 얻어보려고 자신과 은혜와의 관계를 숨기려

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가장 고귀한 관계를 저버렸음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타협을 경멸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분리(성별)의 간증뿐입니다.

3월 24일

두 여정

하나님께서서는 두번에 걸쳐 아브라함을 어떤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 모두 그는 출발할 당시조차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저 믿음을 행사해야 했고 주님께서 그의 안내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창 22:2)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를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의 하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줍니다. 이 두 번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동일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부와 축복의 기대를 불러온 반면, 두 번째 여정은 슬픔과 상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믿는 자를 옛 경험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 얻은 옛 교훈을 더 강도 높게 체험토록 하시는 바 이는 우리의 성장된 믿음에 더 잘 어울리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의 경우 모두 아브라함은 주님의 복을 구하고자 가족과 이별을 해야 했는데 “네가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두 번째 이별이 훨씬 더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험의 무게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맞게 증강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여정 모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런 방향도 모르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채 가능성 높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바로 이것이 두 번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재하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5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창 12:10)

약속의 땅의 기근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입니다.

가나안은 그 땅의 비옥함에 관한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신명기 11:11-12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샘물도, 호수도 강도, 지속적인 강우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주께서 복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메마른 광야에 지나지 않

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11:10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이집트에서는 관개를 통해 농업용수를 통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스라엘 북부로부터 최남단 국경 부분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황폐함에 크게 놀랐었습니다. 땅은 딱딱하고 바위투성이었고 나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을 자신의 땅으로 택하신 것 말고는 전혀 관심을 끌만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과거 젓과 꿀이 흘렀고 천년 왕국 때에는 꽃이 피어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주님의 약속이니), 우리는 여호와와의 지혜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을 주신 분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부르신 그곳에 그대로 머무시겠습니까? 기근이 덮칠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그분의 뜻 안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십니까?

3월 26일

롯의 분리

1. 부는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 (1)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부”가 다툼을 가져왔습니다(5-6절).
- (2) 세상이 보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7절).
- (3) 형제간에 화평하자고 청했습니다(8절).
- (4) 겸손히 타협은 했지만 그래도 분리는 발생하고 맙니다(9절).

2. 은밀한 욕심

- (1) 롯이 기꺼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10절).
- (2) 장로에게 복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벧전 5:5, 히 13:17, 엡 5:22, 딤후 5:17).
- (3) 보는 것으로 택했습니다(10절a, 믿음으로가 아니었음-역주).
- (4) 그는 이집트와 같은 풍요를 보았으나 그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약 1:14-15, 딤후 6:5-11).
- (5) 그는 이집트에서 나왔으나 이집트는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10절).

3. 안전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갔음

- (1) 그 길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12절).
- (2)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13절).
- (3) 그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14:12).

4. 서서히 떠내려감

- (1)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약 4:4).
- (2)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요일 2:15-17).
- (3) 세상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롬 12:2).
- (4)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고전 11:32).

3월 27일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소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해안으로부터 떠밀려 갑니다. 롯이 소돔 방향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가 결국은 술이 취해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말 것인지를 롯에게 물어보았더라면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해 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너무도 적은 사람들만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행적을 허우적대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과 걷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실패하여 이집트로 갔을 때 롯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세상적이 될 수 있다면 자신도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

라시지 그 일에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나 집사나 교회 지체가 죄에 빠져 어떤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거나 올바른 길을 포기할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롯의 실패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롯의 실패는 롯 자신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이 약한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이기심은 많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그 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본으로 삼아 기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들 밑에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그리스도인이 세상 길로 가버렸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과 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 참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3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 롯의 구출(창 14장)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마 24:6).

이 시대는 정욕의 시대입니다(약 4:1-4).

롯의 보화는 잘못된 곳에 있었습니다(마 6:19-21, 약 5:1-6, 마 13:22-23, 딤후 6:9).

이 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유대인 남은 자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롯은 대환난기간중의 유대인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궁지에 처했음을 보게 됩니다(13절).

비록 롯이 잘못되었으나 그는 사랑하는 친족입니다(14절).

아브라함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롯을 구출코자 합니다(14절).

아브라함은 밤에 왔습니다. 이로써 환난 끝에 대한 성경적 예표가 성취되었습니다(14절).

아브라함은 용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15절, 잠 28:1).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16절).

모든 것은 회복되었고 “되찾게 되었습니다.”(16절)

롯과 동맹을 맺었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경배하러 옵니다(17절).

왕국의 음식을 주목해 보십시오(18절).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1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20절).

3월 29일

창세기 14장의 예표는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은 다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 그는 자신이 구출한 자들의 친족이었습니다.
2. 그는 자신의 형제의 해방을 책임졌습니다.
3. 그는 악의 세력들에게서 노획물을 획득했습니다.
4. 그의 종들은 자신의 집에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5. 구출할 가치는 없었으나 사랑했기에 구출했습니다.

6. 그는 신속히 구출에 임했습니다.
7. 그는 자신이 치를 대가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8. 그는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9. 그는 세속적 이득을 거부했습니다.
10. 그는 구출된 자(들)로부터 아무런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11.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3월 30일

멜기세덱과 예수님(창 14:17-20, 히 6:20-28)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추측이 있습니다. 몇몇 논지는 건전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그저 근거 없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멜기세덱은 정확히 성경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그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두 사람 다 이상하고, 기적적인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은 멜기세덱의 족보기록과 관련된 것입니다.
2. 두 사람 다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들 칭호는 다음 성경 기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습니다(마 21:4-5, 시 2:8, 단 7:13-14, 마 2:2, 요 18:37, 19:14-15, 계 17:14, 19:16).
3. 두 사람 다 제사장이었습니다(시 110:4).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

서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4. 두 사람 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3월 31일

모든 것의 십분의 일(창 14:20)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이 말씀을 보면 십일조는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 십일조는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3.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수백 번은 읽었을 것임) 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문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대명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십 분의 일을 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22-24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롯의 제물은 롯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16절). 그렇다면 승리의 모든 노획물은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멜기세덱은 그 중 십분의 일을 돌려 준 셈입니다.

4. 아!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도록 놔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7:1-2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샬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만큼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 자신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설교자들이 십일조에 대해 성도들을 몰아세우는 만큼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설교 시간을 할애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4월 1일

멜기세덱(창 14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로서 등장하시는 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들 용어들은 의미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며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할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는 멜기세덱이 아닌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 민족들을 정복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15절).
2. 자신의 친족들을 구출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16절).
3. 평화를 수립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18절).
4. 살아남은 왕들을 자신 앞으로 데려 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17, 21절).
5. 민족들로부터 취한 선물들을 자기 종들에게 주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23-24절, 마 25장).
6. 제사장과 함께 왕국음식을 먹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하실 것입니다(18절, 막 14:25, 계 1:5).

이와 같은 문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된 천년왕국 때의 칭호와 진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대로 의가 먼저 오고 나서 화평이 옵니다.

4월 2일

창세기 14장에 대한 묵상

13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골짜기”(17절) 이곳은 압살롬이 자신의 기둥을 세운 곳입니다(삼하 18:18). 이 이름은 이 구절이 다윗 시대로부터만 유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

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나안의 왕과 연관된 매우 오래된 이름이었을 지 모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20절) “bless” 라는 말이 사람에게 대해 쓰이면 “번영을 이루도록 해 주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bless는 사람에는 “복을 준다” 로, 하나님께는 “찬송 한다”로 번역되었습니다.-역주) 아마 이 의미들 속에는 기쁨을 준다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존중하고 친근감을 보일 때 행복해 집니다(잠 8:31).

18-20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에 느닷없이 등장한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는 한 분 참 하나님께 순결한 충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시대에 살았던 셈과 연관된 인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 버리던 시절 주님의 실재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는 구절에서는 네 번이나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구약성경 속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옵니다. 이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는 모든 지역 신들 위에 계신 지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에 대칭되는 칭호가 나오는데 그것은 “the highest(가장 높으신 이, 눅 1:32, 35)”와 “the most high God(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행 16:17)” 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제사장 직분의 핵심사항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히 5:1).

4월 3일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대조를 목격하는지요! 베드로 후서 2:7-8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롯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믿음이 없는 자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제공하신 내적인 의이며 인간이 목격할 수 있는 외적인 의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롯이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야말로 롯의 두드러진 성품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소돔을 향해 펼쳐진 물이 잘 대어진 평야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헌신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로 세상과 하늘나라 둘 다를 다 최상으로 누리고자 애쓰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롯은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최대한 차지하고자 애쓰는 동시에 하나님과도 잘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가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에게 일이 그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후속 사건들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간증과 도덕과 가족과 아내를 잃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걷는 자로서, 용기 있게 경배의 제단에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헌신된 신자의 예표이며 당장은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을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사람임

니다.

롯과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을 눈 앞에 두고도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닌 롯의 파괴적 코스를 계속해서 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도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4월 4일

아브라함과 두 왕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살렘 왕과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살렘 왕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소돔 왕에 대해서는 그와 별개로 독립해 있음을 확실히 합니다.

살렘 왕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열등하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반면 소돔 왕에 대해서는 그와 동등하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은 겸손히 대하는 반면 소돔 왕에게는 위엄을 갖추고 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친절과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21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혼과 맞바꾸자며 예수님께 왕국을 제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얻을 기회를 갖기 위해 좋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며 성경적 원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부가 곧 영성으로 간주되고 물질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혼동되는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점점 더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딤후 6:5)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를 베푸시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부를 얻고자 주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4월 5일

훈련, 위기를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창 14:14)

젊음의 열정과 자신감이 노년의 지혜와 절제와 충돌할 때 그 갈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까.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정복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갈망으로만 무장한 청년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열정이 없는 듯이 보이는 나이든 사람이 자신에게는 위협이 되고 억압이 된다고 느낍니다. 이에 곧이어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쓴 뿌리가 생기고 수군거림이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부서지고 지친 나이든 사람이 한때 얻고자 강력하게 싸웠던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보면 청년의 불평은 늘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의 열정은 노인에게는 책망이요 한때 그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 불편한 회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경우 청년은 바람직한 터전을 갖게 됩니다.

1. 청년들이 훈련과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2. 이들의 준비된 마음에 필요한 균형을 제공하는 겸손한 영이 있을 때
3. 전쟁의 상흔을 잊고 매우 신중한 노인들이 청년들이 가고자 갈망하는 그곳에 이미 가본 적이 있다는 사실에 존경심과 찬사를 보낼 때

이번에는 노인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1. 청년을 가르치는 것을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찬 명예로 여길 것
2. 과거의 성공에 대해 찬사를 받을 생각 대신에 그와 같은 성공을 계속하기 위해 그 모든 수단을 제공해 줄 것

아브라함은 청년들을 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많은 고생을 견뎌했습니다. 전쟁할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준비됨이 그들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월 6일

신성한 계시(창 15: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홉 번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나시는데 그중 이번이 다섯 번째로 딱 중간에 해당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표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출 9:20, 삼상 3:1 참조).

이번 계시는 꿈이 아니라 환상의 형태로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5절). 이번 계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음이 분명함

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의 영웅들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죽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떠나가버리는 순간들이 성경에는 자주 목격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으나 폭풍이 불던 때는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막 4 장).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담대히 멸하였으며, 다윗은 그 거인을 죽였고, 모세는 파라오를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이끌어 내었으나, 이들 모두는 후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 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망했습니다(고후 1:8).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지요? 이 교훈들은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중에서도 이들 교훈들은 비록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15:19-20 이곳에 보니 열 민족이 한 왕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계 17:12 참조-역주).

4월 7일

두려움의 원인

승리 후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지를 놓고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긴장이 풀어져 생기는 결과인 것은 확실합니다. 물질적인 세력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와 싸우는 영적 세력이 그들의 신체적 동맹이 다 정복된 한참 후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는 양심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명분이 옳기 때문에 혹은 적을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전투에 임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악하고 척결되어야 마땅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쳐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우리는 대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싸움이 끝이 납니다. 부상자는 보살핌을 받고 죽은 자는 묻히고 우리 양심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으며 죄의 삶은 우리들 각자에 기인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곧이어 통렬한 두려움이 밀려와 나 역시 그런 패배를 당해야 마땅한 자요 그 언젠가는 나도 피정복자들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전투 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특징이나 전투 후의 두려움은 건전함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5:1은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종들에게 자주 전달하는 메시지로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무려 84번이나 나옵니다. 말라기 이후에 4세기간 지속되어 오던 침묵은 누가복음 1:13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에 의해 끝이 나고 성육신의 선포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눅 1:30).

4월 8일

희생에 관한 상고

첫째, 희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를 구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바쳐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바쳐 집니다. 희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지 은혜를 얻고자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엄숙함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해…나누고”라는 표현은(창 15:10) 레위기 1:6과 짝을 이룹니다. 동물들을 나눈 후 아브라함은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고 새들은 나누지 않고 마주보도록 하여 가운데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두 계약 당사자가 그 통로를 함께 통과함으로써 양측이 그 언약에 합의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렘 34:18이하).

이 의식은 희생에 의한 언약체결이라는 원칙을 보여줍니다(시 105편). 피의 언약은 엄숙한 합의를 비준하는 옛 시대의 잘 알려진 방법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셨으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두 당사자간의 동등한 조건 하에 체결되는 쌍방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외적인 행위로 확신시키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와 유사한 모든 인간들의 합의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히 4:17).

이 언약에서 인간의 역할은 단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브

라함은 받습니다. 시편 116:12-13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분께 무엇을 보답(render) 하리요? 내가…들고(take)”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 믿는 자의 반응은 4가지 측면을 갖게 됩니다.

- (1) 깊이 감사하는 느낌
- (2) 전심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함
- (3) 마음으로 감사를 표함
- (4) 충성된 순종의 삶

4월 9일

장기적 안목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약속된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을, 주께서 내다보고 계신 그 추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 바 이는 이 약속들의 성취가 아브라함 당대와 그의 자식의 때에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커다란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15절) 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성취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신 채 한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시에 이어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의 수평선도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충분히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별한 확신을 얻었습니다(18-2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정확한 경계를 계시해 주십니다. 언급된 두 강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땅의 완전한 경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임을 보여줍니다(왕상 4:21, 대하 9:26).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직도 그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1) 그의 부르심과 순종
- (2) 아브라함과 약속과의 관계에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갈등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 (1) 아브람은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히 11:1).
- (2)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롬 10:17).

2. 믿음의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 (1) 전가된 의로움(6절)
- (2) 진전된 계시(7-21절)

3.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롬 4:1-13)

- (1)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함(2절)
- (2) 믿음이 의와 동등함(3절)
- (3) 만약 우리가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빌리신 셈이 됨(4절)
- (4) 우리는 경건치 않지만,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5절)
- (5)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됨(9-10절)
- (6)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님. 왜냐하면 이 일은 율법 이전에 있었음(13절)

4. 다윗도 동일한 진리를 보았음(6-8절, 시 32:1-5)

요한복음 1:12, 고린도후서 5:21, 그리고 고린도전서 1:30을 볼 것.

4월 11일

첫 번째 언급

이 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의 말씀이 임하였음(1절)
- 2. 환상(1절)
- 3. 두려워하지 말라(1절)
- 4. 네 방패(1절)
- 5. 큰 보상(1절)
- 6. 상속자(4절)

7. 믿으니(6절)

8. 의(6절)

9. 상속하게(7절)

성경에 뒤이어 나오는 동일한 단어들과 문장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심
2.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인간에게 보이도록 해 주심
3. 엄청난 상황이나 계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리는 지침
4. 자신의 백성의 보호자로서의 하나님
5.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심
6.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생에 기초해 상속을 받는 자
7. 축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요구사항인 믿음
8.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인정되는 공적인 의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전가되고 있음
9. 다른 사람의 선함에 근거해서 획득함

7절 아브라함이 갔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것임.

인간이 믿음의 행보를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심.

4월 12일

창세기 15장 묵상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8절)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에 대한 약속에 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누가복음 1:18에서 스가랴가 같은 이유로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요일 5:13).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딤후 1:2).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거나 자신의 약속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의 확신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인간들이 확신하기를 바라십니다.

9-12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후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수리였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희생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제대로 된 행동을 취했는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상이 뒤따를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몇 가지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해서 곧 그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를 했다고 해서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낮은 밤을 뒤따르고 밤은 낮을 이어 옵니다. 파도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계절이 가면 또 다른 계절이 오는 법입니다. 희생적으로 살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간에 때와 환경은 누구에게도 똑같습니다.

참된 희생은 보상이나 상급을 기대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미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12절 깊은 잠. 이것이 아담 이래로 처음 발생했네요.

4월 13일

화로(용광로)와 등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죽여 쪼개어 그 조각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놓았습니다. 양당사자는 각각 반대편에서 걸어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예레미야 34:18-19에 이런 풍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 원하실 때 그분은 그와 같은 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보니 그 조각들 가운데로 고통과 구출의 상징(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 화로와 등불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화로(17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1. 이집트에서(신 4:20, 왕상 8:51, 렘 11:4)
2. 앗시리아인의 치리하에서(사 31:9)
3. 대환란 때에(겔 22:18-22)

등불(17절)은 이스라엘의 구출을 상징합니다(왕상 11:36, 15:4, 사 62:1, 삼하 21:17).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 용광로 안으로 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 번에 걸쳐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세 명의 히브리인들을 통해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용서의 등불이 죄의 인식이라는 용광로를 뒤따라 갑니다.

위로의 등불이 시련의 용광로를 뒤따라 갑니다.

부활의 등불이 사망의 용광로를 뒤따라 갑니다.

4월 14일

창세기 15:1-16에 나오는 예언

이 예언은 7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1. 타국 땅에 거하는 타국인(나그네) ⇨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감.
2. 그들을 섬기겠고 ⇨ 파라오의 노예가 됨.
3.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 출애굽기 12:40은 그 전체 거주기간을 다루고 있음. 그들은 고통이 시작되기 전 그곳에서 30년을 머물렀음.
4.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 재앙들, 장자의 죽음, 수장된 이집트 군대
5.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임(시 105:37).
6. 아브라함이 평안히 자기 조상에게로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힘(25:8).
7. 네 세대 만에 그들이 돌아옴 ⇨ 출애굽기 6:16-20,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날짐승들(15:11). 이들은 육식을 하는 새를 말합니다. 아브람은 하루 종일 시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긴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긴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탄과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 그분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마 13:4, 19).

4월 15일

이스마엘의 출생 1(창 16:1-16)

1. 사래, 아브람, 그리고 하갈

A. 사래의 간청(1-3절)

- (1) 불임에 대해 실망함(1절)
- (2) 이집트 여인 하갈은 세상과 세상방식의 예표임
- (3) 하갈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로부터 데려오게 된 노예였음.
- (4) 하갈은, 도피, 도망자 혹은 이주자라는 뜻임.
- (5) 사래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시도했음.
- (6) 사래는 그 아이가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음.
- (7) 아브람은 하나님대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음.
- (8) 하갈은 노예로서 그 문제에 있어 선택권이 없었음(3절).

B. 아브람의 행동과 그 비극적 결과

- (1)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4절)
- (2) 하갈이 사래를 멸시함. 그녀는 아마 질투를 했을 것이고 우월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4절)
- (3) 사래는 비난의 화살을 아브람에게로 돌리려고 함(5절)

- (4) 아브람은 하갈을 사래의 처분에 맡김(6절)
- (5) 사래가 하갈을 학대함(6절)
- (6) 하갈이 도망함, 이는 노예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음(6절, 잠 21:9)

4월 16일

이스마엘의 출생 2(창 16:1-16)

2. 하갈의 도피

A. 광야에서(7-9절)

- (1) 하갈이 광야에서 발견됨.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 (2)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발견되었음.
- (3) 그녀는 돌아가 복종하라는 명령을 들었음(8-9절)

B. 주님의 약속

- (1) 하갈의 씨가 번성할 것임.
- (2)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음.
- (3)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임.
- (4) 그녀의 후손은 야인이 될 것임.
- (5) 그녀가 주님을 인정하였음.

3. 창세기 16장에서 얻게 되는 교훈들

주님을 기다리라. 아브람은 제단을 세우고, 희생을 바치고 기다렸습니다(창 15:7-18).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의 공포가 다가

왔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더니 온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따뜻함이 추위로, 위로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도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결국 그는 깊은 잠이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행동하실 시간입니다.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이 시점에서 에덴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남자가 서두르는 아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상태를 보고서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한다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우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4월 17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함

사래는 후손을 주시거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할 경우 고대 중동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은 남편들이 실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사래의 의도는 (그런데 사래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성경기록 전반에 걸쳐 하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어쩌면 그녀가 하갈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사래의 자녀로 간주될 아이를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리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래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람이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3:17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아담의 행복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인도하는 대신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람 또한 책임 있게 사래를 인도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금지된 열매가 제시된 반면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래가 그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고 기록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주었다와 비교해 보세요. -역주)

사래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사래를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었고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 결국은 그녀를 파라오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오래도록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 한번의 실수(이스마엘의 출생)로 인해 아마도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월 18일

이스마엘의 출생: 영적인 교훈(갈 4:19-31)

하갈은 사래의 몸종이었으며 율법을 대표합니다. 사래는 은혜를 대표합니다(갈 4:3). 율법은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열매를 맺고자 하

는 시도는 모두 다 어긋나고 맙니다. 때론 은혜마저도 그와 같은 행동을 제안하거나 강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믿음 생활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1.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 (1) 시내 언약은 속박으로 이끅니다.
- (2) 이 언약은 하나님을 도우려는 시도를 대표합니다.
- (3) 여기에는 믿음이나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4)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2. 사래와 이삭은 은혜를 대표합니다.

- (1)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 (2) 은혜는 자유와 해방으로 이끅니다.
- (3) 이삭은 약속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3. 율법(하갈)은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생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나 그 생산물마저도 은혜와 적대 관계에 놓였습니다.

4월 19일

13년간의 열매 없는 세월(창 16:16-17:1)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를 연구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숫자는 반복해서 더럽고 악하고 사탄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다음은 흥미로운 예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1. 반역과 배교(창 14:4)
2. 솔로몬의 실수(왕상 6:38, 7:1)
3. 에스더 시대의 죄(스 3:12-13)
4. 이스라엘의 배교 당시 13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5. 계시록에는 용이 13번에 걸쳐 나옵니다.
6. 더러운 동물과 새는 26마리였습니다.
7. 바울은 39대를 맞았습니다.
8. 창세기 13:13은 13단어로 되어있습니다.
9.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10. 창세기, 사무엘기상, 사사기, 예레미야, 신명기, 마가복음,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반역이 등장합니다.
11. 신명기 13장은 거짓 대언자를 다루는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12. 계시록 13장에는 거짓 대언자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13. 이 장들은 18절로 구성됩니다(6+6+6).
14. 신명기 13장 13절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5. 열왕기상 13장에는 반역하는 대언자가 나오고 26절(2x13)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6. 계시록 17:5에는 붉은 글씨로 13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창녀의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17. 마가복음 7:21-22에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13가지 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8. 가롯 유다(Judas Iscariot)는 영어 철자로 13글자입니다.
19. 욥기 26장 13절(2x13, 13)에는 창조와 하늘과 구부러진 뱀에 대해 말씀합니다.

20.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사이에 있는 별자리는 구부러진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13개의 별을 갖고 있습니다.

21. 역대기하 9:13, 에스라 2:13, 계시록 13:18에는 66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22. 님롯은 아담으로부터 13대째 사람입니다(창 10:6-8).

23.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24.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죄에 대한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25. 구약성경은 39번째 책(3x13)에서 저주로 끝납니다.

26. 영국에 반역을 일으킨 미국의 식민지는 13개 주였습니다.

4월 20일

하갈 1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16:1-3)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자인 아이를 낳는 위대하고 고상한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배우게 됩니다(창 1장). 우리는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는 그 불임을 끔찍한 수치로 여겼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자들 중 불임이란, 본성적이고 타락했으며 죄악 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기쁨을 알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무런 열매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잃어버린 바 된 사람도(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신들의 상태를 아이 없는 여인이 느끼는 만큼 깊이 느꼈으면 좋으련만!

여종. 여종은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종 노릇”은 모든 죄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요 8:34)

창세기 16장은 불임인 한 여인과 노예인 한 여인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죄와 허물 안에서 죽었으며 다른 자들처럼 진노 아래 놓여 있던(엡 2:1-3), 회심 이전의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율법의 행위로 공적을 쌓으려는 죽어있는 율법주의 자를 대표하는 바 이 자 역시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집트 사람.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며 따라서 우리는 여기(창 16장)에서 이 세상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저지른 실수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아마도 사래가 이집트에서 노예를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어쩌면 파라오가 아브람에게 준 여종들(창 12:16) 중 하갈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월 21일

하갈 2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2절) 이 구절을 보면 사래는 자신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존재하던 종교의 상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 한 여인이 아이는 낳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의 의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 또한 하나님과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을 수는 있으나 생명을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아브람이 하갈과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종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의 중재를 통해 시내산에서 집접 주시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죄인을 구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롬 8:3, 갈 3:21-22).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기껏해야 이것은 간접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후일 그녀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사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복종을 통해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겠지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적인 출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람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는 아담이 그랬듯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창 3:17). 그의 믿음이 약해졌고, 그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설득은 우리에게 울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신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 사례와 하갈의 관계는 처음부터 변칙적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 즉 세상 여자였습니다. 이 잘못된 관계는 재앙을 가져왔고 비극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경고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고후 6:14)

4월 22일

하갈 3

“사래가…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16:3) 칭의에 있어서는 행위는 믿음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약속들과 대언들은 신약성경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는 대신에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오늘날 비슷한 혼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수태하니”(16:4) 하갈은 첫 번째 언약과 같아서 속박으로 이끌어 갑니다(갈 4:24). 그녀의 자녀 역시 그녀처럼 노예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었으나 이 언약은 자유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16:6) 사래의 손은 권위를 의미하고 그녀의 눈은 그녀의 욕망을 의미하며 그녀의 얼굴은 원망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16:9-11) 하갈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옛 언약을 대표하며(갈 4:24, 25) 땅에 있는 옛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옛 언약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 언약을 섬기는 길뿐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언약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민족적 특권을 지닌 옛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예표일 뿐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16:10)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였습니다. 이 옛 언약은 구속의 범주 안에서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박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갈의 씨는 육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일 뿐입니다. 따라서 풍요와 번성이라는 복을 누렸습니다.

4월 23일

창세기 16장 고찰

16장에서 입증된 영적 생활의 원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옛 본성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은 성도 역시 시험과 나약함과 상존하는 육신적 성향 등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사는 동안 별별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몇 주간, 그리고 몇 달간은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특별한 시험 거리가 생겨 우리를 죄로 몰고 가게 됩니다.

시험은 자주,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큰 시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도 자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탄은 가장 거룩한 관계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사용해서 죄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략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너무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결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훌륭한 동기와 잘못된 행동의 연합입니다. 사례의 동기는 의심할 바 없이 좋은 것이었으며 아브라함 역시 같은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실수나 비성경적 실행이나 심지어는 배교마저도 “오, 그것은 선의로 한 것이잖아.” 라는 변명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 못지 않게 선의를 가지고 행한 사람도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운전자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운전자는 동기는 달라도 결국 같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것은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큰 비극이 발생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죄의 여파는 길게 간다”

어떤 죄들은 그 여파가 매우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가증한 것이지만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크고 오래도록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담의 타락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밀회를 가진 것 만큼 인류에게 큰 해를 가져온 행동도 없을 듯 싶습니다.

회교(이슬람교)의 존재는 실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발걸음에서 기인합니다. 모하메드 이전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혼들과 이스마엘인들이 흘린 피, 그리고 모하메드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의 수 백만의 혼들이 멸망은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인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의 씨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직도 맹렬하게 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천사가 약속하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16:10)고 했으며 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16:12)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날까지도 이

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시하는 이복형제들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하시거나 막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갈도 방황하다가 사막에서 아이와 함께 죽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내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불순종과 자아추구는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상기하도록 하시려고 육신에 뿌린 씨들이 번성하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4월 25일

“하나님을 기다림”

이번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버렸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의향이셨다면 벌써 그 일이 성취되었을 거라는 논리전개야말로 많은 사람을 실수로 이끄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하나님의 방식은 때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결합되는 것(히 3:12)이야말로 참된 영적 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의

심과 교만, 혹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이번 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능력과 선택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라의 시험이 가져올 위험을 충분히 감지해 낼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에 가까이 가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단 11:32)

어쩌면 대다수의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혼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구름기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다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어기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그 어떤 선이 그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롬 3:8을 보세요).

4월 26일

새롭게 되고 확장된 언약(창 17:1-14)

1. 많은 민족들의 조상(4-6절)

그의 이름이 바뀌었음

- (1) 아브람: 높은 아버지
- (2)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
- 2. 그의 후손과의 언약
- 3. 영존하는 언약(7절)
- 4. 영존하는 소유가 된 가나안 땅(8절)
- 5. 언약의 표적: 할례
 - (1) 언약이 씨와 관계 있음을 상기시켜줌
 - (2) 육신의 무익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적임
 - (3) 전가된 의가 먼저 왔고, 뒤이어 외적인 표적 혹은 인(seal)이 뒤따름
- 6. 일곱 번에 걸친 “내가 하리라(I wills)”
 - (1) 이곳에서
 - (2) 출애굽기 6:6-8
 - (3) 이사야 14장
 - (4) 이사야 65장
- 7. 할례

은혜가 참된 열매를 맺기 전에 육신은 끊어져야(베어져야) 함

4월 27일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

- 1. 둘 다 약속된 씨였음(창 17:16, 3:15)
- 2. 둘 다 아들이었음(사 7:14)
- 3. 두 경우 모두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기간이 있었음(창 12:7-21:1)

4. 두 사람의 어머니가 모두 어떤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음(창 18:13, 눅 1:34)
5. 두 어머니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답변했음(창 18:14, 눅 1:37)
6. 두 아들 모두 출생 전에 확정된 이름을 받았음(창 17:19, 마 1:21)
7. 두 소년 모두 정해진 때에 태어났음(창 21:2, 갈 4:4)
8. 두 출생 모두 기적이 요구되었음(사 7:14)
9. 두 출생 모두 아버지들의 기쁨이 되었음(창 21:23, 마 3:17)

우리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계 19:10)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4월 28일

비준된 언약

17:5 언약은 약속에 대한 결정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공식적이고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구체적 사항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17:4에서 “나로 말하건대”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 이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너는…할 지니” 라는 표현에 이어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몫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두 당사자가 사인을 하고 봉인을 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께서 15:9-18의 계약 시 이미 사인과 봉인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자신과 자기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사인과 봉인을 합니다. 따라서 17장 이후로부터는 이 언약은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큰 전환점을 기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17:5, 15).

17:8 하나님께서는 12-16장에 걸쳐 아브라함을 믿음과 신실함에 이르도록 양육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느헤미야 9:7-8에 따르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느헤미야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세 번의 주요 단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2.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였고
3.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신 것은 그의 부르심이요,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언약이 봉인 될 때였습니다.

택하심은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실함은 12-16장에 나와 있으며, 17장에서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4월 29일

“비준된 언약의 표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떠나가시자(17:22), 그는 태어난 자든, 사들인 자든 간에 모든 집안 남자들을 데려다가 당일에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17:23-27).

이것은 실로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남자들은 며칠 동안 무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유대 작은 공동체는 잠재적인 원수들과 실제적인 외지인들 사이에서 (외국 땅임을 기억할 것)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창 34:24-26과 비교해 보세요). 이 육체의 할례는 실로 위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될 수 없고, 비록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에 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영적 할례를 통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교회는 폭력, 속임수 기타 세속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이리가운데 양들처럼 세상으로 내 보내어진 상태입니다(마 10:16). 교회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할례를 받은 후 처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대적들 가운데 아무런 도움 없이(인간적으로 볼 때) 놓여있는 셈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회는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천주교만 적게 잡아도 약 오천만 명을 살해했고 공산주의자들과 회교도들에 의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함은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보호받고 지탱되어 왔으며(왕하 6:17, 요일 4:4), 교회의 순교와 고통은 나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적이 되었으며 복음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무기 없이(고전 10:5) 승리를 위해(고전 15:58) 싸우고 있습니다(엡 6:10 이하).

4월 30일

“교회는 방문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창 18:1-9, 히 13:2, 잠 18:24)

1-5절 예의가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친밀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원합니다.

2절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방문객을 서둘러 맞이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며,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혼입니다.

2절 “땅을 향해 굽히고 절했습니다.” 이로써 환영과 존경과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3절 “내 주여” 인사는 정중했고 예의 바른 태도로 행해졌습니다.

3절 “호의를 입었으면” 이로써 손님이 계속해서 함께 머무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방문객은 이해하게 됩니다.

3절 “원하건대”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4절 “물과 발” 아브라함은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모임 장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맨 뒤 자리를 차지하므로 손님이 자리 찾는 데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요? 우리가 뒷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아직 어린 방문객들이 평안이 있을 자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은 잘 청소되어 있나요? 시원한 음료수는 준비되어 있는지요? 코트나 모자를 걸어놓을 장소도 마련되어 있나요?

4절 “나무” 날이 뜨거웠고(1절)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은 방문객들에게 상식을 제공합니다.

5절 “빵 한 조각” 아브라함은 음식을 제공합니다(뭉).

5절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혼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과 혼, 둘 다 중요합니다.

5절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오셨나이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섬김을 받고자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출석수를 늘리고 헌금에 기여하도록 함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역을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오신 낯선 분들을 돕고, 축복하고, 섬기게 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옳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6-7절 식사는 아브라함이 비용을 냈습니다.

6-7절 “사라, 젊음이”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일꾼들의 노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재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요? 청소임무는 완료되었는지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오셨나요?

8절 “겉에 서매”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군요.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문객에게는 충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8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립니다(대하 20:7, 약 2:23, 사 41:8).

5월 1일

창세기 18:1-19 묵상

4절 “물을 조금” (눅 7:44)

6절 “고운 가루 삼 세아” (민 15:9, 마 13:33, 골 2:9)

12절 “웃으며” (시 126:2)

14절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눅 18:27, 롬 4:17, 고전 1:28)

답은 예레미야 32:17에 있습니다.

13-14절 늙은 나이에 얻은 아이(시 115:3, 사 43:13, 마 19:26)

17절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비밀은 다음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1) 진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들(창 18:19)

(2) 종들(계 1:1)

(3) 순종하려는 자들(롬 12:1-2)

(4)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시 25:14)

(요한복음 15:15, 야고보서 2:23, 아모스 3:7을 볼 것)

의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롯(1), 아내(2), 결혼한 딸들(3,4), 사위들(5,6), 결혼하지 않은 딸들(7,8), 그리고 사돈 혹은 손자들로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가족만 구려했더라도, 모든 것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5월 2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I.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위대한 기도

1.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2. 그는 가까이 다가갔음(23절, 약 4:8, 엡 2:13, 롬 5:10, 히 7:19, 히 10:22)

II. 기도의 특성

1. 경건함.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2. 간절함. (“오!” 라는 감탄사 주목, 30, 31절) 단지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3.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 (1)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 (2) 그는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다(잠17:5)는 하나님의 주장에 동의 하였습니다(20절).
 - (3) 그는 세상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습시다(요 17:9). 의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해야 합니다(요 14:3, 요일 5:14-15, 유 20).
5. 제한이 있습니다(28-32절).
6. 그러나 지속적입니다. 6번(오! 7번째 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기도는 겸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뜻을 구원할 수도 심판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5월 3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세가지 위대한 성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만큼 뛰어난 성품 세가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창세기 1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선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킬 것이라.”

우리 또한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의 길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면 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 간주했고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그 명령을 진리로 단호히 제시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주님의 증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가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될 리가 없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온 땅에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그분의 길이 우리 마음에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가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전혀 기도해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위험스러운 길로 스스로 찾아 갔고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친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보살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자기에게 한 일이라곤 문제 일으킨 것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5월 4일

창세기 18장 묵상(18:20-33)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와로부터 응답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종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대꾸입니다. 많은 기도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이로써 주님의 반응을 분별하는 데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멈추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롯의 가족들이 믿는 자라고 판단하고 10명이면 멸망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 땅의 심판자”로 언급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민족신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인류역사 아주 초기부터 온 세상에는 단 한 분 참된 신이 계신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씀은 우

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취해야 할 겸손함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보존은 아브라함의 중보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를 두 번째로 구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창 14장) 이번에는 기도로 그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 가운데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인정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나 그들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이 피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

구 분	아 브 라 함	롯
1	주님이 직접 방문하심(18:1-27)	천사들만 방문함(19:1)
2	축복의 메시지(18:9-13)	징죄의 메시지(19:13)
3	빛이 있는 낮에(18:2)	저녁때에(19:5)
4	장막 문에서(18:1)	소돔의 문에서(19:1)
5	하나님께 영향을 끼침(18:23-32)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19:14)
6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 (19:27-28)	모든 것을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의 멸망을 못 봄(19:26,30)
7	세상에 복을 가져옴(18:18)	슬픔(암몬, 모압)을 가져옴(19:37)
8	믿음으로 걸었음	눈에 보는 것으로 걸었음
9	자신을 내어주고, 관대함	움켜 쥐고 탐욕스러움
10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시를 찾음 (히11:9)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시를 바라봄 (14:12)

11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모든 육신적 생각의 예표
12	세상의 상속자가 됨(롬4:13)	모든 소유를 잃어버림
13	충분히 나이 들어 죽음(25:8)	동굴에서 죽음(19:30)
14	롯을 위하여 소돔을 남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	자기를 위해 작은 성읍을 남겨 달라고 기도함
15	천사들과 교제를 가짐	소돔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짐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라는 창세기 18:14의 질문은 예레미야서 32:17절에서 응답됩니다. “아, 주 하나님이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5월 6일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였고 이에 대가를 치름

1. 롯은 어떻게 소돔에 이르게 되었는가?

(1) 그는 그 쪽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창 13:12).

(2)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창 13:13).

(3) 그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창 14:12).

(4) 포로에서 구출된 후 롯은 소돔으로 돌아옵니다(행 4:23).

그는 소돔으로 결코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때든 그곳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2.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무엇을 행했는가?

- (1) 바라보았습니다(창 13:10).
- (2) 택하셨습니다(창 13:11).
- (3) 옮겨갔습니다(창 13:11).
- (4) 장막을 쳤습니다(창 13:12).
- (5) 앉아있었습니다(창 19:1).
- (6) 집을 지었습니다(창 19:3). 그는 장막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 (7) 망설였습니다(창 19:16). 성문에 앓는다는 것은 교제와 인정받음을 시사해줍니다(잠 31:23, 룿 4:1).

3. 롯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 (1) 형제들이 되었습니다(창 19:7).
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잠 17:15, 롬 1:30).
- (2) 그는 농담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창 19:14).
- (3) 그는 가족에게 실족시키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롬 14:7, 13).
- (4) 그의 혼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짐이 되었습니다(벧후 2:7-9).

4. 롯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 (1) 간증(창 19:14)
- (2) 아내(창 19:26)
- (3) 하나님과의 교제(천사들이 소돔에 오는 동안 주님은 뒤에 머무셨음)
- (4) 재산
- (5) 가족

5. 롯이 남긴 유산

- (1) 동굴 인간(창 19:30)
- (2) 죄악 된 계획(창 19:32)
- (3) 근친상간(창 19:33-35)
- (4) 신실하지 못한 딸들(창 19:31)
- (5) 술취함(창 19:33-35)

5월 7일

소돔과 고모라

모든 옛 작가들은 이 두 도시가 사해 남쪽 끝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해는 길이가 약 40마일(64km), 폭이 약 10마일(16km)정도입니다. 북쪽 끝은 매우 깊어 어떤 곳은 1000피트(300m)정도 라고 합니다. 반면 남쪽 끝은 가장 깊은 곳이 15피트(4.5m)이고 대부분 지역이 10피트(3m) 미만입니다. 지금 수면은 아브라함 당시보다 높아져 있는데 이는 요르단 강과 다른 강들이 흘러 들어 오기 때문이요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해의 남쪽 지역의 약 3분의 1 가량이 당시에는 평원이었습니다. 1924년 알브라이트(Albright) 박사와 카일(Kyle) 박사가 이끄는 합동 탐사팀이 사해 남동쪽 끝에서 다섯 개의 오아시스를 찾아냈습니다. 이 다섯 오아시스는 신선한 민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해 수면보다 약 500피트(150m) 위에 있는 밥에드라(Bab-ed-Dra)라고 하는 평원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요새의 잔해가 남아있었는데 아마도 종교 행사를 치르는 곳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B.C. 2500~2000년 사이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유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B.C. 2000년경 그곳

주민이 갑작스럽게 멸망당한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크게 번영했던 곳이라는 그러한 증거들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매우 비옥한 곳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곳 주민이 갑작스럽게 패망했으며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재앙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를 바꿔버린 대격변을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알브라이트와 카일 박사의 견해는 (대다수의 과학자들도 같은 의견임) 소돔과 고모라는 이들 오아시스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 강줄기를 따라 현재는 사해에 의해 덮여 있는 지역까지 펼쳐져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10의 진흙구덩이는 역청(아스팔트라라고도 불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윤기가 흐르는 흑색 석유제품으로, 녹으면서 타오르는 물체입니다. 사해 양쪽으로 이 역청으로 된 거대한 지역이 있고 특히 남쪽 끝에 더 많이 몰려있으며 바닥에는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양의 역청이 표면 위로 솟구쳐 올라왔었습니다.

유황(창 19:24)과 관련해서 카일 박사는 우스돔(Usdom) 산 아래에 150피트(45m) 두께의 소금층이 놓여있고 그 위에 유황이 섞인 점토층이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스에 불을 붙이셨고 대폭발이 일어났으며 소금과 유황이 붉고 뜨거운 상태로 하늘로 솟구쳤으며 결국 불과 유황이 문자적으로 비처럼 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에 덮여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해 남쪽 끝에는 롯의 아내라는 이름을 지닌 많은 소금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5월 8일

창세기 19장 묵상

1절 천사들은 소돔으로 내려갔지만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사악한 곳의 땅을 밟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2절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렘 14:8, 엡 5:11, 눅 19:5 참조) 거룩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느냐보다 어떤 친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5절 많은 주석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왜곡해서 해석하여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안다(to know)”라는 표현은 분명 성관계를 의미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창 4:1).

7절 타협이 초래한 비극적인 간증의 모습입니다. 롯은 그들의 행실이 사악한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 도착증세가 있는 일당들에게 딸을 내어주는 행위야말로 그 어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롯이 이들이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소도미(남성동성애자)임을 알고 계산된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만 당사자 모두가 다 끔찍한 비도덕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9절 사악한 자들이 늘 써먹는 무기가 있지요.- 판단하지 말라.

11절 “쳐서 눈을 멀게 하니”(행 13:11, 왕하 6:18) 시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14절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눅 24:11, 벧후 3:3-4, 행 12:15 참조) 잘못된 삶을 살면서 간증만 올바르게 하면 그 메시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5-16절 “천사들이…재촉하여” 이 말씀에 따르면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5월 9일

창세기 19장 묵상(계속)

17절 “데리고 나아간 뒤에”(속 3:2, 암 4:11, 유 23 참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구출하십니다.

17절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마 24:16, 민 16:26)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19절 “뒤를 돌아보지 말라.”(히 10:38-39, 빌 3:13-14) 과거에는 파산과 멸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19절 상식이 결핍된 곳에는 믿음의 결핍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요량이었다면 그를 그 도시에 그냥 남겨 두시기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마노아 역시 비슷한 비상식적 발언을 했습니다(삿 13:22-23).

20절 “작은 도시”(아 2:15, 고전 5:6, 갈 5:9) 롯은 도시 생활과 깨끗하게 결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를 점진적으로 포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1절 “이 일에 대해서도 저를 받아들였은즉”(마 19:8)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선택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24절 “불을 비같이 내리사”(출 9:18, 시 11:6, 눅 17:28, 벧후 2:6, 유 7, 마 11:24, 계 21:8)

32절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엡 5:18, 갈 5:19, 합 2:15) 롯의 딸들은 소돔 밖으로 나왔지만, 소돔은 그녀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이 딸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필요마저도 악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5월 10일

소돔을 바라보며

1. 롯 13:10

- (1) 소돔을 부와 흥을 가져오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 (2)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2. 천사들 18:16

- (1) 속은 성도에게 속박이 될 장소로 보았습니다.
- (2)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3. 주님 18:20~21

- (1) 타락의 징조로 보았습니다(겔 16장).
- (2) 부패의 징조로 보았습니다(롬 1장).
- (3) 멸망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4. 롯의 아내 18:26

- (1)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 (2) 가족을 남겨둔 곳으로 보았습니다.
- (3) 마음의 애착이 놓여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5. 아브라함 18:28

- (1) 자신이 머무를 수도 있었던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 (2)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 (3) 주님의 말씀을 확인할 장소로 보았습니다.
- (4)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장소로 보았습니다.

5월 11일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의 실패(창 20:1-18)

1, 2, 13절 여기 옛 죄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죄에 대해 회개한 적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라앉았으나 아직은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은 욕심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3절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히 13:4). 현대인들은 이 죄를 수용할지 모르며, 설교자들은 이 죄를 정죄하기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4-5절 의도에 있어서는 무죄이지만 그대로 여전히 유죄인 한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6절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

았다 하더라도 그를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전히 붙드시고 수치와 책임을 넘어 사라를 통해 후손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05:14은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의 핵심사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자 사람을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8절 아비멜렉의 목숨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히 행동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작정으로 신속하게 전심으로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렘 7, 13, 2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하실 때).

8절 아비멜렉뿐아니라 그의 종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 때문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행 10장).

8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이도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는 죄인들이 죄의식을 완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소위 이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도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였는

가 입니다.

16-17절 “네 오라비” 이것은 조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눈가리개에 불과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너로 장님이 되게 하였도다” 라는 말입니다.

5월 12일

위치와 상태(창 20:7, 17)

구 분	위 치 (지 위)	상 태
롯	이로운 혼을 지닌 의인	소돔에서 괴로워함
이스라엘	복을 받음(민 23:27)	광야에서 죽어가는 반역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수 3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음(히 13:5).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빌 1:6). 구속의 날까지 인침 받음(엡 4:30).	때로는 방황함. 선한 행위를 그만둠. 자주 성령이 아닌 육신 안에서 걸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 (롬 6:23).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음(엡 2:6). 현재 하나님의 아들임(요일 3:2). 썩지 않는 유업(벧전 1:3~5).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음(갈 2:20)	죄의 삯인 사망을 당함. 잘못된 곳에 자주 앉아있음. 아들의 신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함. 믿음에 있어 나약함.

고린도후서 4:16과 로마서 8:33-34을 보세요.

이번 장은 믿는 자의 위치(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지위)와 상태(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실제적 삶)사이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지위): 그는 대언자이며(7절) 아비멜렉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태: 그는 속이는 자이며 아비멜렉에게 책망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과 그들을 고소하는 모든 혀 사이에 항상 개입 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사람 인지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 받는지에 근거해서 판단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대하시는 지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다음 사항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5월 13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창 20:1-18)

우리는 이번 장에서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선교사의 증언을 듣지 못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그 전형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나님이 경고하심

4-6절 섭리적으로 죄로부터 지켜짐

4절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김

8절 계시를 믿음

8절 두려움으로 행함

로마서 1-2장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율법 이전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1. 가인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희생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는 아마 불에 의해 제사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히 11:4, 레 9:24, 사 6:21, 왕상 18:38, 대상 21:26, 대하 7:1).

2. 경배의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에덴의 동쪽 문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창 3:24). 가인과 아브라함은 그들의 헌물을 이곳으로 가지고 온 듯하며(창 4:3-4, 레 1:3)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4:7, 16의 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로써 창세기 13:13, 18:22, 19:27, 27:7, 출 16:9, 33 등의 구절은 문자적으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 앞에서 라는 것이 이 문 앞에 서일 가능성을 말함-역주)

3. 율법 이전에도 제사장들(창 14:18, 8:20, 12:8, 35:7, 욥 1장)과 설교자들(벧후 2:5), 그리고 대언자들(창 20:7, 유 14-15)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십일조를 거두었습니다(히 7:9).

4.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옷을 입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good)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물건들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대하 36:10, 사 64:11, 애 1:10). 창세기 37:3, 출애굽기 39:1도 보십시오.

5. 어떤 형식과 의식들이 가끔씩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 (1) 기름 붓기(창 28:18, 31:13)
- (2) 제단 쌓기(창 8:20, 12:7 등)
- (3) 음료 헌물 붓기(창 35:14)
- (4) 희생을 바쳐 언약을 체결하기(창 15:9-18)
- (5) 안식일 지키기(출 16:23, 15:25, 신 5:12)

p.s. 아브라함의 거짓말: 무지한 이방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들의 수준보다 더 낮았습니다.

5월 14일

창세기에서도 율법은 가동되고 있었다

창세기에서 적어도 34번에 걸쳐 율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예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돌 판에 삶의 기본원칙을 율법으로 주시기 수세기 전부터 율법을 “가동” 시키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 없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일반적인 법들을 살펴보십시오.

1. 안식일(창 2:3)
2. 홍수와 연관된 날들은 한 번을 제외하고(창 8:5 등) 모두 안식일입니다.
3. 경매의 법(창 4:3, 16)

4. 헌물에 관한 법(창 4:4)

창세기에서 실행되던 위에 언급한 법들은 후일 모세에게도 주어진 바 그 안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 고기를 먹는 법, 제단, 살인, 부모의 권위, 간음,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의복, 피를 먹는 것, 일부일처제, 언약체결, 중보, 의, 할례, 접대에 관한 법, 맹세, 음행, 부정함, 음료헌물, 형제의 과부와 의 혼인 및 기름부음에 관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기록된 지침들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율법의 기본원칙들은 인류초기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가인, 아벨,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양의 계시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이들 원칙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비록 아직은 기록된 형태의 법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았어도 이런 것들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함무라비가 대학을 가다”

1901년 드모건(M. S. DeMorgan)씨가 이끄는 고대 유물 발굴단이 율법전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므라벨 혹은 카무라비 혹은 함무라비 혹은 흠무라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들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철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의 철자가 달라지는군요?)

이 발견은 믿지 않는 자들을 열광시켰으며 특히 대학 강단에 소속된 자들

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는 다만 위에 언급한 인물이 만든 도덕과 사회 규범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칠 기회를 학자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자님들”은 본인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지라, 함무라비가 써 놓은 규범은 그 누구든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벌써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므라벨의 법전 내용과 창세기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 집니다.

함무라비 법전	성경 창세기
191조 양자의 법	15장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언급됨
146조 하녀를 남편에게 주는 법	아브라함과 야곱은 둘 다 이를 실행하였음 (16, 30장)
7조 땅의 구매	아브라함은 막벨라를 매장지로 구매함 (23장)
6조 도둑질을 사형에 처함	히브리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음(31:32)
110조 불태워 사형을 집행함	38:24에 나옴
6조 왕궁에서의 절도를 사형으로 다스림	요셉과 형제들도 알고 있었음(44:9)
165조 사랑하는 아들에게 별도의 몫을 줌	야곱과 요셉이 실행함(48:22)
158조 부모를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장자 권을 박탈함	르우벤에게 해당되었음(49:4)
119조 여인의 매매	하갈에게 해당됨(16:6)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써 놓으셨습니다(롬 2장).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합니다(롬 1장, 시 2편).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요 3:19-21). 함무라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1장)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두고 놀라는 것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

서양 문명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바빌론과 이집트를 중점으로 다루면서 히브리문명을 무시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어메리칸리그에 대해 말하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드트로이트 타이거즈만 말하고 뉴욕 양키즈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의도적인”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줌의 믿음도 없이 학교를 떠나고 맙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5월 16일

창세기 20장 묵상

아비멜렉은 여러 가지에 대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1. 너는 우리에게 무슨 짓인가 했다(9절).
2. 너는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다(9절).
3. 네가 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9절).
4. 너의 범죄는 편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10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특별한 영적 계시와는 별도로 진지하고, 곧바르며, 진실되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으나 이것은 타고난 선한 성

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이를 확인하셨습니다(6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드시고 수치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라로부터 유래한 자손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시편 105:104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하나님)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으시니라.”**

“그는(아비멜렉)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속어적 표현은 그가 신속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였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작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7, 13,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경고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자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직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걸으라.”**(골 4:5)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살전 4:12)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딤후 3:7)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음 위에 자기의 이익을 놓으려다 간증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5월 17일

이삭의 출생(창 21장)

이 기적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즐거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나(1절)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십니다. 우리 스케줄대로 하지 않으십니다(2절).

아브라함의 순종

3절 이름을 선택함에 있어(17:19)

4절 언약의 표적에 있어(17:9-12)

5절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사라의 축복

6절 새로운 웃음, 이번에는 믿음의 웃음입니다(18:12).

7절 그녀의 간증(히 11:11)

9-10절에서 이스마엘에 의한 이스라엘의 박해는 전형적 박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리가 갈라디아서 4:29-30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현재의 슬픔을 가져 옵니다(11절).

과거의 육신의 죄들은 궁극적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현재의 믿음의 행보가 방해를 받습니다(12절). 15년이 지난 후 해결되지 못한 실패가 아직도 바로 잡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심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거두어야만 합니다(13절).

5월 18일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형적인 교훈들(창 21장)

창세기 21:14-21에 기록된 사건들의 영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19-31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주어진 해석에 따르면 하갈은 예루살렘을 예표하는바 이 성읍은 지금 그의 자손과 함께 속박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믿음 없는 연합을 통해 얻게 된 자들은 지금 떠돌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갈처럼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롬 11:26-29). 생명의 공급 선이 가까이 있음에도 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물을 보기 위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기 원치 아니하시기에 눈을 열어 주십니다.

시내사막에서 태어난 노예 하갈은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있으며 율법에 의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영을 대표합니다.

반면 자유로운 여인 사라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떠나야 합니다. 이는 둘은 원수 사이이고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섞을 수 없습니다.

5월 19일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형적인 교훈들 2(창 21장)

이삭은 중생을 예표합니다.

1.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다름없었습니다.”(히 11:12, 이 표현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일상화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은 자연법칙에 따르면 아이를 출생할 힘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성에 속한 사람도(natural man)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실 사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롬 4:19, 엡 2:1, 롬 5:6).

2.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과정 중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듭남(중생) 역시 기적입니다. 모든 영적 출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요 1:13).

3.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집에 갈등을 몰고 왔습니다. 이제 집에는 성품이 다른 두 아들이 있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첫째로 태어난 우리의 옛 사람(성품)과 하나님에게 난 새로운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구원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반대를 불러 일으킵니다.

4.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삭과 대조해서 보면 이스마엘의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출생은 본성에 속한(육적 출생) 사람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 보여 줍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에 의해 비교될 때까지는 우리의 옛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5. 이삭은 자라 젖을 떼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새롭게 태어난 이들로써 성장을 위해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젖을 갈망합니다(벧전 2:2). 이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성숙하려면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 20일

창세기 21:1-9에 대한 묵상

“주께서(The LORD)”(1절) 1-7절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주님의 임재에 뒤따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주시고, 그다음 오셨고, 그리고는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늙은 나이의(In his old age)”(2절) 1941년 9월 페루에 사는 신치하(Sinchija)라는 사람이 91세에(이미 증조부인데도)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희롱하더라(Mocking)”(9절) 개역성경(Revised Version)은 이 구절을 “놀려다(playng)”으로 바꾸어서 이스마엘은 그저 순진무구한 아이일뿐이요 오히려 사라가 불합리한 질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흠정

역 번역은 갈라디아서 4:29에서 성령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희롱하더라는 단어야말로 이삭이 박해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고 보면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 여자를 내쫓으소서(Cast out this bondwoman)”(10절) 사라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성령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제시하시지만(9절) 사라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이스마엘 역시 이름 대신 노예 여인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사라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상속에 관한 문제였고 사라는 모든 유산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만 상속되어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마엘은 다만 노예 여자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내어준 것은 사라 자신이었습니다(16:3).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삭이 태어난 지금 사라는 단호히 결단을 내립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이스마엘은 결코 유산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동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5월 21일

하갈과 율법1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10절) 이 말은 사라는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갈 4:30). 이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거부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10절) 복음이 도래하고 교회

가 수립되자마자 유대종교의 모든 특권들이 근거하고 있던 옛 언약은 폐기되었고 새 언약이 이를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들로부터 탈취되어 한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1:43). 이 민족은 다름아닌 교회로 판명되었습니다(벧전 2:9).

주님께서 자신을 헌물로 드림으로써 직접 희생물과 헌물이 그치도록 하시고 이로써 유대종교의 특권들은 율법과 종교의식과 제사장제도와 더불어 치워져 버렸습니다(히 9장). 옛 언약은 불가능한 도덕적 요구들을 제시함으로 그 언약 당사자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롬 7:7-14).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의 특권을 꼭 붙들고서 변화를 인정치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인들을 보내어 성전을 불태우고 “지금 이 땅에 있는”(갈 4:25, 눅 19:41-44)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10-12 절) 백성이 하나이므로 상속자는 둘이 될 수가 없음은 자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30은 이 구절을 근거로 갈라디아인들에게 유대 율법과 규례, 혹은 의식에 복종하지 말라는 지침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박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유업(상속)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하갈과 율법2

이삭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였다면(11절), 옛 이스라엘을 내 쫓고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근심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우셨음을 보게 됩니다(마 23:37-39, 눅 19:41-44).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12절) 그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부담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도 좋은 결과만 도래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더라.”(14-15절)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흩어진 이래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해 오고 있습니다.

“브엘세바”(14절) 이곳은 이방인과 언약이 체결된 혹은 체결될 장소였습니다(32절). 옛 언약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은 단지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날 곳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겔 20:35, 호 2:14).

“부대의 물이 떨어지매”(15절) 옛 언약은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는바 구약성경이 증언하는 약속들이 성취된 후 이 성경을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문맥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구약 성경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종식되고 맙니다.

“우물”(19절) 오! 하나님께서 구약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 기적적으로 제공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요 4:14, 7:37-38)

5월 23일

육신의 일들

우리는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게 됨과 동시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성령 안에서가 아니라)이 어떤 모습인지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 5:19-21)

위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들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갈의 남녀관계는 옛 시대와 전통에서는 어느 정도 인가된 사항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며 윗 구절의 첫 네 가지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증오, 불화, 진노, 다툼은 그 아이의 출생의 결과 일어난 현상이며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결이 야기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사라의 시기는 자칫 두 명의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연합, 그리고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 방식으로 성취시켜보려는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언급된 열 일곱 가지 육신의 일들 중 이번 사건에 무려 14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8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이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이 발생해오고 있음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중동에서 서로를 살상하고 있습니다.-역주)

5월 24일

아비멜렉의 재등장(창21장)

22-23절에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났었다는 사실이 확연히 떠오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도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고 맹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알면서 여전히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왜 우리는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형제를 찾아가 온유와 은혜로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를 입은 것은 때론 의도치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4-26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우물

에 관해 책망했으나 실상은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올바르게 매듭 짓게 됩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해서 쓴 뿌리가 생기거나 자라도록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높은 산은 실상은 작은 언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엄숙한 언약이 둘 사이에서 체결되었습니다(27-32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위해 언약을 입증하는 일상적 선물을 아비멜렉에게 제시했습니다(27절, 왕상 15:19, 호 12:1).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어쩌서 그리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것은 우물과 관련해서 미래의 추가 보장을 위한 특별선물이라고 답합니다(30절). 이 모든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이삭을 바침1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경의 최고 스토리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엡 5:2, 히 9:14).

번제 헌물은 바치는 데는 두 가지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 헌물은 자원하여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레 1:3).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코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자원하여 오셨습니다(히

10:7, 마 26:39). 둘째, 번제는 전부 드러져야만 합니다(레 1:9). 아무것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갖은 것과 우리의 존재 전부를 바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롬 12:1).

아브라함이 이번 장에서 보여준 이것은 그와 같은 현물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22장의 첫 말씀인 “이 일들 후에” 라는 표현은 21장 34절의 “여러 날” 이라는 표현과 함께 상고해 보면 이삭이 젖을 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 당시 나이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극단적으로는 37살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한참 어리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흘 길을 걸어 여행 할 수 있고 산에 오를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는 되었겠지요. 따라서 오늘날의 어린아이(child)는 아닌 셈이지요. 창세기 21:17, 22:5, 12에 나오는 아이(lad, 소년 또는 청년으로 번역하기도 함)라는 표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이삭을 바침2

하나님께서서는 나이든 노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쪼개면서(3절)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그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삼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시적 흥분에 못 이겨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을 리

는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고, 따져보고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일 간의 시간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으나 물은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이 쓴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물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출 15:22-26).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입성하고자 요르단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실 권능을 입증하고자 그 강에서 3일간을 대기했었습니다(수 3:2).

아브라함 역시 이번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돌보심을 입증하실 것 인지를 3일동안 심사숙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과 씨름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히브리서 11:17-19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과 그 약속은 이삭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일으키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행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5월 27일

이삭을 바침3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lifted up his eyes)” 바라보았을 때,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늘 의미 있는 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13:10, 14, 18:2, 24:63). 아브라함은 어느 한 장소를 보았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가장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나귀와 함께 머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와 이삭만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올 것입니다.”(5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둘 다 돌아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 희생제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이니 실로 경외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6절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두 사람이 햇불이 펴려있는 가운데 비취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인으로 허리가 굽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이로 등에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든 칼이 불빛에 번쩍일 때 우리 역시 이삭처럼 칼과 불과 나무는 있는데 희생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는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런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양도 비둘기도 없다니! 이 노인이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물이 없으니 그 외에 다른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가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 등에 나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 세상의 죄 짐을 지고 나무 십자가와 함께 그 언덕을 오르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거룩한 비둘기요 이 세상의 점 없는 어린양 되신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고자 그 외로운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모든 희생과 모든 헌물을 종결 짓는 그 희생이요 헌물이 드디어 바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Himself) 어린양으로 제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월 28일

이삭의 희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예표적 교훈(창 22장)

14절에 따르면 이번 장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산을 바라본다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다섯 가지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1.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

이삭은 성전이 세워진 산(대하 3:1)에서 헌물로 바쳐졌습니다. 십자가와 왕관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빌 2:5-8) 아버지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인 아브라함

그는 멀리서 그곳을 보았습니다(4절, 계 13:8). 그 계획은 예수께서 오시기 오래 전부터 예언을 통해 약속되어 있었고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넘겨주셨습니다(요 3:16, 롬 8:32). 아버지는 전혀 머뭇거리지도, 지체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행 2:23).

칼과 불은 아버지의 손에 놓여있었습니다(사 53:4-10).

3. 우리의 대속물이된 숫양(히 10:5-10)

우리는 한 청년이 묶여 죽임을 당하고 이어 불에 태워질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죽음을 멈추게 하시더니 그 청년 대신에 한 헌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숫양은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밧에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뿔이 덩불에 걸려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양을 끌어냈을 때는 그 양의 머리 주위는 가시덩굴이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놓여졌던 가시관을 보여줍니다(막 15:17).

4. 돌아온 일은 부활을 예표합니다(히 11:17-19).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사망으로부터(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 데리고 나왔는데 아직은 아이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아들이 죽어 불태워진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그 아이는 둘 다 그 산을 걸어내려 올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찢리시고(요 19:34-37) 불태워졌으나(행 2:31, 혼이 지옥에 가신 것을 말함-역주)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오셔서 자신의 아버지와 교제를 회

복하셨습니다.

5. 나귀는 죄인의 예표입니다.

나귀는 산 밑까지 나무를 지고 갔으나 산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갈보리 산 아래까지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아드님께서 이 죄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죄들을 멀리 가져가셔야 합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보석 같은 진리가 있으니 이는 성경 기록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26에서 시몬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분은 넘어지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힘에 겨울 때까지만 십자가를 메고 가셨고 뒤이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32-33과 마가복음 15:21-22에 보면 시몬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만(UNTO) 십자가를 지고 왔고 반면 요한복음 19:16-17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안으로(INTO)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철자 하나차이(U와 I)가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로써 킹제임스성경은 창세기 22장의 예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몬은 나귀처럼 산에 이르기까지만 나무를 지고 갔고 그때 예수님은 이삭처럼 그 나무를 지고 언덕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

이삭은 산에서 헌물로 드려졌고, 살아서 돌아왔으며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

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신부가 그에게 인도되기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예표를 통해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계시되고 있는지요. 할렐루야!

5월 29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자기 뒤에 있으므로”(창 22:13)

사실 그 양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는 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자께서 죄인을 위해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건만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까지는 이 사실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숫양이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보기 위해 돌아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만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회심이란 구원자를 보는 것입니다.

“숫양 한 마리” 이번에는 이삭을 대신하게 된 이 숫양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숫양은 다 자란 어린양입니다. 따라서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자(어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바쳐지실 것입니다.

“덤불에 걸린” 마찬가지로 구원자께서도 인간의 죄에 걸려 그 죄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분은 그 위대한 구속의 목적 안으로 걸려 드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완수되기까지 몹시 답답하셨습니다(눅 12:50).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셨습니다(마 26:39, 42).

“뿔이(by his horns)” 구원자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이 그의 죽음을 대신하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마땅했으며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아 끔찍한 어둠에 처해졌어야 마땅했거늘,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쌍한 혼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5월 30일

희생을 드린 장소

창세기 21:33에 보면 작은 숲(grove)을 세운 사건이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일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죄악 된 실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작은 숲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 숲을 어디에 세웠는지 그 장소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신 16:21-22) 이 말씀에 따르면 숲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가까이”라는 위치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십 없이 심은 그 숲은 율법이 주어지기 아주 오래 전에 세워졌는데 헌물을 바치는 장소(22장 이삭을 바칠 모리아 땅)로부터 조심스럽게 멀리 떨어져 심겼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숲은 제단으로부터 적어도 삼일 길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모리아 땅

에 있는 그 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유일한 성경 구절은 역대기하 3:1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역대기하 3:1)

우리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도 아름답게 예표된 바로 그 장소가 다름아닌 그분께서 왕이 되셔서 앉아 다스리실 영광의 왕좌가 놓이게 될 장소이니까요. 이처럼 놀라운 책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놀라우신 분은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날 그 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 두 인간 사이에 주고 받은 말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언덕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아드님과 주고 받은 그 말 할 수 없는 심정 역시 어두움에 가려져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도 신성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들에게는 숨겨져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5월 31일

사라는 아브라함에 순종했음1

“주의 말씀은 옳으며”(시 33:4)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잠 30:5)

“모든 성경은 유익하여”(딤후 3:16)

오늘날 패역한 현대 사회가 여자들에게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는 사탄이 첫 번째 여성에게 했던 거짓 말입니다. 위에 인용한 세 말씀은 성경적 구원에 있어서만 사실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믿음의 영웅의 명단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두 명의 여인이(구약) 등장합니다. 하나는 싱글(미혼)여성인 라합이고 또 하나는 결혼한 여인인 사라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모든 결혼한 여인들의 본으로 제시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모든 여자들의 본으로서 베드로전서 3:1-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의 뜻을 주의 깊게 조사해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벧전 3:1, 4-6)

온유함(meek)이란 성질이 온순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아니하며 상처를 입거나 화를 돋우어도 잘 참으며 부드럽고 순종을 잘하며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일을 당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 갈 줄 아는 은혜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당신은 온유합니까?

조용하다(quiet)는 것은 안식하고 있는 상태, 동요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흥분해서 무질서하게 굴지 않는, 부드러운, 만족해하는 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성령의 통제하에 다른 사람의 행실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복종(subjection)이란 통제하에 놓이는 것, 즉 다스림과 지배하에 있는 것, 인생, 자유 및 소유에 있어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순종(obey)이란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이행하고 순복하고 명령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는 복종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여인들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인입니다. 배우자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영적 장식들로 단장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공부에서도 보겠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불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족한 남편 때문에 견뎌야만 했던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신뢰했고 이로써 배우자와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위한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6월 1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음2

베드로전서 3:1-6에 나오는 남편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likewise)”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18-25을 언급하는 것인바,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의 손에 악한 대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의 뜻에 순종하신 본으로 제시되어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여건에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 모든 인연을 끊고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때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사를 파라오의 손에 넘겨준바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멀리 전쟁에 나갔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웠습니다. 혼자서 집안을 돌보고 권속을 책임져야 했으나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떠납니다. 그는 제단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그는 밤새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라는 홀로 집에 남아 있었으나 사라는 여전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 받았습니 다. 사라는 90세였고 젊은 여인이라도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주님과 두 천사가 찾아 왔습니 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저녁 준비를 시켰습니 다. 그녀는 교제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분들과 대화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옛날에 했던 그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다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부녀들의 본으로 사랑을 택하실 때 주님은 위대한 여인을 택하신 것뿐 아니라 오늘날의 여성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 여인을 택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이제까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남정네들”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전형적인 여인네들”의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월 2일

믿음에 관한 토의

창세기 21:12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미래에 관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버지의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받은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 소망과 꿈을 갖고 있으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2에서 아들을 데려와 모리아에 있는 산에 헌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과 모순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이에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지는 것”마저 기록된 말씀에 어긋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

다. 그는 단지 신뢰를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19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것(그분은 공허이 많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으며 이삭의 출생에 관해 그가 알고 있던 것(그와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살아 있는 아이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붙들고서 다음과 같이 간주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셔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충분히 수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산에 올랐으며 이때 죽음마저도 그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정한 시점과 성취될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반드시 수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아멘.

6월 3일

사라의 죽음(창 23장)

사라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헛 자손 가운데 그녀가 매장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 매장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부활에 의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큰 슬픔이 있습니다.

2-4절: 나그네가 자신의 필요를 설명합니다.

12-13절: 아브라함이 돈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문제에 올바르게 못한 것입니다(딤후 3:7, 6:10, 고후 8:21, 롬 12:17). 값아야 할 것, 지불해야 할 것을 제때, 다 값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날의 사업거래와 유사합니다.

8절: 그들은 제3자를 통해 협상합니다.

11절: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합니다.

10절: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13절: 그들은 가장 정중한 형식을 갖추어 가격을 물어봅니다.

18절: 그들은 증인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 계약은 자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체결됩니다.

16절: 매장지의 가격 상승에 주목해보세요. 오므리는 사마리아 언덕 전체를 6000 세겔에 사들였습니다(왕상 16:24). 장례식을 위해 과잉지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족들이 어디 이번뿐이겠습니까?

6월 4일

창세기 23장에서 배우는 교훈

1. 아브라함은 불멸을 믿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에 대한 그의 돌봄이 입증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 몸(시체)을 어떻게 다루든 무슨 상관이었

습니까?

2.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이 땅을 상속시켜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 매장지로 추정되는 그곳에 회교사원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3. 그는 의인들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단지 땅 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 나이와 죽음과 매장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인은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은 아마도 자신의 실패를 기억나게 해 주는 쓰라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오랜 결혼 생활 후에도 여전히 사라의 죽음에 그토록 슬퍼하고 있는 모습은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남자가 우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16에서 하갈(여인임)이 그 땅에서 아들과 함께 쫓겨 났을 때 괴로워 운 적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로 인한 슬픔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라의 죽음과 그 땅의 소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의 이름은 19절에서 장례를 치를 때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장 9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묻을 충분한 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9을 보십시오. 언약과 관련해서 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소위 “만사형통”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많은 것을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 진리와 거리가 먼 것도 없으니까요.

6월 5일

이상한 주장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이론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30마일(약 48km)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2. 헤브론에 그들의 집이 있었고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창 13:18).

3. 아브라함은 농부였고 그의 우물들과 나무들이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창 21:22-34).

4.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자녀의 자녀를 위해 땅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창 13:17).

5.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 137세쯤 되었는데 그는 175세까지 삽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보다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내의 죽음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기대 수명치를 채우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일찍 죽게 되었을 당시, 분명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6월 6일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으려 감1(창 24장)

이번 장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를 구하러 가시는 모습이 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라고 부르는 어려운바 이는 많은 경우 예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 아브라함은 늙고 연로한 반면(1절)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 엘리에셀은 가장 나이 많은 종인 반면(1절, 다른 종들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성령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 천사들 중에는 신부가 없습니다(3절).
- 아버지는 성령님의 주인이 아닙니다(9절).
- 성령님은 물을 마셔야 시원하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17절).
- 성령님은 신부를 찾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21절).
- 성령님은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26절).
- 교회는 유모가 없습니다(59절).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서로 잘 들어맞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1. 종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고자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4절).
2. 여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5절).
3.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얻고자 두 번째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6절).
4. 종은 구하고, 호소하고, 초청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8절).
5. 아버지의 모든 부는 종에게 속해 있습니다(10절).
6. 종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수고합니다(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12절).
7.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신부는 아들을 위한 것이나 택함 받은 자는 그녀의 행동에 근거해(13절 이하) 선발되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또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9. 선발된 신부는 정숙한 처녀입니다(16절).
10. 아들의 부에 대한 보증은 종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22절).

6월 7일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으려 감2(창 24장)

11. 당신은 증인을 받아들이고자 하십니까(23절)? 당신만이 그를 집에 묵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12. 그녀는 그를 환영합니다(25절).
13. 입술로 고백하십시오(28절).

14. 그녀의 증언으로 다른 이들도 그를 영접합니다(29- 31절).
15. 그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그 종이 그녀에게 말한 것을 반복할 수는 있었습니다(30절).
16. 그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나 다만 그 종이 그녀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30절).
17. 먹기보다는 아버지의 메신저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지요(32- 34절)?
18. 첫 번째 증언을 믿고,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뒤 이어 따라 옵니다(35- 41절).
19.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해야 그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42-47절).
20. 당신은 신랑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자 하십니까(48절)?
21.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49절).
22. 그녀의 반응에 의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53절).
23. 종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54절).
24. 이때 옛 생활이 끼어 듭니다. 신부의 친족은 그녀가 그 아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지금 떠나야 하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옛 삶을 조금 더 살다가 가라!”
25. 그녀는 새로운 주인을 얻었으며 이에 지체하지 않으려 합니다.
26. 그녀는 아들과 함께 온 땅을 유업으로 물려 받게 됩니다(56- 58절). 그의 원수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60절).
27. 그 종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61절).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몰랐으나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만 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28. 가는 도중 그는 그녀에게 주인 아들의 기적적인 출생과 산에서 희생물로 바쳐진 것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온 것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요? 이에 그녀는 그 이야기로 인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9. 그녀는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64 -65절).

30. 그녀는 그녀의 민족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랑 앞에서는 그것마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숨겼습니다(65절).

31.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가렸다고 합니다(65절).

32. 그 종은 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66절).

33. 그리고는 신부를 제시 합니다(66절).

34. 그녀를 위한 거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67절).

35. 결혼식이 치러지고 그 아들은 기뻐합니다(67절).

36.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67절).

37. 그 종은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24:15에서 청지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이사야 65:24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서 그 청지기는 자신의 기도를 기억에 의존해 반복했지만 정확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실제 기도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12- 21절). 이것은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커다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록했다면 두 곳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고쳐 놓았을 테니까요.

48절: 경배는 충만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기도는 텅 빈 마음의 갈망입니다.

6월 8일

짝을 선택함 1(창 24장)

모든 처녀 총각들(single)에게 위대하고 실제적인 교훈이 바로 이 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이삭도 리브가도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의무와 책임에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짝을 찾고자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해 버리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그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2. 이교도(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동등한 멍에를 메지 않을 자들이 여러분 앞에 자주 출몰할 것입니다.

3. 불신자와 결혼하면 장인과 충돌을 빚고 말 것입니다.

4. 같은 노선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3절). 교리적으로, 실천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짝일수록 함께 걷기가 쉬울 것입니다.

5. 현대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민족, 확신, 문화, 경제 수준 등등은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작부터 극복해야 할 차이점이 너무 많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란 더 어려울 것입니다.

6. 일단 마음을 정하면 믿고 나가세요(5-6절).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

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싱글이 더 나았어’ 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싱글로 있으면서 결혼하면 좋겠네’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7. 하루(데이트)를 당신과 함께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과 인생을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8. 여자는 안전을 원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필요는 중요합니다(10절).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적절히 돌보기 위해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음식, 옷, 주택 등을 공급하십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9. 기도하세요(12절).

10.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13-14절).

11. 성품에 관해서 기도하세요(13-14절).

12. 성적 순결은 중요합니다(16절).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1) 하나님께 순종하고
- (2) 자제력을 갖추고
- (3) 세상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며
- (4) 건강함

이것을 하나라도 가버이 여긴다면 당신은 무척 느슨한 사람입니다.

13. 아름다워야 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16절). 배우자는 평생토록 볼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에게 이끌리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 정중해야 하지만 물을 건 물어야 합니다. 성품을 테스트 해 보세요(17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반려자를 찾을 때보다 차량, 의복, 혹은 낚시도구를 구입하는데 더 열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15.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18-21절). 잠언 31장은 게으른 여자가 갖추기에는 불가능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웨딩 케이크를 잘랐다고 해서 게으른 청년이나 느슨한 처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꿈은 일찍 깨는 것이 좋습니다.

16. 이 땅의 재물은 다 바칠 준비를 하십시오(22절). 당신의 것이 전부 배우자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만약 상대방이 지갑을 따로 갖고자 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혼전 합의에 서명하고자 하거나 자기 배우자보다 자기 돈을 더 사랑한다는 다른 증거를 고집한다면 계속 지켜 보십시오.

17. 부모님과 상의 하세요(49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구원받았든 아니든 간에 여전히 자기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18. 결정은 여자가 내립니다(58절).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19. 결혼 전까지는 사적 관계(스킨십 등)는 안 됩니다(67절). 마귀에게 기회

를 주지 마세요.

6월 9일

짝을 선택함 2(창 24장)

어떤 분들은 이번 장에서 구혼과 사전에 준비된 혼인에 관한 독특한 이론을 이끌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혼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자고 하는 그 어떤 분과도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시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24장을 그 근거로 사용하나 이는 다음 사항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1. 이것은 부모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제3자와 한 처녀 사이의 합의입니다.

2. 그 소녀는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처녀는 선택권이 없으며 아버지가 짝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론(특히 그녀의 나이와 그녀의 아버지의 도덕상태와 아무런 상관없는 무조건적 선택)은 창세기 24장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호자가 동반하는 데이트 같은 것은 이 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독자

와 함께 시범기간을 갖는 것이나 가족간의 교제와 함께 하는 것 등은 좋은 일이고 추천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창세기 24장이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4. 약혼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만난 당일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24장을 그대로 따라 그 방식으로 결혼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제 평생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6월 10일

낙타들에 관하여(창 24:10-11)

10마리 낙타는 이번 임무수행에 있어 그 어떤 능동적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번 여행의 참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몫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낙타는 성경에서 때로 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낙타는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 전파사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차, 배, 비행기 등을 통해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들의 인색기는 복음관련 책자들을 찍어냅니다. 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돈으로 필

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세상이 더 풍요롭게 될수록 복음 운동 역시 더 쉽게 전개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손에 놓아 주신 것이요 이들은 그들이 원할 때 이런 것들을 뭐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낙타들을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11절) 이것은 복음선교의 가치 있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들은 이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했고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은 짐을 부리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무릎을 꿇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전파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기독교 국가일 수는 없으나 복음이 많은 정부로 하여금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시적이거나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도시밖” 세상 사람들이 복음 운동에 줄 수 있는 도움은 초기에만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만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 진실된 의미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물 곁에서” 이곳은 기다려야 할 장소이며 모든 복음 운동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샘 곁에서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며 자신 앞에 놓인 그 사역을 위해 힘을 얻고 소생하기 위해 성령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저녁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나갈 것이고(요일 2:17, 고전 7:31) 그들의 사업도, 활동도,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또한 정죄의 밤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바로 그 때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그 때입니다. 실제로도 저녁때가 복음 전파에 있어 하루 중 최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저녁때에 더 깊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염려가 지나가고 그

들의 생각이 더 집중되기에 적절한 때가 저녁이지요.

창세기 22:16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시며 약속들을 다시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나오는 것으로 매우 엄숙한 맹세임을 뜻합니다(사 45:23, 렘 22:5, 49:13, 히 4:13-14). 이 약속들은 앞서 주어진 약속들(창 12:2-3, 13:16, 15:5, 17:4-8)과 비교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월 11일

그두라와 하갈의 자녀들

이들 자녀들은 땅의 축복이 주어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들 여인의 아들들은 미래에 있을 이방인들의 복종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예표인 리브가의 뒤에 나타나는 그두라의 아들들은 천년왕국 때의 민족들을 예표합니다. 불순종하는 (그러나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이스라엘 (앞선 과들을 보십시오)의 분명한 예표인 이스마엘의 씨와 더불어 이들은 아브라함의 나머지 가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녀들을 낳은 첩들(6절)과 사라의 여종(12절)을 상고해봅시다. 첫째, 구약 때에는 첩을 두는 실행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내들을 늘리지 못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둘째, 어떤 사역자들은 성관계가 곧 결혼이라는 주장을 하는바 이는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어쩌면 본인들의 결혼 실패의 원인이 이런 교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적 답변을 찾아보십시오. 과연 성관계로 결혼이 성립되는가?

1. 이런 이상한 교리는 한 남자와 창녀가 결합하면(고전 6:15-18) 한 몸이 된다는 한 구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구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십시오. 이들의 연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것으로 떠남과 결합을 포함합니다(창 2:23-24). 이것은 항구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남자가 창녀와 연합하면 한 육체이다. (“is”라는 현재 시제는 “일시적으로”를 뜻합니다.) 반면 창세기 구절은 인간이 자기 아내와 연합하리라 (“shall”은 미래시제로 “항구적 연합”을 말합니다)고 합니다.

2.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영원한 연합(엡 5:21 이하)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연합은 관련이 없습니다.

3. 만약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고 한다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간음은 곧 결혼이 될테니까).

4.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남자는 있었으나 남편은 없었습니다(요 4:18).

5. 만약 남자가 소녀를 강간하면 그는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신 22:28-29). 만약 결혼이 성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이 소녀는 이미 그의 아내인 셈인데 뭐하러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6.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는 처녀로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마 1:18-25). 성적 연합이 없었으나 아내를 갖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7. 창세기 34:1-5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관계를 갖고서 그녀를 아내로 삼기 원했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와 잤는데도 그의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8. 밋세바는 다윗과 관계를 가졌으나 여전히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육체와 육체의 결합의 결과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9. 이 장에 언급된 여자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직접적 관계를 통해 아이들을 낳았지만 오직 사라만이 그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성경과 씨름하면서 자기 죄들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차라리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6월 12일

창세기 25장 목상

1절: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는 역대기상 1:32에 언급되어 있는바 여기에는 그녀가 첩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직 살아 있던 동안에는 그녀가 2등급 아내로 분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술은 항상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절: 이 세상을 계획하는 자들은 주목하십시오. 중동정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은 단 한 조각의 땅도 이스마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는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5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5)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요 13:3)

8절: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다시 한 번 성경기록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당시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습니다(21:5). 그리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25:20). 이삭이 60살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25:26). 이는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십대가 되었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후 성경 기술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9절: 비록 두 아들(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보지 않았을지라도 각자 아버지와는 접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 13일

신실한 자들의 아비 1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전개 되어가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성품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도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후세에 있어 깊은 인상과 탁월한 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창설자로서의 위치와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의 본과 예표로서 그의 성품은 실로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성경 어느 곳에서 언급되든 간에 그는 항상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화적 영웅”으로 여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실존한 인물이요, 창세기에 기록된 삶을 살았으며 유대민족을 직접 확고하게 세운 역사적 인물임에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언약(출 2:2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후일에도 자주 언급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성한 칭호(출 3:6)

“나는…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 호칭은 영적인 실재와 복으로 충만한 호칭으로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16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귀중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한 호소(사 51:2)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보라. 이는 내가 네게 그 뭇을 주었음이라.” 여기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향후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기초로 상기시키고 계시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포로로 잡혀간 그의 백성 또한 복을 주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성경의 진리들의 초석입니다.

명확한 청원(왕상 18:36)

“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의 근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상숭배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세 또한 비슷한 청원을 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소서”(출 32:13, 신 9:27) 믿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신실하셨음을 근거로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복되고 거룩한 권리입니다.

독특한 관계(대하 20:7)

“주의 친구 아브라함”(사 41:8 참조) 아브라함만이 이와 같은 위대하고도 독특한 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라비아에서는 엘칼릴(EI Khalil,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가 아브라함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특히 시편)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련된 풍성한 영적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그의 인생기록

우리는 다시 한 번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아브라함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이든,

로마서 4장이든, 히브리서 11장이든, 그 외의 성경기록 그 어디에서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의 증언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을 대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요 그 의미 그대로를 뜻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메시아와의 관계

마태복음에 주어진 주님의 족보는(마 1:1 이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로써 메시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첫째 복음서에 나와있는 이 같은 사실은 메시아의 역사적 뿌리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메시아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영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요 8:56). 이날이 과연 언제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두고 보자면 아브라함은 모든 약속들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바로 그분에 대한 영적 환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과의 관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 대해 갖고 있는 민족적, 그리고 개인적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마 3:9, 요8:39). 불쌍한 여인 한나는 주님께 의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린 바 있었습니다(눅 13:16).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미래는 아브라함의 품(눅 16:22)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민족이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

심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위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와 같은 족보에 대한 집착으로 영적인 면을 배우고 닦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6월 14일

신실한 자들의 아버지2

앞서 언급한 구절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다음에 살펴 볼 구절들은 특별한 영적 가르침을 전달할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언급된 것들로 한 구절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핵심사항을 담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의한 의로움(롬 4장)

이 장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에서의 의로움은 창세기 15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칭의 이상을 의미하는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갈 3장, 4:22-31)

갈라디아서의 핵심 사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신 믿는 자들로 된 위대한 영적 씨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서 믿음을 통해 얻

게 되는 아브라함과의 영적 친족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며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삶(히 11:8-19)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 2:4)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세 번 인용 되었는데(이때 “자기”는 성령께서 빼고 인용하신바 자기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과의 차이 즉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이시고자 합니다.-역주). 매번 특별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17에서는 “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살리라”를 강조하는 반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는 성도의 삶의 능력과 원칙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믿음의 태도가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9절), 믿음의 기대(10절), 믿음의 헌신(17절)등입니다. 전 구절이 아브라함이 매일의 삶의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믿음을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들(약 2:21-24)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합니다. 반면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5년 동안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창세기 22장 당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있었을 때로 이는 그가 이삭을 바친 것으로 입증됩니

다.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 하였느냐?”(약 2:22) 그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한 것 같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 ‘혼자’ 뿐이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

6월 15일

신실한 자들의 아비 3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총괄 정리해 보고 하나님의 관점과 그의 관점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확인해 보시지요. 우리는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생 최상의 특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드높여지고 그분의 세상을 향한 계획(축복)을 함께 수행하는 교제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 특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눅 20:37)이라고 불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죄의 구덩이에서 꺼내 드높이시고 높은 특권의 지위까지 일으키사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능력을 주시기까지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옛 생활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2. 인생의 강력한 기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삼하 23:5)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의 기초이며 모든 참된 소망의 원천입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입니다(히 8:10-12).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는 자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과 맺었으며 성령에 의해 그에게 인치신바 된 그 영원한 언약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강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보다 더 실제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발 밑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가라앉는 모래가 아니고 단단한 반석입니다.

3. 인생의 가장 큰 영광

하나님께 신실한 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키고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선함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겸손하고 지속적이고 열심인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볼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실제함을 증언했습니다.

4. 인생의 단순한 열쇠

모든 복을 가져오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

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으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재생산해 냅니다.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모든 나머지 것들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순한 인생 비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6월 16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 주제

창세기 25장 첫 열한 구절에는 35년 간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했을 당시(창 21:5) 10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창 25:20),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창 25:7).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25년간을 10장에 걸쳐 할애하여 기록하셨건만(12-21장) 여기 보니 35년간의 인생은 단 열한 절만을 할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언약은 핵심적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기록 중 거의 모든 것이 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1. 언약은 체결되고, 봉인되고 맹세로 확증되었다.
2. 언약의 땅에 언약의 가족을 위한 매장 장소가 보장되었다.
3. 언약의 아들(이삭)이 그 언약의 영구성을 보증할 합당한 아내를 얻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기 35년의 인생은 언약과 관련해서 덧붙일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그치신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요셉은 맹세를 했습니다.”(창 50:25) 이것이 히브리서 11:22에 언급되어 있는 요셉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창 12:7, 13:14-15, 15:18) 이삭에게 하신 약속(창 26:3-4),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창 28:13, 35:12, 48:1-4)을 들었고(롬 10:17)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세 이름은 연합되게 됩니다(출 2:24, 3:6, 6:3, 신 11:21, 시 105:9-10 등). 요셉이 야곱에 행한 그대로(창 49:29-30, 50:7-13) 그에게도 그대로 행해졌습니다(출 13:19, 수 24:32). 이로써 이 민족의 전 역사는 이 언약과 연관됩니다.

6월 17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창 25:13-16)

우리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관해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하나 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돌보셨으며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느바웃: 그의 후손은 양을 키우는 자들로 이사야 대언자에 의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사 60:7).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8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쳐진 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내뿜겨졌으나 그의 후손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계속 거하는 경우에만 자식이 그 죄들을 짊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게달: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양치기로서(겔 27:21), 믿음을 통해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사 60:7). 이들은 구약에 몇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시 120:5).

두마: 이사야는 이들에 대해 신비로운 언급을 했습니다(사 21:11,12). 이들은 에돔과 이두메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마: 이들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예레미야에 의해 드단과 연관지어 등장합니다(렘 25:2). 욥기에서는 세바와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욥 6:19).

성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분명치 않은 종족이나 민족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간주하시는 것과 인간 역사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6월 18일

야곱과 에서(창 25:19-34)

1. 이들의 출생

- (1) 이삭은 40에 결혼합니다(20절).
- (2) 그는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21절). 리브가가 불임이었기에 그는 믿음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뿜겨야 했습니다.
- (3)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21절).

- (4) 이때는 결혼 20년째였습니다(26절).
- (5) 이 상황은 본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22절).
- (6) 에서는 “털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25절).
- (7) 야곱은 “찬탈자”라는 뜻입니다(26절).

2. 장자권을 팔아버림

- (1) 장자권은 4가지 복을 가져다 줍니다.
 - a. 아버지의 복
 - b. 가족의 머리로서의 지위
 - c. 메시아의 노선에 놓이게 되는 영예
 - d. 가정 제사장의 지위
- (2)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성품(27절)
 - a.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으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 b.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 (3)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간에 적대감이 생겨났습니다(28절).
- (4) 에서는 야곱의 죽을 갈망합니다(29-30절).
- (5)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합니다(31절).
- (6)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32-34절).

3. 두 종류의 죄

- (1) 에서는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였고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후일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후회했으나 자신이 행한 짓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히 12:16).
- (2) 야곱은 늘상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일생내내 그의 “계

획”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군요. 창세기 25:23에 비추어 보면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4. 멸시하는 자들

- (1) 이스라엘은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습니다(시 106:24).
- (2)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말 1:6).
- (3)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습니다(암 2:4).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파니라…그가 먹고 마시니라.”(창 25:33-34) 에텐에서의 금지된 열매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식이 이 팔죽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입장에서 보자면 창세기 25장은 땅의 백성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 19일

에텐의 성격적 특징

1.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시적 욕심을 먼저 구하는 욕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창 25:19-32).

- (1) 그에게는 씨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 (2) 그는 팔죽 한 그릇에 메시아와의 관계를 거부한 셈입니다. 에텐에서의 선악과 이래로 최고로 비싼 식사였습니다.

2. 그는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창 25:33-34).

(1)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음에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2) 리브가 역시 죽은 상태였지만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3) 에서 또한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자식 없이 죽을 수는 없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3. 그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그분들의 뜻을 거스릅니다(창 26:34-35).

4. 그는 회개도 않고 복을 구했습니다(창 27:30-41, 히 12:12-17). 그가 운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5. 그는 자기가 보기에 심판 받아 마땅한 만큼 심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쓴 뿌리를 지녔습니다.

(1) 그가 쓴 뿌리를 갖게 된 것은 야곱이 그에게서 훔쳤는데도 벌을 받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마 5:43-48, 6:14-15를 보세요).

(2) 이 쓴 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졌습니다(민 20:14-21, 히 12:15 참조).

6월 20일

창세기 묵상(26:1-16)

1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장소에 있어 성경적 원칙은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장소로 데리고 가셨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이 있게 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3-4절: 땅의 관한 약속의 반복.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부동산(그 땅) 권리증서를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넘기셨습니다. 둘째 출생(영적 출생의 예표)이야말로 상속의 노선이며 첫째 출생은 상속 노선이 아닙니다(육신적 출생의 예표).

5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많은 실패를 지적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데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존중해 주시는바 그 한 가지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결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인간의 신뢰만이 그분의 호의를 얻기에 충분합니다(히 11:6).

6-7절: 아버지의 죄들이 아들에게 반복됩니다.

8절: 여러분의 행실은 결국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인지 거짓말쟁이인지를 입증해 줄 것입니다. 가면은 그때까지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10절: 한 아내에게 있어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더럽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그것도 목숨을 구하고자)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27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속임수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절: 이것이 모든 씨 뿌리는 자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눅 8:8, 마 13:23).

13-15절: 부는 위험한 장식품입니다.

6월 21일

우물을 막아버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창 26:15)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생명의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마귀와 세상의 끊임없는 노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상고해 본다면 충분히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설립한 단체들마다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혹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탈취되어 결국은 복음전파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들은 원래 미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오늘날은 반성경적 자유주의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YMCA(기독교 청년연합회)가 이제는 사회클럽이 되어버렸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납니까? 한때는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단체였었는데 말입니다. 한때 신실했던 감리교와 장로교 단체들 역시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성인권, 동성애자 인권 등과 같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마저 설교자 양성소에서 경영자 양성소 및 인문학 센터로 탈바꿈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캠퍼스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음악 역시 사역이 아닌 사업이 되어 버렸고 이로써 사역이 말씀 중심에서 “음악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물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회복음과 파괴적 비평이라는 흐름으로 막혀 결국 닫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돈을 사랑함(딤후 6:10)과 둘째 계명(이웃 사랑)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첫째 계명(하나님을 사랑함)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6월 22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블레셋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번영을 보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인들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되었고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16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양측의 원칙은 상반되고 세상은 자신의 견해와 목표가 이들에 의해 방해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떠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16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어 세상의 삶이 경건치 못하고 피상적임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오기까지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때 이들은 회개하는 대신 선한 자들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다니실 때 목격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요 15:22).

“**이삭이 그곳을 떠나**”(17절) 이삭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마 8:34-39, 막 5:17-18). 성령께서도 그분의 임재를 원치 않는 곳에서는 머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삶 안으로 강제로 들어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17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형을 제시한 셈입니다.

6월 23일

창세기 26:18에 관하여

“**다시 뚫으니**” 이삭의 믿음과 끈기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원수들이 막아버린 생명의 물의 근원을 다시 열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또한 자주 이와 같은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및 개인 생활에서 생명수가 흐르다가 인생의 염려와 육신의 간섭으로 인해 막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삭처럼 생명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21:25을 볼 것) 이 구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파괴적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우물들을 뚫고 똑같

은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창세기 20장과 26장은 두 가지 다른 전통으로 동일한 원문에서 출처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찢던 것을 다시 파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바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진리를 불신하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사라지자, 원수들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전한 경고를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행 20:29-30)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옮겨가는 경우 그 교회는 쉽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정은 세상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룩된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앞선 세대의 사역을 더 확장하고 생명수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원수들과 싸우고 같은 부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그 우물들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만한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옛길로 돌아갔고 옛 방식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옛 이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일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역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승화하여 자신이 합법적 상속자임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역본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옛것으로 여전히 충분합니다.

인류역사 6000년 동안 그 누구도 물을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업적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묘사하고자 택하신 이유입니다. 물은 개선할 수가 없으며 개선된 적도 없습니다.

첫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 동일하게 오늘날 역사합니다. 동일한 성령과 보혈이 그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담자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도, 적극적 사고방식도, 쉼 기대회도, 새로운 교리도, 새로운 계시도, 새로운 휴거날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옛 우물을 파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하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여전히 물을 사랑합니다.

6월 24일

“우물을 위해 투쟁함”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창 26:19) 사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수를 발견하거나 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은 있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많은 수고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일상 생활을 예표하는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며 영적으로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은 바로 이곳 즉 골짜기입니다.

“솟아나는 우물”(26:19) 우물가에서 죄악 된 여인에게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요 4:14) 라고 말씀하시

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끌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26:20) 원수들은 우물을 판 종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 우물을 사용한 목자들을 대적했습니다. 목자들은 목사들에 해당합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 떼의 주인들은 생명수를 갖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것을 취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음 사역의 역사에 있어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성경 및 찬송가 인쇄를 진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세속 출판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 방송이었던 것이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브로커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단들은 기업이 되어버렸고 기독교 서점 역시 그러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라디오나 TV도 역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업자가 동시에 외설 잡지사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슬프지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음반업자 역시 사탄적 음악을 보급하는 동시에 복음성가도 보급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면 짙은 화장을 한 여자 설교자가 창녀스타일의 가발을 쓰고 으쓱대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흑인여자처럼 노래하려고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말의 상식이 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끔찍한 모습에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들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 중 웬만한 사람은 출연기회를 얻고 싶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섹”(20절) 에섹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특권을 써먹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21절) 동일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가 요구되었으며 동일한 쓰라린 결과가 도래하였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 이런 과정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은 콘스탄틴 대제 시절 복음의 대적들이 초대교회를 삼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고 극소수의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professing)” 기독교만 남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우물을 팠고 로마 가톨릭 체제 속에서 기갈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샘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 동일한 대적들이 개혁교회들을 다시 체포해 부패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들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도주하던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파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들은 남침례교회가 세속화에 함몰되는 속에서 빠져 나왔으나 동일한 오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또 다른 우물을!

물은 여전히 좋습니다. 파내기만 하면 됩니다.

6월 25일

“씻나”

“씻나”(21절) 이것은 “증오”를 의미합니다. 다툼은 늘어났고 쓴 뿌리는 배가 됩니다.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22절) 이것은 이삭의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원수들이 빼앗아간 우물을 놓고 싸우지 않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빼앗겼던 그곳에다 다시 우물을 파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대적들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교회들에 속아서 “만약 내가 이곳에 남아 있으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고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일단 교회가 자유주의로 물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교단이 일단 정치화되고 상업화되면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단히 위대했으나 로마 교회가 개혁되리라는 그들의 오판도 대단히 “위대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보다 더 뛰어난 그 어떤 사람도 죽어버린 영국 교회를 그 어떤 부흥으로도 살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성경과 신실함을 매일 주일 아침 “사회 활동 동호회(social club)”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 회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운동 경기와 파티가 도입되면 기도와 거리설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NIV가 일단 강대상으로 진입하면 별거벗음(옷차림)과 부도덕을 질책하는 설교는 사라집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결과는 그저 싹다- 즉, 다툼과 쓴 뿌리일 뿐입니다.

친구여!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무덤에다 던지지 마세요. 옛 우물이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됐다면, 옮겨가십시오. 새 우물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6월 26일

“르호봇에서 용기를 얻음”

르호봇은 방(자리)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인들로부터 분리한 결과 야곱은 두 가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1)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창 26:22) 이제 이삭은 대적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fruitful)” 이제 이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가 거기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23절) 그는 언약이 체결되었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우리는 이삭이 분리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24절) 어쩌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코자 마음 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 분이 약속이 기초하고 있는 근거에 관한 진술 (2) 격려 (3) 자신이 약속하시는 이유와 함께 격려하시는 세 가지 이유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시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율법하에 놓인 자들이건 복음하에 사는 자들이건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악과 위협으로부터 아버지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를(믿는 자를) 이끄시어 오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으로 데려가실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범위는 무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권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으며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분의 임재를 동반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목적을 제공해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복과 번성은 너무도 밀착되어 있어 거의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곳에는 늘 성장과 증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약속이 주어졌던 그 어떤 사람 때문이지 이삭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엡 1:3).

6월 27일

네 가지 행동

창세기 26:25에서는 이삭이 취한 네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것으로부터 결코 시야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로의 부르심이요(고전 11장), 매일의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하며(벧전 3:15),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 동시에 찬양의 희생을 계속 바쳐야 합니다(히 13:15). 동일한 제단 위에 바칠 다른 희생들도 있는 바 예를 들면, 재정적 헌신이 그것입니다(빌 4:18). 이와 같은 희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히 13:16).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은 주님의 이름이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했고 또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삭은 자신의 의무를 그분께 행할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절대적으로 표명한 셈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 동안 우리는 경배의 장소 근처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로부터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생명의 물의 샘이 우리를 온전히 상쾌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영을 지니고 있을 때입니다.

종들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에 의해 섬김을 받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들의 종이요, 우리 또한 그들의 종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 전체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엡 4:11-16).

6월 28일

조약 1

우리는 창세기 26:26-33에서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우정의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비멜렉이…그에게로 가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복이 이삭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좀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벧전 3:15). 문제는 이런 일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랄에서” 그는 상당한 거리를 여행했는데 이는 그가 매우 열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후삿과” 이 또한 이삭의 경건한 삶을 더욱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아비멜렉의 갈망이 실제로 매우 컸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친구들 중 한 명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찾아왔으며 그분의 종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께서 그리하셨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를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 그 시대는 실로 대단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은 이 조약을 아주 성대하게 체결하고 싶었고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매우 심각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자신의 측근 중 한 사람을 대동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므로…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책망에 가깝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증오심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임을 암시하면서 그들이 어찌해서 오는지 그 이유를 묻는 중에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일 3:13) 세상은 구원자이신 분을 먼저 미워했습니다(요 15:18). 그와 같은 미움은 사악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될 최고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셨거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임재에 안달이 나며 가능하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고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임재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니까요.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멀리 보내려 했고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종을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 버리라. 그를 살려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행 22:22)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비멜렉과 그의 일행은 과거에 그들이 이삭을 미워해서 내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축복은 때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권능 있고 평화로운 모습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레셋인들은 이삭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삭과 동행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돕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새로운 회심자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그의 간증을 강력히 거부하며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새로운 성도의 기쁨에 찬 안정된 모습과 그의 삶에서 지속되는 주님의 축복을 몇 년간 지켜보게 되는 경우 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멸시했던 그 성도를 찾아오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6월 29일

조약 1

“맹세를 맺자” 블레셋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 분명한 사람과 대적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복음에 대해 보여주

는 것 같은 결단과 결심을 하였고 이로써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자” 마찬가지로 많은 이방인들이 죄들의 사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 26:28).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번에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하던 것과는 달리(창 21:22-32를 볼 것) 것처럼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요구사항을 보면 그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갈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내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삭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만행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은 민족들은 이들이 자기 교회를 기독교라 하니까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언론과 오락산업이 합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면 개개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선교사들이 장기적으로 신실한 간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야 하고 그들과 십자가 사이에 놓여진(사탄에 의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6월 30일

조약 3, 죄악에 찬 인간의 소경 됨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사실 아비멜렉의 종들은 지난번 이삭이 발견한 물을 두 번이나 빼앗은 적이 있었기에 이 말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 남의 죄는 잘, 길게 기억하지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이 진술은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아버렸고 이삭이 그 자리에 다시 판 것들은 빼앗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들은 또한 시기와 증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비멜렉의 진술은 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example)”인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은 이삭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를 속여 그를 잘 대해준 것으로 믿게끔 만든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각하게 어기며 살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결코 충격을 받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걷는 도다.” 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군요. 그는 이삭을 질시하며 보냈습니다(16, 27절). 아비멜렉은 이것들을 실제로 믿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삭을 설득시켜 실제로 일어난 것과 정반대의 것을 믿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도둑질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둑들이 있지 않은가요? 어떤 간음을 저지른 자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맹세하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큰 잘못을 저

지르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인간은 장님입니다.

7월 1일

조약 4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29절)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나 그는 이에 대해 시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너무도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자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축복만 나누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30절) 이것은 이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득을 제공하나 고마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눅 6:35). 하나님과 참된 언약관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결국 잔치가 됩니다(계 3:20). 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남녀를 얼마나 축복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30절)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 음식을 먹는 일에 동참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 받았다는 것을 시사할만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31절)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 “일찍”이라고 번역한 “betimes”는 “이윅고”라는 뜻도 있음-역주) 이 “이윅고”라는 뜻은 협상이 길고 지루했음을 암시합니다. “betimes”란 자주 혹은 “계산이나 숫자와 상관없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믿는 사람과 계속해서 협상

하여 이런 저런 부분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서로 맹세한 뒤에”(31절) 그들은 엄숙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동기는 두려움과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삭의 축복이 자신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삭의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축복은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죄인의 저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유익과 이익이 됩니다. 이삭의 동기는 블레셋인들이 자신의 축복을 나누어 갖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7월 2일

조약 5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31절) 그들은 서로 떨어져 평화롭게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떠돌이 이삭의 친구가 될 마음이 없었고 이삭 역시 이교도와 함께 정착하기 위해 순례자의 장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반면(고전 6:17),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31절) 그들은 비록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보시다시피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에 의해 도전을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겪게 될 일보다 더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물

론 수십 수백 명이 깊은 인상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들은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이에 그것을 반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와 화평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정도의 태도를 취하면 자신들도 영적 축복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처럼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날”(32절) 우물의 발견이 당일 날 있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찾았나이다.”(32절) 죄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관용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복 받을 마음이 열린 셈입니다.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잠 11:25)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기를 해친 자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들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은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4)

7월 3일

그리고 에서

우리는 창세기 26:34로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을 떠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서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혼인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겪은 근심 등에 대

해 언급한 후 축복의 탈취, 에서의 적개심, 그리고 야곱의 탈출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십세에”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했던 나이와 같습니다(창 25:30). 홍수 이전 시대의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창 10장) 이들의 나이는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수명보다는 두 배 가량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창 25:7, 35:28), 그리고 야곱이 147세(창 47:28)까지 살았으니 에서의 40세 나이는 오늘날로 치면 25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헛 족속은 아브라함이 혼인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사는 가나안의 거주민이었습니다(창 24:3). 에서는 장자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헛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부름 받은 바로 그 순례자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적 삶을 살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혼인은 오랫동안 헛 족속과 가까이 지내온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브에리가 자기 딸을 타국인에게 주었을 리 만무하니까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이 혼인은 결국 에서가 속된 사람 즉, 세속적 사고방식을 지닌 자였음을 입증해주는 셈입니다(히 12:16).

7월 4일

본래 진노의 자녀들...

“그리고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에서는 홍수 이전시대의 라멕처럼(창 4:19) 일부다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거부할 수 없는 자였으며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런 저런 혼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를 음행하는 자(히

12:16)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생각은 세상과 육신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경건한 부모의 자식이요 택함 받은 민족 가운데 태어났으나 그는 그가 태어난(시 51:5, 58:3)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특징과 성향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연적 출생을 통해 경건함을 전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 역시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중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뿐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채로 태어난 자들은 영적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당사자가 합당한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눅 1:15, 44). 그러나 요한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요(마 11:11). 어린아이 때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그의 위대함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는 예외이며 예서의 경우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26:35 아들의 잘못된 아내 선택으로 상처 받은 부모의 경우는 사사기 14:3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흔한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7월 5일

야곱의 등장

야곱이라는 이 놀라운 사람에게 있어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그의 생애가 너무도 대조적인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모세, 다윗, 이사야 및 바울, 요한 등을 보면 이들 역시 잘못과 죄가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들의 성품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하나님께 바친 헌신의 모습에서는 그 죄들은 다 잊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콥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탁월한 차분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기질이 눈에 띄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야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경건과 자신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목표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이기적인 성향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콥은 처음에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조심성, 머뭇거림, 그리고 의심하는 태도 등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치사하고 경멸스러운 수단도 기꺼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야콥은 실로 두 본성이 극도의 대조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모세, 다윗, 바울)중에서 20장이나 할애 받고 있는 사람인 야콥이 별로 회자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말씀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야콥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너무도 쏙 빼 닮았습니다. 우리는 야콥의 인생사를 주의 깊게 숙고해 볼 것이며 성령께서 이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7월 6일

야곱의 인생의 단계들

야곱의 생애는 일곱 단계로 구성되어있는바 매 단계별로 훈련과 징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강력한 사고와 의지를 지닌 어머니의 영향하에서 집에서 보내었던 시기.
2.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어쩌면 생애 최초로) 갖게 된 벧엘에서의 위기.
3. 라반을 섬기던 시절. 이 시기는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징계의 기간으로 후일 나머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4. 브니엘은 그의 생애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집(벧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엘벧엘)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여호와께 넘겨 드림.
5. 그럼에도 세겜에서 타락의 시기가 닥치게 됨. 이 시기에 자신과 가족 모두가 시련과 슬픔을 겪게 됨.
6. 얼마 뒤 벧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호의와 교제를 회복하게 됨. 또한 영적 도약을 이루게 되며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만큼 확고한 입지를 굳힘.
7. 이집트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차분하고 조용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음.

우리는 야곱의 인생 전부를 한꺼번에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깨달음대로 행동했을 때마다 죄와, 혼동과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큰 압력(스트레스)이 가해져 어쩔 수 없게 될 때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던 순간마저도 기쁨이 없었으니 이는 자발적인 순복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복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사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7월 7일

부모간의 갈등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창 27:1)

“이삭이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창 27:5)

이삭의 시각은 둔해졌으나 리브가의 청각은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뛰어난 아들로써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명백한 분열이 있었으며 이는 본문의 단어들을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야곱에 대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반면(6절), 에서에 대해서는 이삭의 아들(5절)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보여 줄 때 건강하고 강건한 자녀들이 집안 전체의 공동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부부에 의

해 양육되는 법입니다.

부모 중 한 쪽은 한 아이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고 또 다른 쪽은 다른 아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면 이와 같은 편애는 결국 분열과 불화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 간의 간격이 벌어짐은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여자나 남자나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자들에게만 잘해 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이 한 육체가 되어 자녀들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라든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녀라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행위에 기초해 다르게 보상하시지만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복 주십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과 은혜는 모든 자녀를 위한 것으로 아바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 다든가 덜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7월 8일

사냥한 고기(혹은 사슴 고기, 창 27:7)

사슴은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는 있으나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신 14:5).

이 사실은 이삭과 그의 가족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합법적이기는 했으나 희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안락하고 순전한

방식으로 존경 받을 만한 삶을 영위하였으나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가족 각 구성원의 모습이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부모의 편애가 있을 수 있고 에서가 세상으로 떠내려가 육신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행위 역시 이해가 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로써 야곱의 이야기는 이와 더불어 전개될 것입니다.

가족의 생활 기준에 있어서는 부정한 것은 전혀 없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에서의 죄는 부모 모두에게 슬픔거리였습니다(창 26:35, 27:46). 그러나 여기에는 희생적 삶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from) 분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unto)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 분리야말로 참된 성화입니다.

기독교가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버려 사람들은 교회가는 것 정도면 섬김과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괜찮은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에 영화보고 일요일 아침에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잘 어울리는 풍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소위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7월 9일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터이니”(창 27:12)

야콥은 실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보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인다(seem) 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선은 너무도 흔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정, 신뢰 혹은 기타 여러 관계들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꾸민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여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알뜰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인정을 얻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영적인 여인이 되기보다 영적인 여인처럼 보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 바 이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비밀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들추어 내시는 데 익숙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순전함, 그리고 존중 받을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조만간 미끄러집니다. 자신들이 속이려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가면 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지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도덕성과 섬김 혹은 자녀 양육 기술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체들 중 얼마는 동시에 가장 분열적이고, 가십을 전하고 교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감언이설이 매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약간의 경고의 언질만 주어도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씩 상처를 입고, 속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거짓 비방을 받게 되는바 소위 그토록 영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분들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그들을 경고할 때 막았던 사람들이 왜 그것을 알리지 않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7월 10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창 28:16)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 두 번째로 했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매우 엉성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1. 만약 야곱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알았다더라면 그는 감히 그곳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기독교 방송, 복음을 전하는 친구나 친척 등을 피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대적해서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바칠 것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결코 해 본적이 없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도록 해 줄 그 어떤 임무도 자신은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뭔가 보여 드려야, 혹은 어떤 대가라도 치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뒤에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 소위 사역자, 목사, 신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3. 이 본문 말씀은 자신을 찾아 오셔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경험을 통해 복을 주고 계심을 묘사해 줍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와 환경과 상황 및 관계 속에서 임재해 오셨는지요! 때로는 양지에서, 때로는 음지에 숨어 계셨지만 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1일

야곱의 환상(창 28:10-22)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그가 축복을 훔쳐 갔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합니다.

13- 14절: 언약을 반복함.

15절: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실행하시고자 합니다.

- 너와 함께 있겠다. 교제
- 너를 지켜 주겠다. 보호
-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인도

16절: 이 말씀은 얼마나 자주 사실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예수님은 사다리아십니다(요 1:51, 히 1:14).

17절: 예수님은 문(gate)이십니다(요 10:7). 예수님은 집이시며 건축자이십니다(히 3:3 -4, 딤후 2:20, 뱀전 4: 17).

18절: 예수님은 돌이십니다(단 2:34, 막 12:10, 눅 20:18).

19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의 집, 즉 주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 장소이십니다(눈으로 볼 수 있게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2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그 위에 세워진 기초석입니다(마 16:18).

22절: 우리는 율법 이전에도 십분의 일(십일조)이 존재했음을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7월 12일

헤브론에서의 야곱(창28장)

이 장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서)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야곱은 현재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처럼 축복의 장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창 26:3).

2. 그는 제단 바깥에 있습니다(호 3:4-5). 유대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단에서 끊어져 버렸기에 율법에 따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그는 불신 가운데 저지른 행위로 인해 악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창 31:1, 롬 2:17-24). 유대인들을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저주 받은 백성입니다.

4.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살핌 아래에 있습니다(창 28:13, 롬 11:1, 25:30).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불신 가운데 내쫓겼으나 여호와에 의해 여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5. 그는 주님과와의 관계에 있어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이 되시려면 그 권리를 대가를 주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창 28:20-21, 롬 9:31-32).

6. 그는 결국 되돌아왔습니다(창 31:3, 35:1-4, 겔 37:21-23).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얻게 되는 동시에 그분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7월 13일

꿈(창 28장)

창세기 28:12에서 야곱은 사다리 꿈을 꾸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와 헤브론 남쪽으로 12마일쯤 왔는데, 그곳은 나중에 베엘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세 시간 거리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에 있는 삭막한 황무지였습니다. 길은 가파른 계곡을 통해 굽이쳐 있었고 돌무덤 같은 큰 바

위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바위들은 이곳 저곳에 드루이드족의 돌멘(기념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휴식을 취하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다리는 먼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혼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술책을 써서 형의 장자권은 획득하였으며 거짓말과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혼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분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또한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다리는 그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고자 내려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곧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다리가 이 땅에 세워졌으며 하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나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신비에 대한 해결책은 요한복음 1:51에서 발견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자신이 그 사다리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닌 그분 위에 “놓여”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의 꿈에서는 하늘이 보이기만 하나 열려 있지는 않음을 주목 하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역주〕)

7월 14일

서원(창 28:20-21)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뒤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서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창 28:20-21) 야곱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조건(if)으로 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since)” “그리고 나를 지켜 보실 것이고…주실 것이고…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므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드리겠나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야곱은 이 서원에서 거의 장사치 같은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해석 없이 그저 읽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회심하는 순간이기에 은혜의 삶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고 영적인 수준 역시 초보단계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15절) 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이니라(It is I).” 라고 하셨을 때 “만약 주시거든(If it be then)” 라고 답변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던 간에” 이와 같은 결의를 다지

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야곱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는 분들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십 분의 일을 바치겠노라는 서원만이라도 따라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는지요!

7월 15일

들에 있는 우물

창세기를 비롯해 성경 그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우물은 주님께서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의심을 우리로 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10개의 우물들은 중생과 그 결과를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물은 생명의 물의 원천을 의미합니다(요 4:14).
- 물은 자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요 7:38, 39).
- 그 안에 성령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그 우물은 다름 아닌 성경기록입니다(요 6:63).
- 우물은 들판, 즉 세상에 있었으며(마 13:38), 따라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 목마르고 지친 자들이 생명의 물 주위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 3이라는 숫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셋, 함, 그리고 야벳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 사람들은 다양한 반면, 주님께서는 오직 한 우리(요 10:16) 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혀끝에 댄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7월 16일

참된 사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창 29:20) 모든 연애소설, 모든 연극 및 영화를 다 동원해도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로맨스를 이끌고 가는 첫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므로”(29:18) 뒤따르는 그 다음 말들은 이를 확증해 줍니다.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리이다.”

말로는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오늘날 노래로, 책으로 사랑에 관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요. 그러나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없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감정은 헛될 뿐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자신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 그 아름다운 라헬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17절). 그날 이후 그는 오직 그녀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잔인한 주인 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수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급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던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또 나와 있는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미래의 신부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채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그녀를 향해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구속하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견디지 못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많은 사람이 야곱에 관해 읽을 때 “나도 누군가 나를 것처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그 누군가가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월 17일

창세기 29장 묵상

20절: 실로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느꼈습니다. 사실 리브가도 야곱에게 “네 형의 격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라고 하면서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낸바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7년이 몇 날 같았으나 리브가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요.

21-25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비열한 속임수를 스스로 없이 저

지르는 가족이라니!

26-27절: 이것은 어쩌면 자매들이 남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라헬이 언니였더라면 아마도 둘은 벌써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에 대한 이와 같은 배려는 야곱의 마음 깊이 박히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형을 속인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27절: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이 말은 일주일 간의 “신혼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또 다른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야곱으로 하여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4년을 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레(week)라는 단어가 날들(days)이 아닌 해들(years)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다니엘서 9:24-27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레는 날들이 아닌 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역주) 이와 같은 원칙은 민수기 14:33-34, 그리고 에스겔서 4:6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미움(hated)”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우선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실 레아를 좋아했습니다(49:31). 다만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30절). 이 표현은 신명기 21:15과 누가복음 14:26에도 나오는바 이 구절들 역시 마태복음 10:37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하겠습니다.

7월 18일

열 두 아들 중 맏아들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창 29:32)

야곱과 레아는 맏아들 르우벤의 출생을 큰 기쁨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고통)이라고 지었는데 아마 나머지 세 아들의 이름도 그녀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레위의 경우 그녀가 이름을 지었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33절).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내린 평들에 대해 어원적인 깊은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맏아들을 르우벤(고통)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그녀가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천사가 그녀에게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했고 이에 그녀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했습니다(16:11, 13). 레아가 이 사건을 기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그녀는 남편이 더욱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미움)이라고 지었는데 이때 그녀는 “주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그녀의 남편이 사랑 안에서 자기와 연합(레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넷째 아들 유다는 자신이 사랑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극대화 되도록 해 주

었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아 주었는데 어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일로 인해 주님께서는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받는 자 라헬의 이야기를 읽으며 복을 받는 만큼 레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이야기가 너무도 비극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살아온 수많은 여인네들처럼 그녀도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남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그녀의 갈망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7월 19일

창세기 30장 묵상

3절: “내 하녀 빌하” 라헬은 사라가 취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16:1-3).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 주리니” 이 말은 빌하가 라헬을 대신해서 그녀를 위한 대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라헬의 아이로 간주될 것입니다(욥 3:12을 보세요).

4-16절: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창설하셨을 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들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직분자들에게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상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여인들 간에 경쟁과 질투와 다툼이 있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 받는 자들이라기 보다는 “야곱이 나를 가장 좋아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경쟁 도구가 되

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단 하나(몸 된 교회)의 신부만을 원하십니다.

14절: 합환채는 땅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식물로 보라색 꽃을 피우고 노란색의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는 한 쌍의 사람 다리 모양을 하고 있어 아마도 옛적에 다산을 촉진하는 식물 그리고 최음제로 명성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장면에서 이 식물이 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7절: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간증을 지닌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가 근무하는 공장, 사무실 및 기타 일터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요.

7월 20일

줄무늬 있고, 얼룩지고 그리고 점 있는 것들

“가축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창 30:32)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가축들은 죄에 오염된 자들을 예표하고 이로써 섬김이나 희생을 위해서는 적절치 못한 자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늘 “오직 네 불법을 인정하라”(렘 3:13)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해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얼룩진 자나 점 있는 자나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선한 목자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그들을 변화시킬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는 것 자체가 실은 불가능합니다.

“양들 가운데 갈색 가축” 이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땅의 색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염소를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 이는 죄로 물들고, 따라서 회생 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찌든,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적인 자가 구원자의 깊은 사랑을 받아 그분의 것이 됩니다. 이는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이라는 대가 덕분입니다.

“이 후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가축은 야곱의 의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의 양 무리들도 자신들의 목자의 의를 입증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시 98:2).

“외삼촌의 얼굴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이때 야곱은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된 자들만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얼룩지지 않는 것이나 점 없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마 9:13).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 라반과 야곱의 관점의 차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32절). 그에게는 전부가 희지 않으면 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반은 약간의 흰색을 지닌 양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얗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점잖게” 그래도 자신들에게는 약간의 흰 것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구. 난 착한 사람이라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마 6:23) 오직 성령님만이 인간의 마음속의 큰 어두움을 지적해 내실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자신들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 악한 책들과 언론 그리고 다른 여러 “매력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역자들, 지역교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토록 하셔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요 10:28,29).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체들의 돌봄과 보호 하에 이들을 놓아두십니다.

7월 21일

줄무늬 있고 얼룩지고, 그리고 점 있는 것들(2)

“야곱이 어린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 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 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 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창 30:40)

1. 양들의 분리: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멀리 내다보는 결정입니다. 양들을 더럽힘과 악한 사귄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경건한 주일학교 교사, 부모님, 그리고 청년사역자 및 목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이 매우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다면 학교와 친구와 오락 등과 같은 것을 선택할 때 더 신중히 할 것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신들의 양들은 라반의 양들

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2. “그 양떼의 얼굴을 줄무늬 있는 것을 향하게 하여” 지혜로운 목사는 자기 양을 구령자(Soul-winner)로 훈련시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죄인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도록 하는바 이들은 아직 라반에게 속한 자들로 마귀와 세상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회심을 위해 그들을 향해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이것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루는 방식이요 그의 양들은 그렇게 인도받음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고후 6:17)

4.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 라반은 세상적이고 악한 양들뿐 아니라 많은 종교적 가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양 떼와 세상적 양떼가 뒤섞여 있는 현상은 실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7월 22일

청년의 어리석음에 관한 소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상당기간 제가 믿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믿어 버리는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모두 다 나를 향하여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정원에 식물을 심어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와 기타 다른 이적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실상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들이니 저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게지요. 한때는 자동차판매소에 가서 차 한 대를 가리키며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마 21:3)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쓰일 말씀이지 내가 주장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젊은이들이 때로 저처럼 무모하게 믿는 경우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술만 부리는 청년들보다는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무리하게나마 시도하는 양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플라 나무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그것들을 물구유홍통속에 세워 놓아 물을 마시게 하면 수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구요? 제가 해 보았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갈색 송아지들 중 회색 송아지 두 마리를 따로 떼어 실험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통했던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는 머리를 흔들면서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볼만 하더라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보라고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너무도 많은 믿음을 쏟아 부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꾸중을 듣게 될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연못 위를 건너가려고 시도했던 일에 대해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7월 23일

야곱이 라반을 떠날 준비를 함

1절: 두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지요? 각자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그가 얻은 모든 것이 라반과의 합의에 의해 번 것이었으며 이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반면 그의 처남들은 그것이 훔쳐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2절: “얼굴빛…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좋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6절: 전도서 9:10, 에베소서 6:6, 골로새서 3:22을 보세요.

7절: 이 발언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온유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아의 문제에 있어서도 속임 당했고 품삯 역시 10번에 걸쳐 계약불이행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이 문제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악한 일을 당했으나 해를 입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3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분께서 한 민족에게 한 땅을 내어주시고 그 민족과만 상관하셨을 뿐입니다.

14-16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연합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여기서 라반의 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가 아니라 그들의 남편에게 충성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물 안으로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우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그분의 의무인 게지요.

7월 24일

형상들

19절로부터 우리는 라반이 우상숭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어떤 일이나 수확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슬픈 진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녀 남편의 사랑하는 자 라헬(후에 그녀는 자기 민족의 사랑을 받는 자로 추앙받았음)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란 얼마나 많은 죽음과 실패와 심판과 재앙을 이 민족에게 가져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7년간의 고난을 마지막 때에 겪고 나서야 이 막중한 범법에서 비로소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단 9:24). 그들은 짐승의 형상을 택하든 자신의 목숨을 버리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를 결국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반은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들을 “경배 보조기구”라고 합니다. 이런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

입니다(삿 18:24). 이들 형상들은 후일 드라빔(teraphim, 삿 17:5, 18:14, 17, 18, 20, 호 3:4)이라고 불렸는데 안장(34절) 속에 숨길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잠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속일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있었습니다(삼상 19:13).

32절에 따르면 라헬은 신앙문제에 있어 마음을 다해 야곱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야곱 또한 그녀를 사랑했으나 그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은 도둑이었고(32절), 우상숭배자였으며(19절), 거짓말쟁이였습니다(35절). 이로써 우리는 찬탈자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5일

라반에게서 배우는 전형적 교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라. 그가 뒤졌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니라.”(창 31:35)

우리는 이 구절에서 라반에 관해 다섯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을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물론 주님의 일은 주의 더 많은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면

더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개된 사항을 보면 라반의 열심의 진정한 목적은 가능하면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고, 일을 하면서 우쭐대고는 “날 좀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모든 활동들 안에는 겉치레와 자기 중심적 태도가 들어 있어 결국 교회 회중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맙니다. 이처럼 라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정으로 오인 받을 만한 오도된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절과 애정을 보임으로써 그가 그들 모두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교회로 들어와 자신이 교회의 CEO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일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신이 원래부터 피아노나 지휘를 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 중의 하나로서 교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을 내면서 “여러분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3. **“그들을 축복하고”** 그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공손히 대합니다. 그는 교회를 축복으로 후원합니다. 현금도 많이 하는데 선교의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부자의 지위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번성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은 야곱의 복,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4. **“라반은 떠나 갔더라.”**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순례 여정에 동참할 의사도 없었고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몫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갈망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무리가 고향을 향해 이동하자 라

반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상당히 멀리 오긴 왔으나 더 이상 가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을 많이 내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알리려고 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에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곧 떠날 것입니다. 목회자나 집사들은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5. “그는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는 자기가 떠나 왔던 그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 정착합니다. 그 마음과 고향이 있던 그곳으로 되돌아 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마귀의 자녀는 자신이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고백하든지 간에, 얼마나 교회 사람들에게 친절히 굴든지 간에, 얼마나 큰 소리로 사람들을 축복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세상으로 되돌아가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 세상의 왜곡된 삶에서 슬픔을 겪든가 할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되돌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당신을 도왔다고 자랑하거나 당신이 그를 도울 능력이 없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결국 자신의 상상 속의 우월감으로 인해 그의 혼은 바닥 없는 구렁이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7월 26일

예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 1

1절: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는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절: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이 구절은 성경전체에 걸쳐 나오는 만군의 주 라는 칭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확정해 줍니다.

3절: “에서” 세일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의 아들들을 지칭하기 위해 성경에서 교대로 향후 사용됩니다.

4-5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 사람의 태도를 크게 개선시켜 줍니다.

7절: 야곱은 에서가 자기의 과거의 범법을 복수하려고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어떻게든 목숨을 보존코자 시도합니다.

9절: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긴 하나 부분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은 잘한 일이나 벤엘과 하란과 마하나임의 체험을 한 그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는 데까지 올라 가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약속을 하셨음을 상기하고 있는바 이는 그의 믿음이 분명하고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주신 분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약속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행 27:25).

이처럼 야곱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으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 믿음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야곱의 실패만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야곱보다도 더 많은 계시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자주 야곱과 동일한 짓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 2

17-19절: 이 구절들은 야곱의 약한 점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작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기도 응답을 해 버리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기도와 작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큰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 버렸나 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 놓고 나서 마치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선물 공세를 펴는데 멋진 계획들과 작전들을 동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선물들이 에서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야곱이 흠쳐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첫째 사자를 보냈을 때는 선물을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3절). 처음에는 선물이 필요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얼마 후, 두려움이 커지자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다루시도록 맡기기보다 자신이 다루어 보려고 여전히 시도 중입니다. 형에게 전달토록 종에게 건네준 메시지 역시 이와 같은 야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잠 29:25). 이와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은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혹은 상상 속의 어려움은 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의 머릿속

계획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더 꾀를 내면 문제를 해결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인간은 단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나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의탁해야 합니다. 야곱은 거의 그 순간에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8일

야곱의 부서짐(창 32:24-32)

이 구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한 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죄인이 부서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부서져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육신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부서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함도 보게 됩니다.

I.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24절).

1. 그는 모든 관계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 (1) 이삭
- (2) 리브가
- (3) 에서
- (4) 라반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로 인해 그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3) 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했습니다.

(4) 그러나 그는 그분과 교제 가운데 걷고 있지 못합니다.

II. 그는 주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1. 우리도 악을 대적하여 씨름합니다(엡 6장).

(1) 어떤 사람은 주님과 씨름합니다(이곳).

(2) 어떤 사람은 혈과 육과 씨름합니다(엡 6장).

2. 날이 새도록

(1) 주께서 계셨지만, 야곱은 빛 가운데 걷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2) 그는 이제껏 내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a. 다투어온 인생 여정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b. 영적 열매가 없는 인생 여정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III. 욱신이 굴복함(25절)

1. 야곱은 자아를 굽힐 줄 몰랐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1) 채찍질(히 12:7)

(2) 가시(고후 12:7)

2. 야곱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IV.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 절뚝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

2.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권능이 요구됨.

3. 다른 적들을 이기기 전에 육신을 이겨야 함.

V. 이와 같은 겸손이 가져온 열매

1.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함(30절).
2. 생명을 보존함(30절).
3. 빛 가운데 걸음(31절).
4. 그의 걷는 방식이 영원히 바뀜(31절)

7월 29일

하나님의 징계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야곱은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떤 남자 하나가 그와 싸우려고 나타났습니다.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야곱은 즉시 그 대적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신의 여정을 방해하려고 에서가 보낸 “특사”인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 그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은 날이 셀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는 에서도, 에서의 부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야곱이 그 사람과 싸웠고 이에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이야기의 초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싸움은 야곱이 아닌 그 사람이 건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끌어내고, 자기 신뢰를 제거하여 자신의 지략과 수완에 대한 자

신감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수려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예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모두가 자신의 책략과 뇌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길 때 까지 하는 “승리의 기도” 라는 교훈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극복되어야 하고 옛 성품이 정복되어야 하며, 계획 또한 쓸모 없이 되고, 그의 모든 수완도 무기력하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지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거나 적어도 비기려면 야곱은 먼저 패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져야만 합니다. 그가 승리의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그는 철저히 패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시험함으로써 더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제로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부서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7월 30일

하나님의 권능

드디어 야곱은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너무도 완고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초반에 그리하실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신 것은 야곱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의 자아를 끝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락이나 속임수로 에서와 가나안 땅을 극복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셔서 씨름에서 가장 필요한 힘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단 한방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과 긍휼을 맛보게 하고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토록 많은 어려움들과 대적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중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상태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걷는 한 명의 부서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는 천명의 부서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 보려고 해도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7월 31일

새로운 이름

천사가 브니엘에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야곱이 앞으로는 그 새 이름으로만 알려질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의 변경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말입니다. 이 경우 아브라함과 바울은 다시는 옛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줄곧 새 이름으로만 불렸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드물게 시몬으로 불렸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브니엘에서의 씨름 사건 이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45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이스라엘로 불린 경우는 23번에 불과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트를 이루어 불리고 있는 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경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와 특권으로부터 과거로 자주 되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속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걸맞게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왕자”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물러나는 모습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환상에 불순종하고 옛 삶으로 되돌아 가버리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고 가장 심오한 신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나 이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믿는 자가 신실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와 평강과 권능을 상실해 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패에 유의해야 하고 그가 어떻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족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예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이라고 언급된 구절들은 “불신” 가운데 있는 성도나 민족에 대한 것인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구절들은 성도나 민족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월 1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인상적인 질문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나 문제는 야곱이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야곱은 20년 전 그가 했던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27:19)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님이 되어가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한 마디로 “야곱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담(3:9)과 가인(4:9)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분은 질문이라는 두레박을 우리 혼의 우물 안으로 내려뜨려 깊은 곳에서 무엇을 길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요 18:25)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하시고”(요 21:15)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롬 1:17, 10:11)?

32:32 지옥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하늘을 향해 절뚝거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8월 2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절뚝거림1(창 33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장에서 배울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걷는 중요한 원칙들을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첫 걸음을 떼자마자 세상의 사람인 에서가 나타납니다(1절).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 즉시 그 결정을 방해하려는 자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위치를 세상과 가족 사이에 놓습니다. 이 고상한 전략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든 영적 지도자가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위험, 고생 및 반대에 대해 최전선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겸손했고 종의 자리에 섭니다(3절). 늘 계획을 짜고 자신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에게 있어 이것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항복했다는 참된 증거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굴복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친구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4-7절). 성도가 세상 사람을 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은 즉시 그 사람은 진정으로 친구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 가장 위험스러운 자들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주님께 도전하거나 심각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로 함께 하자고 하는 자들인바 이들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술, 마약 혹은 불륜을 저지르고자 좋은 길을 포기한 사람들보다 동호회, 연극, 및 기타 취미 활동을 위해 주님께 쓸모 없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두 배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들이 아닌 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8월 3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절뚝거림2(창 33장)

하나님과 씨름 이후 부서진 사람이 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에서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은 모두다 제공합니다(8절). 자기 형 것을 두 번이나 도둑질한 야곱과는 얼마나 다른 야곱인지요. 주님의 통제에 굴복한 인생은 자기보다 남을 더 앞에 놓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야곱은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10절). 예서는 예전 그 대로였습니다만 성령께서 통제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새로운 삶에서 야곱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고자 합니다(11절). 욕신은 인색하고 탐욕스럽습니다. 이익을 얻는데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굴복한 그 어떤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 자신의 자애로운 마음을 재생산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세심하게 준비된 올가미가 다가옵니다. 세상의 사람이 야곱과 동행할 것을 제안하고 그를 리더와 가이드로 초청합니다. 우리를 친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세상 사람이 뭔가를 양보할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좋은 TV쇼도 있고 이런 저런 깨끗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를 유혹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동성애자 주간을 계획하고 축제를 열고 난 다음 디즈니월드는 모든 교회들을 초청해 복음 송 페스티벌을 열어줍니다. 올랜도 매직 농구 팀도 가끔 복음 집회를 합니다. 그들은 맥주도 팔고 추잡한 치어걸도 동원하고 속된 표어들도 외쳐댁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가톨릭 신자인 선수들은 하나님에 대해 멋진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8월 4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절뚝거리십시오(창 33장)

어제 우리는 에서가 야곱과 동행하기 위해 약간의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던 시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서와 동행하면 자기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13절).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야곱은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에서에게 자기는 그 어떤 여건하에서도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세상적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에서는 달콤한 제안을 통해 야곱의 집안에 침투하려고 합니다(15절). 예를 들면, “오, 자녀 교육 방식이 놀랍군요.” “당신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달리 생각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한 데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요즘 가끔씩 교회에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냅다 지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15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거절은 해야 하지요.

세일과 숙곳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17절). 믿는 사람이 가는 길과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정반대이지요. 둘 중 하나가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둘이 동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방향을 바꾸는 자가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세겜은 안전과 건강을 의미합니다(18절). 옳은 길을 택하면 옳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의의 길을 따르세요. 그리하면 평화의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8월 5일

양들을 돌봄(창 33:13-14)

당신은 설교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당신은 부모입니까, 두목입니까? 당신은 남편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야곱이 새로운 생활방식을 택했음은 양떼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야곱과 라반과의 거리에 있어 양떼를 늘 숫자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양떼를 자신의 지혜로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약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양떼들을 몰아가려 합니다. 반면 야곱은 천천히 인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젊은이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요?

1. 그들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2.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3. 그들의 견해를 비난함으로써(롬 12:1-2).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려면 시

간이 필요합니다.

4.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함으로써.
5. 거칠고, 사랑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6. 잘못만 지적하고 칭찬은 하지 않음으로써.
7.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축복에 대해서는 간과함으로써.
8. 그들로 젊은이답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젊은이들을 돌봐야 할까요?

1. 그들을 인도하세요. 앞서 가며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뒤에 있는 자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이 그들이 듣는 모든 것입니다.
2. 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부드러우셨습니다(사 40:11). 바울도 그러하셨습니다(살전 2:7).
3. 그들의 기질에 맞게 인도하세요. 가족과 어린 아이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걸었습니다(14절).
4. 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벧전 2:21).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 우리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
2. 우리 역시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니까.
3.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 피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된 성도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유의하세요.
4. 금년에 어린 양들을 죽이면 다음 해엔 양이 없을 것입니다.

8월 6일

“옛 속이는 자의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들다”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이 진술 안에는 야곱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천천히 이동해야 할 상황임을 설명함으로써 에서의 동행 초대를 거절하면서 야곱은 결국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서는 자기 부하를 인도자와 에스코트 요원으로 남겨두겠다고 당연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제안마저 정중히 거절하고(15절), 드디어 에서는 떠나갑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는 대신 정 반대 방향에 있는 속곳으로 향합니다. (세일은 브니엘의 남동쪽에 있고 속곳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자기 형을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커다란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말할 용기가 없었기에 자기와 형 사이에 최대한 간격을 두고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약속대로 자기에게로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무시해 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고 말 테니 까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부정직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모독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요?

입으로는 정통 교리를 고백하나 행실로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통탄할 만한 조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래

계약이 존중되고,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약속은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신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멸시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8월 7일

창세기 33장 묵상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오므로” “눈을 들어 보니…그리고…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은 아주 중요한 뭔가를 보여줍니다. 32장 6절에서처럼 이번에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기록하는바 아마 그의 부하들일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1절) 이것은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양심으로 인해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이처럼 죄와 이기심은 한 인간의 인생에 걸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생 여정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맨 앞…맨 뒤”(2절) 여기에서 선호, 혹은 편애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바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내게 충분히 있으니”(9절) 에서는 욕심이나 탐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실은 예의바른 전형입니다. 그는 야곱이 라반에게 보인 행실보다 더 나은 행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성에 속한 세상 사람의 행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세상 사람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셈이지요.

“야곱이…밭을 사서”(19절) 창세기 50:13, 23:4, 여호수아 24:32 및 사도행전 7:15 등을 비교해 보면 뭔가 의견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족의 장지를 구입한 시점과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땅을 구입한 지금 시점과는 80년의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쯤이면 하몰 집안이 그 밭을 다시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상속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그 땅을 재구매했을 것입니다. 헛이 이들의 공동 조상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밭을 사서”(19절) 야곱은 약속의 땅에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땅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해야 했던 것처럼(23장)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약속된 세상이지만 (실상은 그분께서 직접 창조한 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인 피 값을 치르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희생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엡 5:6, 골 4:5).

주께서 사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전체 밭이 아니었습니다(23장). 아브라함이 그 밭을 전부 산 것은 그 안에 있는 동굴을 매장지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밭 안에 감추어있는 보물 때문에 세상을 전부 사신 것이지요(마 13:44).

여기 보니 밭의 한 부분(a parcel of,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음)을 샀다고 했는데 계약이 성사될 때 결과가 나오듯이 실제로 구입한 것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인류 또한 믿는 모든 자들(즉 세상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만이 그리스도를 위해 구매된 것입니다.

“자기 장막을 친 곳”(19절) 순례자의 기본적인 필요는 현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구입을 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빵도 사서 먹고 당분간은 당국자들에게 세금도 내야 합니다(롬 13:6, 7).

8월 8일

디나에 관련된 비극 1, 그 땅의 딸들(창 34장)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1-2절) 디나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어울렸는데 이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함께 즐기고자 그런 것입니다. 디나는 롯과 에서가 했던 그것을 한 셈입니다(26:34).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디나의 본을 따르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1절을 읽으면 사건은 젊은 소녀의 순진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동사 “나갔다(went out)”는 그들의 공동체 구역 바깥 사람들이 행동할 때 사용되는 표현(6:24, 26)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가벼운 (우연히 일어난듯한) 행동 하나가 만족 전체에게 위협을 가져왔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성읍 너무 가까이에 장막을 치겠다는 잘못된 결정 역시 상당부분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큰 영향으로 인해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득만을 위해 내린 가족의 결정은 때론 자녀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불필요하게 악한 일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사회생활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한한 자유로움이 디나의 마음을 빼앗았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브 안에서 그녀의 지체를 통해 드러났던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딸이 가나안 사회 속으로 모험을 떠날 때 안고 있던 그 위험들로부터 부모들이 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방의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 맘에 드는 여자를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12:15, 20:2). 그런데도 디나의 부모들과 그 이래로 많은 부모들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딸들이 제한 없이 이방과 접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로써 큰 고통과 수치가 야기됩니다.

왜 야곱과 레아는 디나가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도덕수준이 너무 낮아서일까요? 크게 위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속 좁고 엄격한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지나치게 간섭하면 딸이 미워할까봐 그랬을까요? 너무 간섭한다고 불평해대니까 결국은 포기한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녀는 나갔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조심하시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신 이

래로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과거에 했던 대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세겜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젊은 여인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사회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겜과 그의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에 그런 짓 정도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기준에서 보듯이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럽혔다(defiled)”라는 단어가 쓰였는데(5:13, 27) 이 단어는 나중에 성전을 더럽힌다고 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시 79:1). 다시 말하면 여인이 더럽혀진 것과 지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개인의 순결을 존중하고 그것을 더럽히는 죄는 엄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디나에 관련된 비극 2

“히위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2절). 히위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일곱 민족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두 이름은 가나안 이름으로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히위족속을 에게족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그리스족속과 친족이 되겠네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를 보고”(2절). 안목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군요(요일 2:16). “그녀를 데려가”(2절). 여기서는 인생의 자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요일 2:16). 세겜은 다른 사람들의 뜻을 무시한 채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의지를 실행에 옮겼

습니다. 디나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에게도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겠지요.

“그녀와 함께 눕고” 여기에서는 욕신의 정욕이 발동하고 있네요(요일 2:16). 감각과 욕구에 의해 지배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가이드 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을 합니다. 그 지역 통치자 세겔은 “보고… 데려가…눕고…더럽혔습니다.” 이 행위들은 반드시 폭력을 동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내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도되는 그 문맥에서도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9:16, 21).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의하면 성관계가 결혼 이외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곧 하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디나는 실로 “굴욕”을 당한 것이지요.

세겔이 할례 받지 않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디나의 굴욕의 또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야곱의 가족 중 이방인 배우자를 얻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38:2, 41:45),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죄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8월 10일

디나에 관련된 비극 3

3절에 따르면 세겔은 고상하고, 진지하며,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객관적인 견해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덕이 결핍되어있다고 단언해서는 안됩니다.

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말할 때 비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보다 더 친절하게 자기들을 대해주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말해 줄 때 (부끄럽네요) 우리의 아들 딸들은 강대상에서 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바르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술도 마시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도와 주려고 할 것이며 자연재해나 응급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수준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수준보다 훨씬 낮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땅의 의의 기준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청년들과 새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고 술도 마시며 아내도 맞바꾸는 보수적인 토크쇼 사회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사생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않는 채 사회 봉사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청년들의 롤 모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세겜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은 더럽힘(3-4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겜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4절), 디나의 친족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선한 자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8월 11일

디나와 관련된 비극 4, 반응

디나의 소식이 오빠들에게 들려오자 그들은 비탄에 잠겨 심히 노했습니다(7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세겜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냅니다. 야곱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7절) 안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물이 자기 민족의 기준으로는 정직하고 순전하게 행하고 있는 반면(8-12절)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가족의 역사에서 있었던 최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속임수”(13절)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와 동기는 올바른 것이었는지 모르나 그들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과는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30절, 49:5-7). 그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잔인함과 속임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이 동원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숙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언약의 표적(할례), 바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땅의 백성을 부정직하게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공평했고 정직했습니다. 올바른 동기로만 수행되었다면 꼭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계획임은 물론 그들의 여동생 문제를 최상의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 족속인 그들이 자신들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표적을 단지 인간적 합의의 수단으로만 사용코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성한 의식을 복수의 도구로 써먹겠다는 것은 그저 속임수로 위장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 보다 더 끔찍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짓을 계획하는 것을 보니 야곱의 가족 생활의 영적 상태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들이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내내 야곱은 어째서 침묵을 한 것일까요? 물론 계획초기에는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내내 침묵을 지켰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딸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무관심으로 일관하다니요? 아니면 자신이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져서 머뭇거리고 만 것인가요?

하물과 그의 백성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는 사형집행명령서에 사인을 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26-27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화가 죄를 낳고 이로 인해 마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르치는 대신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쟁이와 살인자가(요 8:44) 되고 말았으니까요.

8월 12일

디나와 관련된 비극 5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13절) 그들은 언

약을 옹호하는 것 만큼이나 개인적 복수심에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방법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 역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이 암시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육신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15절) 야곱의 아들들은 육신의 할례가 하물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고의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인치는 것뿐임을 잊었거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하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고 이를 할례로 인증하였습니다(롬 4:11).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와 관련하여 하물에게 제안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을 오늘날 비성경적인 종교지도자들이 침례와 관련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 때 침례를 받으면(일반적으로 “유아세례”로 알려져 있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할례와 마찬가지로 침례도 중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생했음을 인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안 되고는 새로운 영적 출생에 달려 있는바 이는 믿음에 대해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세겜 족속이 속았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20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태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감을 보고 있습니다. 디나의 세상과의 타협적 행동은 세겜의 욕망을 자극했고 이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전도시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8월 13일

디나와 관련된 비극 6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23절) 하물의 진짜 속셈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들을 수중에 넣고 싶어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대신 침례나 몇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동의해 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23절) 이 조건에만 동의해주면 당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상당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교회출석은 피곤한 일이지만 종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23절) 교회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외적인 종교의식에 동의해 주었다고 교회들이 세상과 함께 하는 데 동의해줄 뿐 아니라 세상적 열망을 달성하는 데 교회의 역량을 쏟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주모자들이 그 도시로 내려가(25절) 자기 여동생이 더럽혀진 데 대한 복수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안팎의 모든 동물과 모든 재물, 그리고 아내들, 아이들 및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전부 약탈했습니다(28-29절). 당하는 자들은 이들이 어째서 그토록 격노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잔인한 복수를 당하고 만 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한 사람과 그의 아들을 속였고 뒤이어 자신들의 공동체에 위협만 되지 않는다면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시의 백성을 모조리 속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향후 이 민족의 미래에 있게 될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8월 14일

디나와 관련된 비극 7

드디어 야곱이 오랜 침묵 끝에(5절) 입을 열고 있습니다(30절). 그는 자녀들의 행동을 꾸짖고 있으나 그 꾸짖임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할 것과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나는 수가 적은즉…그들이 나를 치려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이 없고 자기가 처한 위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 자기 가정, 자기가 둔 주고 산 땅, 그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의 심정이나 아들들의 잘못이나 자기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신실치 못해서 발생했는데 비난은 주어진 여건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일으키는 문제는 실상은 거의 원래는 부모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사건의 주동자로 파악했는데(30절), 이는 그 살상을 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이 앞장선 것은 이들 또한 디나처럼 레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우리는 주관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보인 첫 반응이 나와 있고 후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야곱이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요(49:5-7).

그의 첫 반응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폭력과 살상으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폭력적 대응이 온 집안으로 내리 덮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들의 행동을 폭력과 분노와 자기의와 진노로 규정하고 흠어짐과 분열이 그 두 부족에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악행을 꾸짖지 않고 그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협당하게 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것은 야만적이고 지나친 반응으로 신구약 모두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 누이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빠들은 아버지께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행동을 강간으로 비난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참금과 선물을 주고 여동생을 데려가겠다는 제안이 디나를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그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혼인절차의 첫 단계인 지참금과 선물의 제의가 디나를 먼저 유혹하여 일을 저지른 후에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항변일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창녀처럼 취급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폭력적이고 절제되지 않은 반응과 치밀하게 계획된 살상행위로 인해 야곱은 크고 영원히 지속될 상처를 입게 됩니다(49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8월 15일

창세기 34장 재고

창세기 34장을 재고해보면 이 사건은 실상은 야곱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이

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한 후 마귀가 해온 두 번째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1절) 죄는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창 3장). 디나는 지금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더럽힘(2절). 우리는 세상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고서는 세상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을 위해 얻고자 합니다(3-4절).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더럽혀진 자들에 대해 비탄해해야 합니다(7절).

우리는 그들을 더럽힌 자들에게 분노해야 합니다(7절).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7절) 어떤 것들은 실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행실이 악하다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소리를 높여 그런 행실을 큰소리로 대적해야 합니다(엡 5:11).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8절).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상황을 용납하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9절).

어린이의 실수가 어른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빠졌다고 해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자”(10절) 경건치 않은 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함께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세상은 제안합니다(11-12절).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13-14절).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너희가 우리 방식으로 행하라 아니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다(15-17절).

그들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18-22절).

그러나 실상은 취하고 가져갈 목적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24절).

칼을 취해 살해하다(25-26절).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고 우리를 세상과 연합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이 칼로 물리쳐야 합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31절).

이번 사건은 히브리 민족을 잡혼을 통해 더럽히려는 사탄의 여러 번의 시도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협을 통해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자 합니다. 야곱은 동맹이 필요 없었습니다.

8월 16일

창세기 34장에 대한 마지막 묵상

“나는 수가 적은즉”(30절) 야곱은 ‘나’ (I) 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입한 약간의 땅만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후일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 스테반도 세겜의 땅 일부를 아브라함이 구입한 것을 언급합니다(행 7:16).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자신의 구속 받은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

지요. 이와 같은 동일시함은 심판의 날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마 25:40, 45).

야콥은 그 땅의 거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수가 적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세대이든 간에 늘 이와 같은 현상이 목격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적은 양무리”(눅 12:32)일 뿐이었습니다.

어째서 디나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요셉과 야콥의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은 야콥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야 할 그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트로의 이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되 기근이 원인으로 제공되고 그 집행 책임자는 요셉이 되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장을 보면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주’를 정당화 시켜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선민의 도적적 상태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것처럼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다른 쉼터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순결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째서 디나의 이름이 창세기 30:21에 레아가 야콥에게 낳아 준 자녀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번 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속의 여러 상황들이 처리되고 있는 부끄러운 방식들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기록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의 행실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역사기록에서 벗어난 더럽혀진 여인의 이

야기를 삽입하시고는 그들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이번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라합(수 2장), 룯, 유출병 걸렸던 여인(막 4장),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요 8장) 및 기타 여러 경우가 신부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고 있는 도중 이스라엘이 한쪽으로 제쳐지고 있음을 예시하고자 사용된 바 있습니다.

8월 17일

시급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창 35:1)

벰엘은 세겔으로 부터 단지 30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지 벌써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화평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면 벰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겠노라고 서원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그가 돌아올 만반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 서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바 이는 그분께서는 자기 종이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로 신실한 복종의 지점으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타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익숙한 구식 방법, 즉 회개와 믿음입니다. 야곱이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쳤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다.

방황하는 신자는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버리시고 다른 분이 되어버리셨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동일하신 그분(그가 버리고 떠난 그분)이 다른 모습과 성품으로 계신 것을 보고는 무서워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방황을 하고 있던 간에 탕자가 그리 했듯이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방탕한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처나 삶의 코스를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버리고 떠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돌아 오기를 사랑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8월 18일

앞을 내다봄

창세기 35:1-7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속자들 중 생존한 자들에게 “일어나라(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구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임) 베엘로(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올라가라(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늘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함.)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이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돌아가는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수세기 동안 그들을 더럽혀

온 죄들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단 9:24, 겔 36장)”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은 이스라엘이 사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됨을 (속 3장)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는 모습은 고난의 날의 울부짖음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부터 벗어나게 될 “남은자”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드디어 모든 이상한 신들이 그들의 손에서 내던져질 것이고 이로써 그들의 세상적 삶을 상징하던 것들(귀고리, 샷 8:24-25)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숨기는 것은 매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디어 이 민족이 나무로 만든 형상들과 돌로 만든 형상들을 죽은 것들로 간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이르렀으며” 이 표현에서는 그가 왔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언젠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엘벤엘이란 이름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8월 19일

잘못된 행실로 쓰임 받지 못함

이번 에피소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라는 이상한 사건과 더불어

어 마무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전에 창세기 24: 59에 한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이름 없이). 오래 전 사건이고 보면 지금쯤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벨엘로 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야곱이 벨엘로 돌아온 후 죽기 전에 야곱을 보고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그 밑에 묻은 그 나무를 애곡의 상수리라고 불렀으니까요.

리브가가 제외되고 어쩌서 드보라가 언급된 것일까요? 우리는 리브가가 야곱의 도주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에서의 격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27:44) 라반과 함께 머물도록 하려고 야곱에게 고향을 떠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어떻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자식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이 도주한 이후부터 리브가는 성경기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가끔 가족과 유모와 연관되어 등장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삭과 함께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고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리브가의 잘못(이삭을 속인 것)은 결국 성경기록에서부터 그녀를 제외시켜버린 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여인들도 자기 보다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되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거나, 남편을 조종하거나, 남편을 배제시키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은 결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에 대한 기록은 리브가처럼 겉보기에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영웅적인 요압이 당연히 그 명단에 들어 있을 것으로 우리 모두 예상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대신 그의 형제들 아비새와 아사헬과 그의 무기든 자들은 언급되고 있는 반면 요압 자신은 명단에 없

습니다(삼하 23:18, 24, 37). 요압은 스스로 자격을 박탈한 셈입니다.

8월 20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벤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아버지의 고향 마므레를 향해 남쪽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가족들이 이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큰 슬픈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도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된 다른 좋은 소식에 위로를 얻었으나 그녀의 지상생애는 이미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새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나의 고통 혹은 슬픔의 아들)라고 지었습니다. 생명을 잃어 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 아들을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자신을 끝까지 격려코자 그 이름을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아마 그가 태어남으로 그에게 오게 될 복과 번영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자녀를 낳다가 죽은 사건 기록입니다. 그 사건의 묘사는 단순한 연민과 고상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헬의 생애는 슬펐고 그녀의 마지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남편이 될 그 사람의 사랑을 빼앗긴 채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고 하란에서의 불행은 그녀가 질투의 희생자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미신을 믿었고(30:14) 거짓 신들을 숭배했으니(31:19)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통한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는 그랬을 겁

니다.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은 베엘로 이주하고 나서야(35:2, 4)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원했습니다(30:24). 그러나 그녀의 지혜롭지 못하고 열정에 찬 소망은(30:1) 이주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되고 마는군요. 그녀는 그 아들을 얻었으되 그 선물을 받는 그 순간 죽고 맙니다.

8월 21일

창세기 35장 묵상

35:9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고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35:11 “나는 곧 전능 자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 칭호를 사용하셨던 과거의 두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칭호를 17:1에서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8:3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복을 내려 달라고 했을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칭호를 사용하심으로 야곱에게 신선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로써 이 칭호는 조상들의 씨에게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연관됩니다. 그 땅의 축복과 언약의 수립은 9-13절에서 영원히 확립되었습니다.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로 전수된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35:11 “다산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는 이 명령이 다섯 번 나오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은 창조물에게 하신 것이고(1:22, 8:17), 두 번은 사람에게 하셨는데 땅을 다시 채우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28, 9:1).

35:14 우리는 헌물과 기름이 연관된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28:18). 그러나 이번에는 음료 헌물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시 22:14, 사 53:12).

35:16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19절). 야곱의 이번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주목하십시오. 그의 모든 다른 아들들은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이번 아들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려진 채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나, 단 한 아들은 예외입니다. 그는 영원 과거에서 태어났습니다(골 1:15). 아버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국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태어났고 그 길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갈보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과거(창 1:1전 이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 5:2)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방면 중 첫 번째 것입니다.

35: 18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너무도 사랑스러운 문장이군요.

35:20 라헬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애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을 여행 했을 때 우리는 선물가게에서 빠져 나와 라헬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경계가 엄했습니다. 그 어떤 이방인나 관광객도 그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성경책과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들은 결국 우리를 안으로 인도해서 라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요새처럼 경비가 엄한 동굴 안으로 데려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덤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곳은 다윗 왕의 무덤뿐이라

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35:23 이번 구절과 다음 세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명단은 출생 순서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에서와 만나게 될 때 배치했던 순서(이때는 자기 아내들에 대한 그의 선호도에 따라 자녀들을 배치했었습니다)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35:32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 이들은 라헬의 아들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고 잇사갈과 스불론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만 빌하는 레아와 라헬보다는 뒷자리에 그리고 실바보다는 앞자리에 놓였는데 이는 두 몸종 중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

두 번의 범죄

야곱의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끔찍하고 너무도 슬픈 사건을 만아들 르우벤이 저지릅니다(35:22). 이 두려운 죄로 인해(레 18:8, 고전 5:1) 그는 장자권을 상실하였고(창 49:4) 끝없는 수치와 오명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묘한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속뜻이 숨겨있는지 모르겠으나 야곱의 막내아들의 출생은 만아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과 르우벤 지파의 향후 역사를 감안해보면 “처음 난 자들 중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전면에 부상합니다. 라헬은 처음에는 사랑 받은 본 부인으로 자녀가 없었으며(30:1)이로써 야곱을 속임수로 압박

했던 언니 레아보다는 늘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라헬에게 기회가 왔고 그녀는 단지 두 아들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과 베냐민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에브라임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왕국 열 지파를 대표했으며 반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신의 것일 수도 있었던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은 그분의 의가 서고 잘못은 바로잡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과정이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35:22 이 구절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이 가족의 언약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세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함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르우벤의 정욕을 다루고 있는 바 그는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들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49:3-7)

35:22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당연히 빌라도 르우벤도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악의를 품은 다른 형제들이나 여인들의 수근거림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여럿 둔 그의 가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언약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규정했습니다.

오래 전 제가 10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을 가로 막더니 대답 “제임스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끔찍한 사람들을 선민으로 택

하신 건가요?” 라고 매우 당혹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당한 질문이지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저지른 죄와 행실과 수치스런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족을 택하여 그들의 행실과 그 행실 뒤에 있는 동기 등을 다 밝히 드러내시면 이 세상 그 어떤 종족도 동일한 죄악 된 모습일 거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아담으로부터 유래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들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므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신 7:7-8)

은혜,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4번의 장사지냄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상들을 묻은 사건(4절), 유모를 매장함(8절), 아내의 매장(19절),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매장(29절)이 그것입니다.

8월 23일

이삭의 죽음 1

이삭의 생애가 마무리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으나 실은 이삭은 요셉이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집트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앞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기록이 있었는데(11:32, 25:8) 이는 야곱의 가족의 머리로서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27:1-2) 40년이 넘게 살았는데 아마도 야곱이 귀향한 후 몇 년간은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숨을 거두어 죽고” 이 기록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나긴 했지요. 그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영을 돌려드린 것(숨을 거두고)과 죽은 적이 그것입니다.

라헬에 관해 묘사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 두 묘사의 차이는 그 둘의 나이의 차이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된 여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둘 다 죽은 것은 같으나 이삭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꺼이 죽을 마음이 있었던 반면 라헬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혼이 떠나는 것이나 숨을 거두는 것이나 존재의 멸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뜻합니다. 옛 믿음의 조상들은 실로 일시적 약속 그 이상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히 11장).

이삭 역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으니” 이는 다가올 새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암시를 제공해 줍니다. 즉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잠시 떨어지게 되었으나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니까요.

이들 표현들로 볼 때 죽음은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분명하며 결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월 24일

이삭의 죽음 2

이삭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들(야곱과 에서)의 삶과는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생애는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반면, 이삭의 생애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웠습니다. 두 번의 죄(26, 27장)를 제외하고는 이삭은 목가적이고,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깊이 음미하며 살았습니다(26:24).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진행하고 발전시키고 계시는지를 평화롭고 조용히 (별 사건 없이) 지켜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한 단어가 이삭의 성품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31:42, 53).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상례적인 표현과 너무도 대조되는 충격적인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조금은 먼 곳에 계신, 그리고 강력하신 분, 복종해야 하는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성품의 뿌리는 아버지 이삭의 것과 동일했으며 야곱은 아버지의 그런 성품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23부터 몇 구절에 걸쳐 족보가 삽입된 이유는 이삭의 세대들(25:19)에 관한 긴 기록들이 이번 장에서 마무리되고 에서와 야곱의 세대들(36:1, 37:2)에 관한 새로운 부분이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문은 이로써 종결되었고 야곱은 아버지 밑에 있던 지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야곱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8월 25일

창세기 36장 묵상

창세기 25:12-18에서는 이스마엘의 세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요노선으로부터 그와 그의 후손은 배제시켰습니다. 이후로는 이삭이 중심 인물로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그 안에서 이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세대가 기록되면서 그와 그의 가족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후로부터 창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핵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다만 에서의 세대에 관한 기록이 이스마엘의 세대보다는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후 이스라엘과 에돔 사람들(에서의 후손들)과의 관계가 이스마엘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주로 6개의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나 일관성 있는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6:3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것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에서는 이것을 마할갓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28:9). 이는 아마 엘론의 딸 아다에게 그가 준(26:34, 36:2) 더 존경 받는 이름인 바스맛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아내가 이미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왜 마할갓이라는 이름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6:6 “에서가…그 지역으로 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은 그가 에서를 자기 주로 인정하고는(창 32:4) 그 악한 거래의 결

과로 얻은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나서야 그리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서가 그 땅을 포기하고서야 (이곳에서) 야곱은 자연적으로 그 땅을 상속으로 소유하게 되어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교활함과 속임수의 도움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8월 26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1(창 37장)

창세기 37-50장은 여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 관해 보이신 계획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양떼를 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요 1:11)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셨으니까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1절).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던 시기에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로마의 치리하에 있기는 했어도 그가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2절). 이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요 10:12-14). 히브리 청년에게 있어 양떼를 돌보는 것은 평범한 직업이

있으며 이는 참으로 복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자께서 구속 받은 자들을 돌보심이 어떠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게 해 주니까요.

요셉은 참된 증인이었습니다(2절).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형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요셉은 오직 올바른 것만을 말했습니다. “내가…진리라”(요 14:6, 7:7)고 선포하시는 그분을 뵙게 됩니다.

8월 27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2(창 37장)

주 예수님을 너무도 명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요셉은 악에 반대합니다(2절). 우리 구원자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항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었으나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모두에게 선하시지만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지요(마 3:17). 야곱의 모든 자녀가 다 아버지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호의를 받은 것은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보내시지요. 하지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그의 동료들 위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히 1:9).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습니다(3절, 엠 1:6). 이것은 동료나 동기간으로부터가 아닌 아버지로부터의 호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3절).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미 5:2, 단 7:13).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구분코자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3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광, 존귀, 그리고 장엄함으로 옷 입고 계십니다.

8월 28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3(창 37장)

이미 보았듯이 요셉은 신실한 증인이며 악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 다른 여러 이유로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갇들어 있는 시기와 사악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4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4절). 할 수 없었던 (could not)라는 표현은 형제들의 마음속의 미움이 너무 커서 말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을 지경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주님의 원수들은 그분께, 혹은 그분에 관해 친절하게 말조차 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불쾌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실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형제들을 그가 다스

리게 될 것임을 계시해 주셨고 그는 단지 그 소식을 보고 했을 뿐입니다(5-7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걸으실 때 그분은 동료 인간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라고 임명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젠가 그는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의 모든 원수들은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6-7절). 언젠가 모든 무릎이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터이니 어린양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빌 2:9-11).

8월 29일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가?(창 37장)

앞선 세 과에서 우리는 요셉과 인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존경 받아 마땅한 성품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들이 지닌 선한 성품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본받자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들도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그런 면들을 설명하고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을 갖추도록 허락하고는 있는 것이지요?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럴 때마다 대중들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분은 고상한 행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모든 일에 진실되신가요? 진실될 경우 사람들의 칭찬에서 멀어질지라도 그리하십니까?

요셉과 예수님께서서는 악을 반대 하셨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악을 피하는바 이는 선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오늘날의 악에 대해 탄식하고 “이 세상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토론했어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반대해서 담대히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지요.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정해 놓으신 미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람들을 낮추시고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도, 예수님도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타오르는 지옥이 있습니다.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심판과 불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미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8월 30일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4(창 37장)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한 신실한 증인이었으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8절). 예수님도 사람들 가운데서 걸으시는 동안 동일한 일을 겪으셨습니다(요7:5).

요셉과 형제들을 갈라놓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그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생이 크게 높임을 받아 형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그들의 인간적 본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선포했고 그 자신감에 대해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8절).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출생이 의문시되는 가난한 목수보다는 자신들이 상석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셨었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무모한 몽상가였을 뿐입니다(눅 19:14).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말들로 인해 그를 미워했습니다(8절). 그가 말을 하자 그것이 그들을 불쾌하게 했고 결국 그들은 격노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이 예표했던 그분의 말씀 역시 그것들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마 26:64, 요 8:40).

요셉이 입만 다물었어도 그는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했고 그의 말들은 그의 형제들의 죄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후일 구원자께서도 성령의 검을 휘두르사 듣는 자들의 존재 깊은 곳을 찌르실 겁니다(요 15:22).

이 두 분이, 입을 열지 않고도 지상명령에 복종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증인들 같았더라면 아마도 많은 문제들은 피해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랬다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겁니다.

8월 31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5(창 37장)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의 일생을 비교하면서 두 분이 어떻게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37:10은 요셉이 가족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책

망 받았음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민족의 지도자로 행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은 반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를 격렬하게 대적했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높은 지위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11절). 동일한 질투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났고 이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미워하게 됩니다(막 15:10, 마 27:17-18).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13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형제들을 찾아가 보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눅 20:13, 히 10:7).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고 아버지 뜻에 따라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13절, 요 10:18).

두 경우 모두 아버지의 뜻은 형제들을 꾸짖거나 정죄코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14절, 요3:17). 보낸 분이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할 뿐이었으나 그 해당하는 자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서 스스로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임을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복을 놓친 것은 아버지가 보낸 사자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 이런 실수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 자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물을 운반하기 위해 못난 진흙 그릇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그릇들을 거부하고 결국은 그 보물마저 놓치고 맙니다.

9월 1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6(창 37장)

요셉은 헤브론 계곡을 떠났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합니다(14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계셨으나 그곳을 떠나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요 17:5, 24). 요셉이 도착해 보니 그의 형제들은 불순종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15, 16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 오셨을 때 이들 또한 의로움의 길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찾으면서 들판을 방향했다고 하는데(16절) 들(field)은 세상을 뜻합니다(마 13:38).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멀리 하늘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닌 길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눅 19:10).

성경(특히 창세기)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반대로 인간을 찾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일어난 사건들을 상기시켜주는 세가지 두려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음모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기도 전에 이들은 그를 대적하고자 연합해 있었습니다.

둘째, 그가 도착하기 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단지 요셉과 그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제거해 버리고 싶은 갈망이 그 음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원한과 질시는 결국 표면으로 떠올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9월 2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7(창 37장)

우리는 18절에서 요셉에 대한 음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살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면 그가 다스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20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살해를 도모한 자들은 로마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굳혔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마 27:1, 요 11:53).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그가 결코 그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 27:39-44). 따라서 그들이 그분을 실제로 체포하고 모의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구원자의 원수들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눅 4:28-30).

요셉도,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셉과 예수님, 두 분 모두 여호와께서 통치자로 택하신 자들이며 단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통치자들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할 자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여 요셉의 구출을 시도하였습니다(20-22절). 후일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놓아 주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나선 두 사람 모두 그 미움 받는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고 다만 사라져 버리기를 원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왕관을 씌워 주어야 합니

다. 이 두 가지 선택만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세요.

9월 3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8(창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놀랍게 일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옷을 빼앗긴 것과 같이(23절) 주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마 27:28, 요 19:23). 요셉에게 물이 없었던 것과(24절)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요 19:28). 너무도 놀라운 일치 아닌가요?

요셉은 물도 없는 구덩이로 내던져졌습니다(24절).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숨을 거두시고 나서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혀를 서늘하게 하고자 물 한 방울을 갈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장소입니다(행 2:26, 눅 16장).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고통을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동일한 일이 후일 주 예수님께도 일어 났었습니다(마 29:35-36).

25절에 따르면 요셉의 고통 중에도 형들은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으니 시기와 교만과 증오가 인간을 사로 잡으면 인간의 마음은 실로 강박하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것처럼 매몰차게 외면하고 그 순간에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다니요!

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유

월절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요(마 27:36).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애 1:12)

9월 4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9(창 37장)

유다의 행동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현재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바 유다에 대해서도 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의 고통으로부터 약간의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야비한 사건에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팔렸을 때 유다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26절). 신약 성경에는 유다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의 메시아를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합니다(눅 22:1-6).

요셉의 대가는 은 스무 개였습니다(28절).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은 삼십 개에 팔리셨습니다(마 26:15).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그들을 팔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26-27, 막 14:10).

인간 심리 안에는 참으로 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이 그들의 손에 의해 죽지만 앓는다면 비록 자신들의 음모로 인해 살해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27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자들도 그분이 죽기를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자 했으니 이들 역시 심판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요 18:28).

이러한 도덕적 책임 회피 책략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살인은 마음의 문제임을 밝혀 놓으셨습니다(요일 3:15). 하나님께서는 방
아쇠를 당긴 사람은 물론 그 살인 계획을 짰 사람 또한 붙잡으실 것입니다.

9월 5일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10(창 37장)

우리는 이제까지 약 35가지 측면에서 요셉과 주님의 유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성경기록자를 움직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드높일 그 기록을 남기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몇 가지 유사점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원수들의 손에 팔렸습니다(28절). 그의 원수들은 그의 멸망을 걱정했으나 그는 구덩이에서 살아나왔습니다(28절). 그는 살아난 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28절). 이후에 형제들이 그를 만날 때는 그가 왕이 되어 있을 겁니다(28절). 오! 어린양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 예수께서도 원수들의 손에 팔리셨습니다(마 26:15). 비록 그의 원수들이 그분을 제거코자 했으나 그분도 구덩이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행 1:3). 부활 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복편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눅 24:51-54).

원한다면 그분을 멸시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당신도, 세상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증오도, 배반도, 사망도, 지옥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무릎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분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인자께서는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9월 6일

요셉의 꿈

요셉의 형들의 증오는 요셉이 꾸 꿈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첫 번째 꿈은 들판에 있는 곡식 단에 관한 것이었는데 형님들의 곡식 단이 동생의 곡식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6-7절). 동양적 사고에 따르면 이것은 동생이 형을 지배할 것이라고 해석되었고 이에 “그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꿈 얘기를 해서도 그렇겠지만 증오심은 꿈 자체의 내용 때문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37:9-10 또 다른 꿈. 꿈이 반복된 것은 그 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41:32). 이 꿈은 평범한 꿈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평범한 꾸이었으나 그 내용은 요셉의 미래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2:1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관이 있더라.” 이 꿈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미움(8절)과 시기(11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꾸짖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10절).

“그가 그 꿈을 아버지에게 고하매”(37:10) 그는 두 번째 꿈을 아버지에게 즉시 직접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열한 개의 곡식 단만 꿈에 등장했으나 두 번째 꿈에는 열 한 별 외에도 해와 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37:10) 요셉은 꾸짖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요셉이 꾸짖음을 받아 마땅하다면

그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두 세 개의 실수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것처럼 이상한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처럼 이상한 꿈이었기에 아버지나 형들이나 놀랐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꾸짖음을 받은 것은 요셉이 메시아의 예표로서 받은 최초의 잘못 없는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꿈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기분은 나빠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11절).

이 야곱의 사역과 마리아가 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눅 2:19). 열두 살 때 주님께서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던 그 사건에도 마리아는 동일하게 반응했었지요(눅 2:51).

9월 7일

꿈 속에 나오는 달

꿈 속에 나오는 열 한 별(9절)이 요셉의 형제들이고 해는 아버지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달은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어머니”(37:10)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죽었지요(35:19, 20).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뜻하는 바는,

첫째,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조상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요셉을 넘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었을

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했었으니까요(요 8:56).

둘째, 야곱이 말하는 어머니는 레아였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로 레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레아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49:31). 꿈 속의 달이 레아라고 한다면 이 꿈의 성취는 아마도 43:11-14에서 이루어졌겠지요.

셋째, 성령께서는 일반적 복종을 보여주시고자 꿈을 주셨으나 야곱은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절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풍유에 대해 너무도 자세한 지나친 해석을 강요하는 관행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관행의 원조가 야곱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8일

창세기 37장 묵상 1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37:4) 요셉의 형제들은 “할 수 없었다” 라고 표현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의 도덕적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말을 하기 원치 않았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된 성품이 그들을 무력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롬 8:8).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그에게 대적하는(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37:15) 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그가 단지 성령님만을 예표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 위에 강림하사 모든 지혜와 명철, 조언, 능력 및 지식을 제공하여 주님으로 하 여금 완전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사 11:2).

“그가 들에서 헤메고 있으므로”(37:15) 들은 세상입니다(마 13:38).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목표 없이 이 세상에서 결코 방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방황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그분의 오랜 인생기간과 어찌면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형들(형제들, brethren)을 찾으오니”(37:16)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께서도 잃어버린바 된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눅 19:10). 그분은 에덴에서도 아담을 찾으셨습니다(3:9).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바 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인간이시므로 그분이 찾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의 형제들 즉 인간인 것입니다.

9월 9일

창세기 37장 묵상 2

“원하건데 어디인지 말해주소서.”(37:16)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께 자신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시도록 요청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분을 갈보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37:17)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다고 말한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 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

고 나서 있으라고 놓아두신 그 명예로운 장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가자.”(37:17)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그들을 만나니라.”(37:17) 이처럼 구원 자체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그들을 따라 다닙니다(눅 15:4).

8-20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히 4:12-13). 그들은 요셉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살인자들이었습니다(요일 3:15). 그들보다 앞섰던 가인처럼,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스스로) 되고 말았습니다(요일 3:12, 요 8:44). 이 증오심과 사악함의 뿌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형제들은 그를 축복하여 함께 기뻐하는 대신(롬 12:15)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들이 복 받는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복 받는 꼴을 못 볼 자들입니다.

이들 뿌루통하고 무뚝뚝한 비판자들은 우리 교회들에도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한 형제들에게 비난을 해댑니다.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행복한 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목사들을 좌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간증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9월 10일

이스마엘의 무리

이들 상인들은 이스마엘인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창 37:27, 39:1) 미디안

사람들이라고도 불립니다(창 37:28, 36).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으며(창 16:11-12) 미디안은 그가 그두라(창 25:2)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칭호가 교차되는 이유는 이 두 부족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이나 모든 이스마엘 사람이 다 미디안 사람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코에 단 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삿 8:22-24). 이들 무리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 측면을 주목하십시오.

1.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16:15). 이들은 존경할 만한 종교적 혹은 소위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밖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21:10).

2. 이들은 어디 출신인가?: 이들은 요단의 동쪽에 있는 길르앗 출신이니 잘못된 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축복의 범위를 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그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3. 이들이 낙타를 몰고 다녔다는 사실: 낙타는 성경에서 이 세상의 부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무리는 불의한 mammon과 더불어 사는 자들입니다. 낙타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유를 악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코 잘못된 일입니다.

4. 이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사실: 이것들은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사치품들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눅 12:15).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거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이들은 성경에서 항상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적해 저지른 범죄에 동조한 자들로 어찌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나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존경 받는 인물들 중에도 자주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반대하는 일에 협조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할라치면 늘 이스마엘 무리들이 나타나 이 사악한 행동을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 분께서 오실 때까지는 죄악 된 자들은 죄를 짓거나 죄에 동조할 기회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마엘의 철자는 Ishmael이며 창세기에서는 이들의 후손을 이스마엘인들(Ishmeelites)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Ishmaelites로 불렸습니다(영어 철자에 주목하세요.-역주).

9월 11일

채색옷

바닥에 놓여있는 옷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 위에 왕의 옷이 놓여있는 모습은 경외감이 아닌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채색옷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을 향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모의 편애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바로 이 채색옷, 즉 형들이 증오하던 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형들은 우선 그 옷부터 벗겼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제안을 따라 요셉을 근처에 있는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곳은 아마도 저수지였던 것 같습니다(24절).

이 사건은 너무도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 젊은 소년이 나이든 형들의 손에 잡혀 옷이 벗기고 빠져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내던져졌다는 심각한 현실을 읽는 사람이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울부짖음도 거부되었으나 후일 이들 형들의 꾀가에 양심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게 됩니다(42:21).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42:21)

“그들이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37:31) 그들은 염소 새끼의 피로 옷을 적시면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며 죽이고 자신들의 성전 희생제사가 죄를 제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피가 죄

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행중입니다. 제1차세계 대전 때 유명한 영국 교회의 감독 하나는 유럽은 다시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면이 불경스러운 발언에 치를 떨 것입니다. 소위 “기억해야 할 일요일”로 알려진 11월의 그날에 대해서도 일부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전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고 방식은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십자군이나 이슬람 냄새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죄의 효능이 없는 피로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래로 여전히 많은 자들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옷”(37:31) 이것은 인간의 양심을 들여다 보게 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 동생의 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항상 죄책감을 최대한 없애려는 그런 단어를 취합니다.

거짓 위에 거짓이 놓여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37:31)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옷 맞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군요.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옷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7:33 잠시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늘 아버지를 속여온 사실이 그들의 죄책감을 입증해 주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야곱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것처럼 충격적인 슬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이 순간 야곱이라는 이름(본성에 따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영적인 사람의 이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무엇이 단서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맞출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면 그의 피로 물든 그 옷이 그들의 손에 들릴 수 있을까요? 짐승이 그를 갈기갈기 찢기 전에 옷을 벗겼을 까요? 요셉이 사자에게 옷을 벗을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아니다.” 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어째서 놓쳐 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래 전 한 청년이(야곱이라고 불렸지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를 성공시키는 데 무엇이 쓰였지요? 염소의 죽음이었습니다(창 27장).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두어 들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9월 12일

시기(envy)

창세기 37장에서 기록된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가 다 시기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9에서 스테반의 입을 빌어 성령님께서 주해하신 겁니다.

인류역사 내내 인간의 본성을 특징지어 온 것은 죄입니다. “너는 초조해 하지 말며(envious)” 라고 시편 기자는 충고합니다(시37:1). “보고 부러워하였다(envious)” 고 자신의 시험 받는 상황에서의 체험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시 73:3).

시기심 가운데 최고의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마 27:18). 그분의 인격을 향한 증오심과 그분의 기적에 대한 거부감 뒤에는 이 강력한 시기심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도록 유대인들을 몰고 간 것 역시 유대인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이었다고 성경은 알려 줍니다(행 13:45, 17:5).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신약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듣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롬 13:13)

시기와 탐심의 차이는, 시기란 사람을 향한 것이고, 탐심은 사물을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롬 1:29)을 거부한 자들(딤후 3:23)의 특징이며 그 옛 사람의 영은 여전히 그 추한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약 4:5).

요셉의 형제들이 보인 모든 모습들-화, 악의, 음모, 잔인함, 냉담함, 속임수 등,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시기심입니다. 늘 그렇습니다(딤후 6:4, 갈 5:21). 우리가 형제들에게 짓는 죄의 거의 대부분이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시기심을 품게 되면 평강도, 안식도, 만족도 사라집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잠 14:30) 또한 그 누구도 시기 앞에 설 수 없지요(잠 27:4). “시기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약 3:16)

9월 13일

유다와 다말

“그때에”(38:1) 요셉이 배신을 당하며 팔려갔을 때를 말합니다. 동생에게 사악한 짓을 한 바로 그때에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사업에 열중합니다. 이점에서 보면 그는 실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요. 세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그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져 있지요(딤후 4:2). 세상은 구원자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음을 전혀 무시한 채 자기 일에 몰두

합니다.

“이 이름은 이런 뜻이다” 라는 식의 주석에 대해 저는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에 주어진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 붙이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머를 덧붙여 주고 싶군요. 유다는 “악덕 상인(또는 소개업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한 가나한 여인과 결합하였습니다. 그는 “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을 거부한 이후 그의 형제들(이스라엘 민족의 예표)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래로 유대민족이 보여준 모습과 똑 같습니다. 즉 그들의 손에 무죄한 피를 묻힌 채로 장사를 하는 것 말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은 “적대감”을 뜻하고 오난은 “사악함”을, 그리고 셀라는 “썩”을 뜻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며 세 번째는 어찌면 미래에 있을 경건한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인지도 모릅니다.

엘의 죽음은(7절)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죽이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제까지의 창세기 기록을 고려해 보면 성경이 이 자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끔찍한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9월 14일

창세기 38장 묵상

38:8-10 이 구절들은 인간이 시도하는 산아제한 혹은 피임 수단은 모

두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라고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가 쓴 <당신은 무엇에 대해 싸우고 계신가요?(What Are You Fighting about?)>에 나와 있습니다.

38:7,10 오난이 다말에 의해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유다는 그 역시 다말에 대해 자녀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엘의 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엘 역시 다말에게서 자녀를 생산치 못해서 죽은 것이 분명한 바 엘은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그 죄(동성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8:14-15,19 이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베일을 모든 여인이 착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인이 자기를 위장하거나 가리기 위해 베일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베일을 쓰고 있지 않다가 이삭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려고 (부끄러워 그랬겠지요) 베일을 썼습니다 (창 24장). 레이스로 된 수건을 머리에 두르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머리 덮개를 베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베일은 머리가 아니라 얼굴을 덮는 것입니다.

38:16 여자는 물질 때문에 자신을 비하시키고 남자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등급을 하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프고도 역겨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과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이 고린도전서 7:1-5에 나와 있군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역겹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마음속의 동기, 행동, 그리고 대화 모두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속 모습을 너무도 잘 계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 다소 위안이 되는군요. 이런 이야

기를 볼 때 우리는 사고나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38:23 타락한 남자의 마음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창녀와 늙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창녀를 만날 수 있는지 그 지방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도 유다가 창녀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때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부끄러워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창녀와 자고 나서 그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인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 굽실거리는 인본주의자들이여(You Humanists!) 그대들이 가엾구나! 동시에 그대들을 경멸하노라!

38:24 유다의 발언. 믿을 수 없습니다!

38:24-26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붙들고 살아 가고자 하는 의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긍휼과 은혜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와 비난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24절에서 유다는 그녀를 불태우라고 했으니 25절이 드러난 지금 당연히 “나도 불태우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짓을 했으니 끔찍하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그 짓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용서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인간의 뻔뻔함 아닌가요?

아마 유다와 같이 공정치 못한 편향된 판단을 한 두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의 잘못은 변명해주고 친하지 않는 자들은 비난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의”로 판단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38:26 죄의 마지막 모습 또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백했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으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또 다른 쌍둥이 한 쌍

조금은 지나친 적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말의 자녀들의 출생기록(창 38:27-30)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파”(28절) 성령님께서서는 하늘의 산파로서 수많은 혼들의 영적 출생을 도우시며 이들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안전하게 끄집어 내어 생명과 빛의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홍색 실”(28절) 만약 우리가 이것을 라합의 주홍색 실(수 2:18)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믿음의 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28절) 한편으로는 산파가 틀렸으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산파는 옳았습니다. 사실 믿음과 약속은 율법 이전에 왔었습니다(창 3:17).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기까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을 도로 넣으매”(29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출애굽 당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을 행사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시 95:10). 이로써 범죄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집니다(롬 5:20, 갈 3:19).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29절) 비록 믿음과 약속이 먼저 보였으나, 율법이 예상 밖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어찌 네가 튀어나왔느냐?”(29절) 율법은 약속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말하

자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베레스로부터 오셨으니(마 1:3) 이는 그분께서 율법 하에 오셨고 명령들을 먼저 성취하신 후 그리고 나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9월 16일

요셉과 보디발 1(창 39장)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요셉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유사점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늘 내려가는 곳입니다(1절). 이것은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인 점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도 맞는 말인 동시에 영적 진리의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멀리 내려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끝없는 찬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사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들”을 견디셨습니다.

요셉은 자유인도, 거주자도, 전쟁포로도 아닌 노예로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 된 자들에 의해 보디발의 손에 팔립니다(1절).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도 왕이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을 쥔 로마의 지배층 가정이 아닌 멸시 받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지요. 우리는 빌립보서 2:6-7에서 그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자의 종이 되실 것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노예였지만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2절). 환경

은 바뀌지만, 평안과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겔보기에는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도 하늘의 도시의 화려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요 3:2, 3:13).

과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이집트로 여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요 16:32) 라고 하셨습니다.

9월 17일

요셉과 보디발 2

“그의 주인”(2절) 이 말은 끔찍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환영하거나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들은 남부에서 자신들의 운명(노예생활)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자신들은 그런 생활을 결코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기는 하나 노예로 태어난 것보다 요셉처럼 좋은 가정에서 사랑 받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온 경우가 훨씬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이 순응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지 않았다고 화를 내거나 쓴

뿌리를 보일터이나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그것이 그에게 최상의 것을 가져올 것이라는 충분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뢰야말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제 우리의 복되신 구속주에 대해 생각해 보시지요. 그분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모시고 더 좋은 곳에서 더 큰 안락과 찬송을 받았던 분이 이 우주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 안으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갑자기 피곤으로 인해 주무셔야만 하고, 배고픔으로 인해 잡수셔야만 하며, 목마름으로 인해 마시셔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속박하에 놓여 계십니다. 율법의 창시자요 그것을 주신 분께서 그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들과는 어울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디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9월 18일

요셉과 보디발 3, 인간의 환경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인 그에게 형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하는 일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도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에게 복을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요셉의 수고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장이 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가, 목사가 되면 더 말씀을 전파하겠다는가, 아니면 자기가 책임자가 되면 더 많이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형통했습니다. 따라서 나쁜 환경은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빌 4:11-12).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여건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때는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노트 위에 떨어지기가 일수였지요. 그래도 아무 탈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많은 똑똑한 학생들은 가난했고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신의 출신이나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는 안전하게 지냈지만, 새 땅에서는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동굴에 있는 때는 안전했으나, 궁궐에서는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전쟁 때에는 안전했지만 승리 후에 넘어졌습니다. 사울도 작은 자였을 때는 안전했으나, 왕이 된 후 넘어졌습니다.

9월 19일

요셉과 보디발 4

“그가 그의 주인의 집에 있더라.” 요셉의 환경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특별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장소도, 종교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명백한,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동시에 빌립보에도 있습니다(빌 1:1). 우리는 시저의 집에서도 여전히 성도입니다(빌 4:22). 형통하는 종으로서 수고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시 1:3, 사 53:10).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와 접촉하는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정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3절).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인 것이 아니고 요셉의 열심이 그 이집트 사람을 감동시켜 그를 높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뒤따릅니다(잠14: 23).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놓였으니 이는 그의 손이 부지런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전 9:10, 골 3:22-23, 눅 16:10).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초림하신 주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요 3:35).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매우 기뻐하였으며(4절),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드님에 대해 증언 하시는 그것입니다(마 3:17 등).

9월 20일

요셉과 보디발 5

5절은 세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있으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

실히 보여줍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교회의 휴거 이후 계시록 6-18장에 묘사된 이 세상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배우자로 하여금 가정에 남도록 명하고 계십니다(고전 7:12-16).

요셉의 임재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 왔습니다(5절). 마찬가지로 모든 집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복을 누립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6절). 우리도 이 정도로 신뢰받을 행동을 해야지요. 요한복음 3:35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이 여인의 행동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7절). 이런 류의 여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세가지 교훈을 간단히 살펴 봅시다. 첫째, 선한 남자는 드뭅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찾고자 합니다. 그는 잘 생겼으며(6절)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눈을 고정했습니다(7절).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둘째, 선한 남자는 드뭅니다. 사탄은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셋째, 좋은 평판이 있는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홀로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오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순간에 명예도, 명성도 “부당하게” 망가집니다.

9월 21일

요셉과 보디발 6, 시험, 유혹을 거부하며

요셉은 유혹을 받았습니다(7절). 이것은 요셉이 죄를 짓고자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기회가 그의 앞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약 1:12-17). 예수님도

우리와 똑 같이 모든 점에서(히 4:15)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 4장, 눅 4장).

“그가 거절하며”(8절).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거절(refuse)이란 단어와 쓰레기라는 단어(refuse)는 철자가 같습니다. 이 특정한 죄를 거부해야만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잠 22:14, 2:12-19, 5:3-8, 6:23-29, 7:1-27, 살전 4:3-5, 딤후 2:22).

한창때의 외로운 청년이었던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 갔더라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와 눕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9절). 요셉은 이것을 큰 사악함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는 보디발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오늘날 간음을 큰 사악한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녀의 유혹을 무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남자들이 직장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는 함께 눕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절). 그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자가 나이가 들었든 젊든 간에 “조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망가집니다. (데이트만 좀 하고 거기서 멈추면 되지 뭐...?) 실패가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죄가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9월 22일

요셉과 보디발 7

11절에서 요셉이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스스

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12절).

음행을 피하라(고전 6:18)는 명령이 주어지기 수천년 전에 요셉은 이 명령에 유의했습니다. 그는 그의 순결을 버리는 대신 그의 옷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옛 말에 조롱당한 여인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했는데(13-15절)....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그녀는 외치면서 거짓말을 해댔습니다(14-15절, 요 8:44). 사탄의 일꾼은 당신을 소유할 수 없을 경우 당신을 망치려 들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겁니다(12-19절). 정신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순전함을 지닌 채 최선을 다해 올바르게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건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사악한 남녀의 손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운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마 26:59-60).

보디발은 진노했습니다(19절).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늘 그러하듯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신뢰한 반면 정직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잘못된 것이 없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올바르게 행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9월 23일

창세기 39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요셉

우리는 지금부터 고난당하시는 구원자의 명백한 예표로서 요셉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변명도 안 했습니다. 이사야서 53:7에 우리 주님과 관련된 예언이 나와 있고 그 예언은 마태복음 24:12-14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에게 행해지는 온갖 루머와 비방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 바로 잡고 모든 거짓말을 다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면서 진리가 들어날 때까지 그러한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손을 만드신 분의 손이 그러했듯이(마 27:2, 욥 34:19) 요셉의 손들도 묶였습니다(20절).

요셉은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20절). 마찬가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고 자 오신 분(요 8:32)께서도 감옥에 갇히셨습니다(사 53:8).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거부당한 뒤(26절)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행 4:26-27).

요셉과 예수님 둘 다 간수의 존경을 받았습니다(21절, 눅 23:47).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21절) 참으로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군요.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두

운 순간에도 그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21-23절).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구원자의 매우 분명한 예표를 요셉에게서 봅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죽은 모든 자들, 즉 소망의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 죽은 자들의 주님이십니다(롬 14:9). 그분은 이들 모두를 마지막 날들에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6:39).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이 또한 그리스도께 그대로 (영적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요 3:21). 이들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빌 2:13).

끝으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부주의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창세기 39장을 통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의 쓰라린 장면을 보고 난 후 “이 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서 구덩이로, 그 다음에는 구덩이에서 노예 상인에게로, 그리고 다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불쌍한 소년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야만 했지만 그는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단 한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삭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 상황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히브리서 12:2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요셉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9월 24일

또 다른 꿈(창 40장)

이번 장에서 우리는 파라오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잔 맡은 자를 통해 후일 요셉이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두 종류의 운명을 예시해준다는 면에서 이 꿈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1-4절: 요셉은 섬김을 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든지 늘 높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를 썼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었을 때 그의 앞길이 열렸던 것입니다(잠 18:16).

5-8절: 요셉은 뽀루통 할 수 있었고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낙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님을 신뢰하였고 심지어 그래야만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그

리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수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얻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9-11절: 포도송이를 짜서 잔에 담아드리는 주스를 새포도즙(new wine)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발효된 술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14-25, 23절: 사람에게서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죄수들은 요셉에게서 얻을 것을 얻어내자 곧 그를 잊고 말았습니다.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확실한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9월 25일

해석

해석이란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며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일부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확정하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40:8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이까?” 라고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지극히 당연히 “그렇다” 입니다.

인생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1. 사람은 사실을 직시한다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신 18:21)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십

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29:29)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14)

3.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 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사 29:12-14)

4. 주께서는 어린 아기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수년간의 공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눅 10:21)

5. 주께서는 젖을 떼는 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좀 더 성장했다고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식을 얻는 열쇠를 잃게 됩니다. 반면 성숙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사 28:9)

6. 주께서는 선포할 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암 3:7) 사실을 수집만 하는 자들에게는 통찰력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통찰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7. 교육과 타고난 능력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교육은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다. 아무리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믿음의 결핍을 보완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단 2:30)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 1:12)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벧후 1:20)

9월 26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1

“이 일들 뒤에”(1절) 이 구절은 복음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시 해주는 이야기가 끝난 후 적정한 시기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잔 맡은 자”(1절) 이 직책은 왕의 음료수 잔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왕 ” 이 구절에서는 이 왕은 하늘의 왕이신 분을 예표 합니다.

“실수를 범하매”(1절)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는 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혹은 왕을 불쾌하게 하매-역주).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이에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자아냈었지요.

“자기들의 주”(1절) 비록 이들이 지위를 잃고, 감옥에 갇히고 왕의 정죄 하에 있기는 했어도 왕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주님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주인이십니다(행 10:36, 갈 4:1). 모든 사람이 언젠가 그리 고백할 것입니다(빌 2:10-11) 그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화해 헌물)이십니다(요일 2:1-2).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딤후 4:10). 그분은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습니다(벧후 2:1).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행 16:31).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주님이십니다.

“파라오가…노하고”(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매일 노하고 계십니다(시 7:7).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습니다(요 3:36) 또한 회개치 않는 자도 진노의 날에 자신을 위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롬 2:5). 그 죄목은 나와 있지 않으나 왕은 그것에 대해 불쾌해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자 않았는데…뭘!”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변명하려 들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것은 다 죄입니다.

9월 27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2

“자기 직무 수행자들 중의 두 사람에게”(2절) 두 사람 모두 왕을 불쾌하게 했고 둘 다 왕의 진노 하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요. 둘 다 같은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엡 2:3).

“그들을 감옥에 두었는데”(3절)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불신 하에 가두어 두셨습니다(롬 11:32).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갇혀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권능에 의해 포로가 된 것입니다.

“호위대장의 집안에”(3절) 이것은 보디발의 집인 것 같은데 감옥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처음 일하던 곳 그리고 시험 받은 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좌를 떠나 육신의 몸이라는 감옥으로 오셨으나 그는 자신의 원래 지위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요 16:32, 요 3:13).

“요셉을 묶어 둔 곳”(3절) 투옥된 두 사람들에게 이보다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사셨으며 그분은 요셉처럼 죄가 없었고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결코 갈 수가 없었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호위 대장”(4절)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보디발이었을 겁니다. 만약 보디발이 맞다면, 그는 요셉에 대한 자기 아내의 고소를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풀어 주는 것이 겁이 났을 겁니다.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4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과 함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박 가운데 죄를 짓고 구원자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 영적 필요를 위해 가까이서 섬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해와 비가 우리 위에 있었고(마 5:45),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계셨습니다(롬 2:4).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4절) 죄 없는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서 두 죄수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경이롭군요. 사람의 아들께서 섬김을 받으시지 않고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욱 경이롭지요(마 20:28). 그분은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눅 22:27).

“그들이 한 동안 감금되어 있더라.”(4절)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은 한동안 자기의 육신의 감옥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 보자면 그는 회심 때까지 죄라는 감옥 안에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감옥에 있었고 모든 사람은 죽음 후로부터 심판 때까지 무덤이라는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속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바 모두는 구속 받고, 해방되고, 구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와 같은 구출을 성취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을 해방시키고자 오신 것입니다(눅 4:18).

“그들이 꿈을 꾸되”(5절) 이 두 죄수에게 각각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주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허락하셨고(롬 1:18-24) 복음 또한 모든 죄인에게 똑같이 선포되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두를 위해 죽으셔서 이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을 꾸었더라.”(5절) 그 누가 누구를 앞서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복음도 모

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개인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더 부담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시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9월 28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3

“각각의 꿈 해석대로 각 사람이 꿈을 꾸었더라.”(5절) 한 사람의 꿈과 다른 한 사람의 꿈은 정확히 반대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복음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사망을 선고합니다.

“감옥에 묶여있던” 복음은 육신과 죄, 혹은 율법의 속박하에 묶인 자들에게 왔으며 이들에게 왕의 자유와 의도를 말해주어 이끌어 내게 됩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구원자는 죄인들의 친구로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계획을 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들을 보았는데”(5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막 10:21) 그분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며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슬퍼하므로”(6절) 복음은 심판의 사실과 회개의 필요를 선포하는 바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인간은 슬퍼합니다. 이 때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해석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은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성령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들”(7절) 이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이 땅에서 책임 맡은 지위에 놓인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함께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이들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히 4:15).

9월 29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4

“어찌하여 당신들이 그리 슬퍼보이나이까?”(7절)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얼굴에서 슬픔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마음이 고통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 움직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을 읽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사 53:3) 죄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던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제와 사귀기를 원하셨지요(8절).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8절) 계시는 양심이나 율법, 혹은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므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8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처해있는 슬픈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욥기 33:22-24에 보면 그 혼이 무덤에 다가가고 그 생명이 멸하는 자들에게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천명 가운데 한 사람,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 하는 사자(messenger)가 없어서 그의 곧 바른 길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실한 사자가 죽어가는 혼에게 인간은 곧 바르지 못함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보여줄 때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 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였습니다. 그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위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빌립이 그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때까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죄인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계 27:17).

9월 30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5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8절) 성령님께서서는 죄인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세워진 장애물 때문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기는 하나 그것은 거의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혹은 읽었던 말씀)이 기억났을 때입니다. 보통의 경우 성령님께서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믿는 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행 1:8, 2:1-14).

이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입술로 요셉은 그 꿈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알았습

니다.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9절)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입니다(요 15:1). 그분은 왕을 불쾌하게 했던 자들의 눈 앞에 서 계십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어둠 속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세 개가 있었고”(9-10절) 이 진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세 가지 면에서 사실입니다. 첫째, 그분은 그 지위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보다 앞에 계십니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지요. 그분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둘째,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모든 인간보다 앞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을 앞설 수 없습니다(요 1장, 골 1장). 셋째, 그분은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들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 않으므로 누구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분을 찾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행 17:27) 모두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되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10절)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는 열매 맺는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매를 가져오시지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으나(사 5장)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주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니 이는 그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서 익은 포도를 송이째 가져 오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혼들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10월 1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6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11절) 잔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파라오에게 무언가를 바칠 지위에 있었습니다. 복음도 죄인들을 하나님께 무언가 바칠 수 있는 지위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그 잔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왕을 조롱할 뿐 그에게 아무런 기쁨이나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잔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선행, 이웃돕기 같은 것들은 그릇만을 흠모하는 자들에게는 매력적이고 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가 없이는 그것 가지고는 그분께 기쁨도 만족도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포도들을 따고”(11절) 믿는 죄인은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11절) 이로써 그 잔에는 주스가 있게 된바, 즉 포도의 피가 그것입니다(49:11). 이것은 복음의 부르심에 죄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바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포도들을 탄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인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는 부서져서 그것으로부터 피가 짜여 나와야만 합니다.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11절) 이로써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을 위해 갈보리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신의 혼을 가져가서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에 신뢰와 믿음을 놓게 됩니다. 잔 맡은 자는 그 잔에 들어 있는 것을 파라오에게 바침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도 어린양의 피를 바침으로만 하나님께로 회복됩니다. 이것만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왕의 집안

에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0월 2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7

“**사흘**”(12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삼 일간 무덤에 계신 것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고 나서 풀려날 때까지의 삼 일간은 성령님께 인도받고 있는 기간, 혹은 찢림을 받고 생각하는 기간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계시되는 시점과 죄인이 실제로 그분께 다가가 회복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받아들여진 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이 변화는 너무도 ‘과격’한 것이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 언급됩니다.

“**당신의 자리에 회복시키리니**”(13절) 구속 받은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아버지와 건전한 교제를 되돌려 받게 되며 오는 세상에서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13절)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섬깁니다(계 22:3). 그러나 이 섬김은 늘 피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전에…하던 것 같이**”(1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자의 관계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에게 기대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과거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놀라운

삶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요 17장, 롬 8장). 그분은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로 왕궁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어쩌면 그토록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있는데도 아직도 그 방에 그대로 앉아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서 일어나 전진해 가십시오(히 6:1).

10월 3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8

“나를 생각하고”(14절) 구원받은 죄인이 그의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군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요.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회복과 자유를 만끽하나 그들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잔을 바치는 그 사람은 왕께 잔을 바칠 때마다 요셉을 기억했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도 잔을 들고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14절)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은 죄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이 어려울 때보다 일이 잘 될 때에는 구원자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14절)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보이는 모든 친절은 그분께 보이는 것입니다(마 25:40).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해서나 선행으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님

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큰 선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14절)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만 예표에 한정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해 주세요. 저것을 해 주세요. 하면서 목록만 열거하는 기도가 아닌지요. 아버지께 나아가 아들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 드리고 아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는 얼마나 자주 드리시나요?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14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계심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죄인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아버지께 이에 대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10월 4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9, 예수님의 무죄하심

“나는 히브리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15절)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드님을 끌고 오게 됩니다.

“참으로”(15절) 메시아의 강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오래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 하였나이다.”(15절) 흠잡을 데가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게 죄를 지은 것

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요 8:46). 예수님의 무죄와 죄 없으심에 대해 적어도 7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1.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한 피” 라고 언급했습니다(마 27:4).
2. 본디오 빌라도 역시 그분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요 18:38, 마 27:24).
3. 빌라도의 아내는 그분이 의인이라고 믿었고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마 27:19).
4. 헤롯도 주님을 조사했으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눅 23:15).
5.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는 그분이 죄 없으심을 깨달았습니다(눅 23:41).
6.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은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눅 23:47).
7. 사도들도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벧전 2:22, 고후 5:21).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사 53:8).

10월 5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10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죄수에 관한 슬픈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16절). 이 사람은 복음을 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 관심을 두는 사람과 같습

니다. 만약 그 꿈의 해석이 좋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꿈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으려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만 말씀을 받으려 했습니다.

“흰 바구니 세 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16절) 이 사람은 여러모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잃어버린 자”를 대변합니다. 이 자는 자기 손에 잔을 들고 있는 대신에 머리 위에 바구니를 세 개 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고 한 번 드러진 바 된 한 희생을 드림으로 자신을 받아주시도록 하는 대신에 자기 머리에서 구상한 여러 종류의 일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구니는 자기 의로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구니를 선행, 종교 생활 그리고 높은 사회적 명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17절) 이것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17절)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빵 굽는 자의 노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들입니다.

“새들이 내 머리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17절) 이들 인간이 만든 맛있는 과자들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며 사탄의 일꾼들에 의해 복음의 좋은 씨앗이 삼킴을 당한 사실을 떠올립니다(마 13:4,19). 마귀는 이런 것들로 자신을 살찌우고 그것들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요새를 강화시킵니다.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의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는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진리도 들어 있습니다(롬 1:17, 18).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같은 태양이 양초는 녹이지만 진흙은 굳게 합니다.

“사흘”(19절) 계시를 받고 나서 결정(거부)을 내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19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국 심판 날에 생명과 평강으로부터 끊깁니다. 심판은 동료 죄수나 공중의 새들이 아닌 왕좌 위에 앉으신 왕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멸하십니다.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19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신 21:23).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 날 피고 위에 떨어질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이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갈 3:10-13). 그러나 그분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신뢰하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19절). 새들은 마귀들을 대변합니다(마 13:4, 19).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국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마 25:41) 영존하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잃어버려진 자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을 흠쫓던 바로 그 세력에 의해 소멸되고 맙니다.

10월 6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11

“파라오의 생일”(20절) 모두가 왕좌를 둘러싸고 모이는 그 위대한 날은 성대한 생일 파티와 같을 것입니다. 이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날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족, 즉 모든 시대와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20절) 주님 또한 이러한 잔치를 베푸십니다(마 22:2, 눅 13:29, 22:30).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올리니라.”(21절)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행 24:15).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복귀시키며”(21절) 그날에는 하나님의 상한 형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엡 4:24, 골 3:10).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모습입니다(롬 8:29).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더니”(21절)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계 22:3). 구름 위에 앉아서 항상 등실 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바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전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창조 때에도 우리는 할 일이 많을 것이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14년간의 노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일을 해도 기쁠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왕좌 주위에서 섬기는 곳까지 오게 하시다니! 참으로 위대한 구원이 아닙니까?

10월 7일

창세기 40장의 예표 12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22절)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불 호수로 내던져집니다(계 20:15).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예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전적으로 왕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당신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롬 10:13),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지 그 결정으로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정죄 받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22절)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해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 외의 모든 것은 다 좌절로 끝납니다. 추측도 이성도 확실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죄하였으나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습니다(사 53:12). 이 두 사람은 범죄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었으나 악한 자들과 함께 투옥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인간을 속박하는 곳으로 오셨고 인간의 저주와 불평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궁핍과 배고픔을 아셨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셨으며 슬픔과 고통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들어올리시고자 자신은 더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주님처럼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으나 또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막 13:31).

10월 8일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창 41장)

요셉은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1절, 롬 8:28). 우리는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한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창세기 40:23을 보니 잔 맡은 자가 파라오에게 요셉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꿈은 그 어떤 이집트 사람에게도 (특히 왕에게는) 끔찍한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암소는 신성한 동물이고 이시스라는 여신의 상징입니다. <사자의 서>라는 이집트 책에는 오시리스가 일곱 암소들을 거느린 황소로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이집트의 신들이 미쳐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꿈(5-7절)은 첫째 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뭔가 나쁜 일이 뭔가 좋은 일 뒤에 일어날 것임을 추측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 본성은 참으로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가 아무 쓸모가 없었다면 파라오는 왜 즉시 그들을 해임해 버리지 않았을까요?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전혀 지혜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어째서 그들을 내보내 일을 찾아보도록 하지 않은 것인가요?

손금 보는 자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그들이 몰고 다니는 더러운 차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래를 읽을 줄 안다는 자들이 어째서 경마에서 돈을 매번 따지 못하는 걸까요? 영혼과 직접 교통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째서 당신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병을 다 고쳐준다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안경을 써야만 한다면(자기 시력도 못 고친다는 뜻-역주) 그들은 사기꾼이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눈뜬 장님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다니…)

10월 9일

잘못

“그때에 잔 말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41:9)

잘못은 결점, 부족한 점, 도덕적 실수, 흠결 혹은 불완전함을 말합니다. 잘못은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때론 죄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구 상의 여러 지역에는 흠이 있는 선이 있습니다. 땅의 여러 부분들이 불완전하게 맞닿아 있는 곳들입니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안되지만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흠결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우리 삶의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약한 부분은 때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하여 우리 삶에 많은 손실을 끼칩니다. 우리는 은밀한 잘못들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시 19: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약 5:16). 물론 죄는 오직 예수님께만 고백해야 합니다. 사제에게 말했다간 그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소문 내고 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도와 주어야 합니다(갈 6:1). 이와 같은 회복사역은 가능하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마 18:15).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벧전 2:20).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예상 밖으로, 때로는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눅 23:4). 그분은 믿는 자 안에서 살고 계시며 우리의 잘못들을 모두 제거하신 채로 우리를 하나님께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유 24). 구원자의 이 복된 사역은 계시록 14:5에서 입증됩니다.

10월 10일

창세기41장 묵상

잔 맡은 자가 파라오를 대하며 2인칭이 아닌 3인칭을 사용한 것은(10, 13 절) 존경심에서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14절: 요셉은 이교도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정숙한 차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옷차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수염은 이집트에서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반대입니다(삼하 10:4, 레 21:5).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개

인적 선호나 심지어는 자기 동족의 기준마저도 버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 요셉은 자기가 얻을 기회를 틈타 불의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풀려 나기를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9, 21, 23절: 이것들은 첫째 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24절: 종교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25절)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 혹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역의 신으로 만들거나 창조의 일부분만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지칭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하고 심오한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온 우주에서 온 백성과 온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성경의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며 계시해 주십니다.

30절: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 기록이 실제 역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7년간 두 번의 기간에 대한 사실은 윌버(Wilbour) 씨가 세헬(첫 번째 폭포)에서 발견한 상형문자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캅(El-kab)에서 바바(Baba)의 무덤에서 발견된 상형문자 석판에 또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브루그쉬(Brugsch)가 쓴 “이집트 역사” 304에 면에 번역되어 실려 있습니다. 1908년 7월 브루그쉬 베이(Brugsch)는 7년 연속 나일강이 범람하지 아니하여 채소가 말라 죽고 수확이 없게 되었고 이 기간 중 기근과 궁핍이 이집트 온 땅을 황폐케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셔(Ussher)의 연대기에 맞추어보면 B.C. 1700년 때쯤입니다.

32절: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사악함을 두 배로 늘린 다음 그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사 40:2, 61:7, 렘 16:18, 17:18, □ 9:12, 계 18:6). 그분께서는 그들이 다른 자들에게 행한 것들을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뿐입니다.

33-34절: 앞이 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섬겼던 경험은 결국 이날을 준비시켜 준 셈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때가 되면 그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오!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섬김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38절: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심지어는 이교도들도(안 믿는 자들도) 그 사실을 알아 차립니다.

40-43절: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단 한 사람 요셉이었지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46절: 30년간의 훈련과 준비 과정은 결국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긴 기다림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이상한 표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 리이다.”(41:6)

위에 인용된 말씀은 파라오가 꿈 이야기를 한 바로 다음 주어진 것입니다. 각 꿈에는 불의한 자에게 비와 태양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베푸시는 큰 풍요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좋은 시절을 삼켜버릴 끔찍한 기근이 있게 될 것 또한 이 꿈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화평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창조물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내적으로 이 균형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거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안정감이 없고 확실하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잔 말은 자가 파라오에게 답변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현자와 마술사들의 침묵 속에서 모두가 군주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다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내린다는 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집트의 현자들이 오늘날의 강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 휴머니스트들은 지옥 불과 저주에 대해 선포할 때 이 세상 치리자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을 냅니다. 그러나 파라오를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셋째, 이 계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도록 해 줍니다. 7년간의 풍요와 빈곤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직면하고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게 해 주는 것이 경고의 기능입니다. 지옥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10월 12일

창세기 41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 1

14절: 요셉은 구출되었고 감옥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사 53:8). 또한 사도행전 2:24, 요한복음 20:6-7을 보세요.

14절: 그는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요 20:6-7).

16절: 요셉은 비밀을 계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그렇습니다(요 17:8). 두 분다 미래의 위협에 대해 경고를 했고 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마 24:37-44).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셨듯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미래를 계시해 줌으로써 파라오의 걱정하는 마음의 짐을 털어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데 이는 그가 믿음으로 요셉이 그에게 계시해 준 것을 믿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33-45절).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같은 믿음을 행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놀라운 조연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 그대로 적

용됩니다(사 9:6, 골 2:3). 이집트 백성을 확실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는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조언을 따릅니다(마 7:28,29). 요셉이 진리를 말했으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헛되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의 길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에 입각해서 행동하였나요? 올바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별개입니다.

10월 13일

창세기 41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 2, 왕좌

요셉은 파라오에 의해 높임을 받아 왕좌에 앉게 됩니다(40절). 그는 스스로 자신을 드높인 것이 아니고 그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그리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음이 빌립보서 2:9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빌 2:9)

요셉은 최고의 왕좌를 제외하고 것보다 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40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놓여있고 통치받고 있으며 그분의 지혜로운 눈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벧전 3:22). 주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파멸에 이를 때까지는 주님은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고전 15:25).

이렇게 해서 요셉은 파라오의 왕좌 옆에 앉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계 3:21).

요셉은 본인의 가치로 인해 높여졌습니다. 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이집트에서 주어진 것은, 그 없이는 죽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의 지위는 정치적 직분도 아니고 백성이 선출해서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절대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그의 안에서 지혜와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미덕 때문에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주이신 분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사 9:6-7).

38절: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서 나타났습니다(행 10:38).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사 11:2).

39절: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요 5:20).

40절: 그는 그 집을 다스렸습니다(히 3:6).

40절: 그는 백성을 다스렸습니다(행 5:31).

42절: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맞는 증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행 5:31, 히 2:9).

10월 14일

창세기 41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3, 결혼

요셉은 이 민족으로 이끌려 와 종이 되었고(창 39장) 죄수로 간주되었으나(40장) 이제는 승자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권위와 영광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행 2:36).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외침 소리가 놀랍지요? 이는 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빌 3:10).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나 어쨌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는 그들 모두를 다스립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그리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요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44절, 요 15:5). 그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고 그 이름의 의미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21과 사도행전 5:31을 읽고 기뻐하세요.

그가 높임을 받은 뒤 그는 이방인 신부를 얻게 됩니다(45절). 그리스도의 몸 역시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취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에게 기쁨을 더하기 위해 그분께 주어집니다(행 15:14, 엡 5:31-32).

이 혼인은 왕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마 22:2).

이 혼인에 뒤이어 전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입니다(54절). 이 기간 중 살아 남으려면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55절, 요 2:5). 요셉은 7년간만 백성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54-57절). 모든 민족들이 빵을 얻기 위해 그에게 와야만 했습니다(요 6:35). 이와 같이 그는 민족들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요 1:11). 이 사실들 앞에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것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49절: 그가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엡 1:7, 2:4).

10월 15일

창세기 41장 마지막 묵상

“바다의 모래같이”(49절)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숫자에 관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경우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1) 아브라함의 씨(창 22:17)
- (2) 요셉의 곡식(이곳)
- (3) 다윗의 씨(렘 33:22)
- (4) 솔로몬의 마음의 넓이(왕상 4:29)
- (5)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시 139:18)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50절) 그는 기근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자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종말이 올 것이니 사고 팔고 결혼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들을 하되 하나님을 잊지는 말 것을 경고할 뿐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건 인간에게는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희망을 갖고 바라보기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민족으로 유대인을 지목하는지 모르나 실상은 열두 지파 중 두 지파는 이집트인과 섞인 혼혈입니다.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39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으며(골 2:3), 그분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요 2:25).

므낏세는 “잊어버림”을 뜻합니다(51절). 에브라임을 “열매가 가득함”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들은 잊어버리시고 우리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38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만 명 중 최고요 온통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아 5:10, 16).

10월 16일

이집트에 있는 곡식 1(42장)

이번 장에서 우리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더 충격적인 유사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1절) 본문을 보니 “듣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취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얻어 돌아온 자들이 가져온 곡식을 야곱은 직접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죄인은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인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거할 곳을 믿음으로 이미 확보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거룩한 삶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권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1절)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녀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구원을 찾습니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사제, 랍비, 목사를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살려면 곡식이 필요한 자들일 뿐입니다. 마호메트, 간디, 마리아,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생도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의 빵을 거저 받기 전에는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죄 가운데서 죽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2절) 이 진리는 칼빈이 놓쳐버린 것으로 실로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곡식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요셉에게로 가면 됩니다.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만만 하면 그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가면(그러면) 살고 죽지 않습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자 하는 자는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거절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롬 1:18-22).

“요셉의 형(제) 열 사람이”(3절) 형들은 기근으로 인해 “한 때 거부당했던 한 사람”의 발 앞에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처지에 있을 때에는 그를 찾을 생각이 없었으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전혀 갈 계획이 없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절에는 구원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처지가

되니까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열 형이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그분께로 돌이키고 나서야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여기 저기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시도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4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들의 운명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베냐민을 붙들어 놓고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가면 요셉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주저함은 오늘날의 유대인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0월 17일

이집트에 있는 곡식 2

창세기 4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하고도 교훈적인 예표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 민족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빵도 없이 거하고 있었습니다(5절, 요 6:48).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들은 그 복을 나누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유대 민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굶

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은 한때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은 민족에 대한 심판인 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니”(6절)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러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지금은 메시아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그분 앞에 민족 전체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 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8절) 주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알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 하십니다(롬 11장). 그러나 그분을 오래 전 내던져 버린(요 1:11) 자들은 오늘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고후 3:14-15). 요셉은 그들의 이름, 얼굴, 행실, 및 과거를 다 알고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오늘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알지만(렘 5:3, 16:17, 호 5:3)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7절)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이렇게 대접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7년 환란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말들은 실로 거칠 것입니다. 둘째,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시험코자 그리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한, 죄책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완악하고 무관심한지를 보시려는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용서를 기뻐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자 갈망하시나 이런 공효는 마음이 부서지고 상할 때까지는 주어질 수 없지요(시 51편).

“요셉은 꿈들을 기억하고”(9절) 7-17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지요. 그들의 삶에 관해 진실을 토해내도록 하였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

들을 다스리게 될 것에 관해 주어진 예언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양심을 품고 서나 그저 변덕스러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에 반대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되고 맙니다.

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벌하실 겁니다(호 9:17, 마 23:35-38).

추신: 여러분이 창세기 41-50장을 읽으실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장들이 미래적, 예언적 관점을 지니고 있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2:1에서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만으로는 굶주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이는 그 소식을 믿고 행동이 취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일 경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호칭됩니다. 창세기 45:25-28에도 이 진리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예시됩니다.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25절).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했으나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25절). 그러나 27절에서 제시된 증거를 받아들이자 28절에서는 즉시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28절).

따라서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창세기 그 부분을 읽어 가십시오. 무려 2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으니깐요.

10월 18일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구덩이에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더 정직하게 “한 명은 우리가 노예로 팔았나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명은 우리가 미워해서 없었습니다.”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얘기할 때 최대한 미화시켜 우리는 악하고, 못됐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크게 부풀리지만 (얘기를 극적으로 만들려고 “양념”도 치지요.) 자신들의 잘못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애쓰지요.

“한 명은 있지 않습니다.”(13절) (이 표현은 영어로 And one is not 이며 이 때…“가 아니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역주). 무엇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노예인지 아니면 지금 그들 앞에 통치자로 서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를 기억에서 지워 버렸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의 동생은 상인들에게 팔려 끌려간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다수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으로 완전히 잊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없애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은 일으켜지지도 않았고 살아있지도 않으며 주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기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있지 않을 뿐(is not)”입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 땅을 한때 걸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려 할 것이고 어쩌다 한두 사람은 그분이 주님일지도 모른다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고백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가 대단히 신중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그분은 단지 “있지 않은 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창세기 42장에서 열 형제가 그리했듯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를 알게 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10월 19일

이집트에 있는 곡식 3

15-16절에서 요셉은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짓을 동생에게도 하려 하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합니다.

삼일 뒤 그들은 이집트의 총독과 두 번째 면담을 하며(17절)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알게 되자 일말의 희망이 엿보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중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요셉의 간증을 통해 듣는 것만큼 은혜로운 장면은 없습니다. 앞서 몇 번을 살펴 보았으나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것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39:9)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이까?”(40:8)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41:16)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41:32)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41:51) 이처럼 요셉의 생애를 통틀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인도받고 통제되었습니다.

다.

이 사실만이 요셉이 왜 아무런 불평 없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두려운 여건하에서도 소망을 유지 할 수 있었고, 그에게 해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대해 줄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20절에서 요셉은 구출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요셉의 형제들의 삶에서의 양심의 역할, 그리고 이 또한 환란 기간 중 남은 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일도 보여 주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21절). 연상의 법칙이 작동 중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고난을 회상했고 자신들이 그의 요청을 어떻게 거부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고난은 자신들이 그 옛날 지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심판임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동생을 산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해 떠났음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요셉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 중 몇 사람의 충고를 무시한 채 죄를 지었고 요셉의 피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속에는 참된 회개의 요소가 놀랄 만치 선명하게 들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1) 양심: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2) 기억: 우리가 고통을 보고도

(3) 이성: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때의 21번의 심판들은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분께

서 그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은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혼의 괴로움을 보았으나 조롱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다와 빌라도 같은 자들마저 (자기들 편 인데도) 그들의 잘못을 언급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대 환란이 닥치면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고 나서야 그들의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추신: 21절, 우리가 성경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다 읽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전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서 주어지지 않은 사실(정보)이 다른 곳에서 주어지니까요. 요셉이 겪은 고뇌와 간청은 창세기 37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10월 20일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 간의 대조적 모습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하니라.”(창 42:22)

이 시점에서 르우벤은 자기 형제들을 꾸짖으면서 자신이 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잘못된 점을 꾸짖기는 하나 도덕적인 가치는 별로 없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불안정한 사람이었으며 이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문제는 그 불의한 행동을 막지도 않았고

잘못을 바로 잡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그런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막을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두고 얼마나 후회하고 애통해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아버지께 고백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감정이 북받치자 물처럼 불안정한 영을 지닌 르우벤은 비난의 화살을 형제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실은 그도 공범인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하긴 했지.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 자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돌려대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보기 흉한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20년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요셉에 대해 분명히 생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옛날에는 “그 꿈쟁이” 라고 낙인을 찍었으나 이제는 “우리 형제”, “그 아이” 라고 부르고 있군요. 조롱하던 태도가 적어도 일말의 관심과 동정으로 바뀌었군요.

10월 21일

이집트에 있는 곡식 4

요셉과 예수님의 비교는 42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요셉은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23절).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지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우신 것처럼(눅 19:41) 울었습니다(24절). 이 눈물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 그 어떤 짓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대부분 거부나 증오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보다 뛰어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확대한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고 거부하였는데 말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거부했는데도, 요셉은 그들이 타국 땅에 머무는 동안 필요를 공급해주었습니다(25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세월 동안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존해 오셨습니다(렘 30:11, 겔 11:16).

그의 형제들은 일시적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26-28절).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다루고 있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루 하나에서 돈이 발견되자 여관에 머물던 아홉 사람에게 큰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들이 집어 넣지도 않은 돈을 보자 그들의 양심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자신들을 찾아내었음을 알게 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죄가 그들을 붙든 셈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기진하였습니다(28절). 그들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고했는데 그때 보니 모든 자루에 다 돈이 들어있었으며 이에 “그들은 두려워” 하였습니다(35절).

이 사건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것 말고도 요셉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이들에게 곡식을 거저 준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그들의 사랑과 애정을 기대할 뿐입니다.

죄책감에 젖은 형들에게 과거의 행적이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만이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것이 모든 선한 일들의 시작인바 그들에게는 유익한 사건인 셈이지요. 생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계시 받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당혹해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고통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주머니를 털든지 잘못을 시정하든지 해야 합니다. 요셉의 곡식과 내 돈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저 주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가능한 요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합니다. 이 곡식을 다 먹으면서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이상한 통치자와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양심이 깨어난 대부분의 죄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일시적인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죄책은 심히 꾸짖으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은 거저 주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이상한 분을 다시 만나는 그 공포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인식했던 과거를 기억할 겁니다.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도 알았는데, 지옥에 갈 두려움에 떨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얼떨떨했었는지요? 그래서 “그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루었던” 기억이 나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이 마무리됩니다.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능하면 버텨 보려고 하지요.

10월 22일

진지한 거짓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42:36)

사람은 때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나 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야곱은 모든 사실을 다 수집했으나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미리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36절에서 우리는 앞서 여러번 경험했던 야곱의 옛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아들들을 대적하는구나.” 라는 고백 대신 “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군요. 물론 인간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처한 딱한 상황이고 보면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본성에 속한 반응 대신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야곱의 믿음 없는 반응에 우리 모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번에도 전적으로 인간적 관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는 고백은 슬프고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일은 후일 결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옛 사람은 4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1. 그는 요셉이 죽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2. 그는 시므온도 이집트에서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는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3. 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 모든 것을 놓고 결국은 모든 일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푸념을 합니다.

참된 신자라도 이처럼 시야가 안 좋을 수 있다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시대에도 항상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전혀 실패 없는 섭리”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푸념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계시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0월 23일

창세기 42장 묵상

Corn(곡식, 1절). 이 단어는 원래 옥수수를 가리키나 성경에서는 모든 종류의 곡식을 지칭합니다. 고기를 뜻하는 meat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창 35:23)이나 그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보호하려고 했었으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므온은 서열로도 둘째이며 이미 그 잔인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창 34:25-30). 따라서 요셉을 제거하는 음모를 주도한 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37절은 르우벤이 불안정한 감정을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안 자

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그가 이집트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일이 잘 안되었을 경우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제안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거부로 자신과 가족 전체의 유익이 될 일이 지연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는 것 또한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 홀로 남았도다.”(38절) 다른 아들들이 다 있는데 어찌 그가 혼자 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라헬에 대한 그의 편애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편애로 가족이 겪은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의 자식 중 하나만 남았다는 말을 했으나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나 모욕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그 편애와 이에 대한 그들의 원한 때문이었으니까요.

10월 24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압박이 가해짐 1(43장)

결국 모든 곡식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집트로의 여정이 결정되지 못합니다. 이는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 생활을 겪었던 요셉처럼 시므온도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들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3-5절).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들의 말을 믿기는 하지만 그의 육신에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 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6절). (동생이 없다고 하지 왜

말했느냐는 뜻-역주). 아들들은 “너무도 분명히 물어보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답변합니다. 이에 야곱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는 이삭이 자기에게 했던 그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네가 에서냐? 어떻게 사슴을 그리 빨리 잡았느냐?”

8절은 욥기 2:4에서 사탄이 한 발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우리는 유다가 열두 지파의 선두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9절) 자기가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노라고 합니다. (히 7:22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께 호소하며 핵심을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담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원히 비난을 받겠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통치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합니다. 과거 자신이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했었는데 그 전략을 다시 채택한 셈입니다. 지난번 되돌려 받은 돈을 다시 가져 갈 것도 말했습니다(11-12절). 이제 야곱은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늙은 야곱의 마지막 발언은 주님의 뜻을 받아 들이겠다는 올바른 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명론적 굴복’ 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인 것을 보면 긍정적 해석이 맞을 것 같군요-역주)

10월 25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압박이 가해짐 2

지체하다(lingered)라는 표현은 오직 이곳(10절)과 창세기 19:16에서 롯에 대해 쓰일 때, 이렇게 딱 두 번 쓰였습니다. “다른 장소가 더 나쁜 장소가 될까 봐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굶어 죽고 있지는 않았습다. 그들에게는 유향, 꿀, 향로, 몰약, 견과 및 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즉 간식 거리는 있었으나 주식인 곡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런저런 상품들이 있기는 하나 생명을 유지하고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자 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꼭 필요한 것을 교환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을 얻게 되는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지요.

12절: 두려움에서든지 빵을 얻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든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이럴 때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경우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쓸 텐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동기를 지녔더라면 그 돈을 받 견하자마자 되돌려 주었을 겁니다.

11, 13, 14절: 그 사람(The man)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그저 “그 사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 요셉이 예표하던 그분 역시 자기 형제들에게 그저 그렇게 보였을 따름입니다. “그 사람”을 보라(요 19:5, 궤 6:12).

그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 앞에서 공물을 베푸시는 것 뿐입니다(14절).

14절에서는 야곱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굶어 죽는 것보다 베냐민에게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좋은 면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르우벤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나쁜 모습이지요.

10월 26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압박이 가해짐 3

18절: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군요. 요셉은 자루 속의 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죄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명예로운 손님으로 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 남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비교적 작은 실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실상은 그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중죄야말로 “적대감”의 참된 원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에 대해 얼마든 추궁거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인간들을 즉시로 처형하셔도 너무도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저 작은 죄 백만 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을 거부한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이기보다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에 찔림과 회개를 가져 오십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죄책을 알기에 두려워하나 하나님의 긍휼은 알지 못합니다(18절).

인간은 작은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19-22)

친구에게 당신이 다른 친구에게 해를 입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하신 주님과 화평케 될 필요가 있다고” 그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나 그분 앞에 직접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또 다른 유사점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은 인간 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성정인 반면 주님의 길은 항상 그러하니 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10월 27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압박이 가해짐 4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 19-25절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성령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형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청지기를 만납니다(19절).
- 그는 그들의 마음에 화평을 전합니다(23절).
- 비록 그들이 주님과 확실한 관계가 아니긴 해도 그는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제시합니다(23절).
- 그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24절).
- 그는 그들에게 씻을 물을 줍니다(24절).

- 이로써 그들은 요셉 앞에 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와서 그들을 대면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25절).
-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인들을 생명의 빵 앞으로 인도하십니다(23, 25절).

26-28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37:7-9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모든 심적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요셉은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바로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베냐민을 바라봅니다(29-30절). 얼마나 오랜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열 한개의 별이 절을 한다고 한 꿈대로 사랑하는 베냐민도 이들 중에 한 명으로 와 있군요.

베냐민의 모습을 보니 요셉은 가슴이 벅차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묘사하면서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은 30절에도 나와있습니다(히 4:14-16).

옛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 인종들의 차이를 인정했습니다(32절). 그렇다면 형들은 왜 요셉이 이집트인들과 같이 앉지 않았는지를 의아해 했을까요? 세상은 자주 성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세상과 어울리려고 너무도 애를 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33절). 이렇게 해서 그는 그들의 닫힌 눈을 조금씩 열어주려고 합니다.

“다섯 배”(34절) 이는 형들을 시험코자 하는 또 다른 시도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했듯이 베냐민에게도 양심을 품을까요?

“음식(mess)”(34절) 군대음식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God Almighty)라는 칭호는 흥미로운 호칭입니다. 이 칭호는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4번 나오며 늘 야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기 6:3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야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이름은 조상들에게 관련되고 두 번째 이름은 민족에게 연관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번 말씀하는 분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10월 28일

복으로 가득 찬 자루 1

이번 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축복이 될 일과 동시에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게 해줄 몇 가지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참새를 먹이시고 백합도 입히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습니다(롬 1장).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

는 자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은 거저입니다.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거부한 그 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루를 채우라.”(1절) 형들이 과거에 그에게 한 짓을 감안한다면 요셉은 형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나쁜 마음은 요셉의 착한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 모두에게 양식은 물론 돈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1절) 요셉의 종들은 이들에게 제공된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 모두 불룩 튀어나온 자루를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그들의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이들은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질시합니다. 또한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충분히’ 보다 더 많이 소유한 자들을 시기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유한 자들을 또 시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사람은 실로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땅을 바라보고 음식을 쳐다볼 뿐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자루에 있는 돈”(1절)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 겪은 모든 것에 대해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수년간의 노예생활, 투옥, 마음의 고통, 멸시를 당함, 아버지로부터 떨어짐,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함 등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갚

을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은 그가 준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형들의 시도를 막 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들이 그분께서 거저 주시는 생명의 선물에 값을 치르려는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은잔”(2절) 그들의 자루에 은이 들어갑니다. 은은 구속의 예표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들은 은을 받았으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벧전 1:18).

“이른 말대로”(2절) 우리의 복과 우리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고 우리의 혼에 진리를 제시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니라.”(3절)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이득에 대해 기뻐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쩌서 그토록 호의를 입게 되었는지 잠깐 의아해했을지 모르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준 음식과 요셉이 준 돈과 요셉이 준 금잔을 가지고 떠났으나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니…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따라 잡으라.”(4절)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역시 회개치 않은 자들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복으로 가득 찬 자루 2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청지기가 전달한 요셉의

말입니다(6절). 그러자 형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7-8절). 비록 이들이 많은 죄를 지었으나 이번 경우는 무죄라고 언뜻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은잔으로 점을 쳤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의 목숨을 빼앗았고 가족관계를 끊어버렸고 고향을 버리게 만들었으니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을 거두기 시작할 때 과거에 심은 것 대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그 이유를 찾곤 하지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당황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러시는가?” 하면서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한 일을 되돌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규범을 거부했던 바로 그 옛날의 일에 대해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도둑질을 하리이까?”(8절) 오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의 옷을 훔쳤었지요. 그의 청춘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그에게서 빼앗았으며 아버지의 기쁨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히위 족속의 생명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분명코 도둑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에게서 죄를 지적 받으면 즉시로 큰 죄를 떠올리며 자신은 살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응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로 자신을 정죄한다며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오. 회개하십시오.

10월 30일

복으로 가득 찬 자루 3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붙잡혀 요셉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추궁당하자 그들은 모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과 똑같이 답변합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맹세합니다(9절). 자신들이 유죄인 것을 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맹세입니다. 이에 그 청지기는 10절에서 그 합의문을 수정합니다. 그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신들의 나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11-12절)? 처음 몇 개의 자루를 검사할 때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계속해서 가장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가장 어린 자에게까지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집트에서 식사할 때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8:9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돌아 오니라.”(13절) 드디어 반전의 날이 왔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비난하거나 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생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이며, 살을 베고 마음을 열어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 슬픔은 회개의 시작입니다(고후 7:9-10).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붙잡힌 것을 염려하기도 했고 혹시 있을 결과에 마음 줄이기도 했으나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 통치자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겪어야 할 회개인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붙잡혀 자신의 죄책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왕좌 앞으로 가서 그들의 사정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10월 31일

복으로 가득 찬 자루 4

우리는 창세기 44:14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미워하고 부인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련 동안 그를 버티게 해준 그 약속이 다시 한 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매**” 드디어 모두가 요셉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군요. 15절에서 요셉은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꾸짖으며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함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질문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1.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이 답변은 요셉의 두 질문에 대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2. “무어라고 하리이까?” 고백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과해야 하나요? 맹세나 약속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지 혹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중생을 얻고자 무슨 공식을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주님의 발 밑에 엎드린 죄인은 질서 있는 기도를 암송하려 하지 않습니다.

3.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놀라운 고백이군요. 유다, 그대는 요셉 앞에서 해명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을 바로 잡고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분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11월 1일

창세기 44장 묵상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16절, 겔 20:42-43, 호 5:15도 보세요).

무죄한 자에게 선언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17절).

동생을 위한 유다의 중보는 위대합니다(18-34절). 성경에서 이보다 더 고귀한 인간의 행동은 없습니다. 유다의 행위는 유다 지파의 미래를 미리 내다

보게 해 줍니다(신 33:7, 창 49:10, 시 78:67-68).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유다는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히 7:14, 계 5:5, 롬 8:34).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 주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어린 요셉의 울부짖는 모습이 오랫동안 그를 꺾어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우던 슬픔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자기 죄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은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여러 번에 걸쳐 그 죽은 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얻고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랜 세월이 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드디어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유다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한때 팔아 넘겼던 그 동생 앞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종이 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더 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일

회개 이후 1

창세기 45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그 일년의 과정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장은 아름답고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45:37-46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문학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장은 그 깊은 감동을 제대로 맛보려면 한 번에 다 읽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이야기는 절정에 달합니다(1-2절). 물러난 모든 사람은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형들만 남아있게 되었지요. 드디어 그는 자신을 알립니다. 그는 크게 울고 나서(2절) 아버지 소식을 묻습니다(3절). 이에 형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가 그들을 가까이 부를 때 우리는 실로 사랑으로 그의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잘못된 자를 진정으로 용서하며 결코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요셉은 두 가지 너무도 멋진 선언을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5절). 요셉은 모든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2.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8절) 요셉은 자신이 처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돌리면서도 그분께 쓴 뿌리를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격랑보다도 깊은 격랑을 겪었지만 요셉은 자신을 것처럼 해친 형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았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고 깊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그 여건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일

회개 이후 2

창세기 45장에서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주님께서 개인을 다루시고 계시던 모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게 되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두 번 오심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요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계 19:10).

배경

1. 그분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2.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인해 멸시를 당했습니다.
3.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4. 이제는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1절: 다른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거나 믿는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은 보내었고 오직 자신의 형제들만 자기 앞에 남도록 했습니다.

1절: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속에서 계시하

던 것과 같으며 성령께서 빌립보서 2:10-11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1절: 그는 자신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해서”는 거듭나기 전에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 후 거듭났을 때만 그분을 알게 됩니다.

1절: 그는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으며 찾으셔야만 하지만 구원자께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1절: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사적으로 자신을 알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혼에게 계시되는 것은 가장 사적인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일은 너무도 신성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목격하거나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 간증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죄인에게 계시되는 그 순간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그는 그들에게 두 번 계시되었습니다(행 7:13, 슥 12:10).

2절: 요셉이 1-2절에서 온 것은 한때 자신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한 갈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3절: “나는 요셉이니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요셉께서 사도에게 “나는 예수라.”(행 9:5)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절: 그 계시는 사적일 뿐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어떤 한 진리나 기관이나, 철학, 혹은 윤리 규정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신성한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3절: 그들은 그 계시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슥 12:10). 그의 임재가 그들을 압도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그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고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주

로 삼으셨음을 그들에게 계시해줍니다.

4절: 자신들이 내던져버린 사람이 이제 그들을 은혜로운 화해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11월 4일

회개 이후 3

5절: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그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그러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과 꾸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격려와 응원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디의 책망도 아니하시지만 죄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는 잊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요셉이 계시되는 순간 그들은 압도당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되고 나서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죄에 대해 깊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 혼 안으로 파고들고, 우리의 뉘우침을 심화시키고 회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마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요셉이 계시되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늘 쫓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잊으려고 애를 썼으며 성품이 눈에 띄게 나아

지기도 했으나 그 죄는 여전히 그들을 붙들었고 중요한 삶의 순간마다 그들이 행한 그 짓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려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각으로 인해 그들은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 일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책한바 이는 그들이 장래에 죄를 피할 것이라는 보증인 셈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를 거부하여 내던져버렸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세우셨던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1월 5일

회개 이후 4

6-7절: 그들은 왔고 현재 있는 빵과 미래에 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은 그분께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크든 간에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이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7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는 위대한 구출이 될 것입니다.

8절: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당시 유대인이 그분을 갈보리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8절: 최종결과는 그가 모두의 주가 되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9-11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 거할 곳을 제공해 줍니다. 12-13절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보내 자기의 위엄을 전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풍요를 누리도록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둘을 껴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15절).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놓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묘사되어 있는 주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의 주로 세우셨으니”(9절, 행 10:36)
- “당신은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10절, 계 3:20) 그는 그들이 그와 함께 거할 곳을 준비했습니다(10, 18절).
- “내가 당신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11절, 빌 4:19)
- “그들은 그를 바라웁니다.”(12절, 눅 24:29)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요 10:27-28).
- “그의 영광이 계시됩니다.”(13절, 눅 24:26)
- 그들은 가서 증언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다(막 16:15).
- 그들은 자신들에 의해 많은 해를 당했으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해 준 바로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요 6:37).
- 그들은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히 4:16).

파라오는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종들과 기뻐하며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저 요셉의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새 옷을 줍니다(16-2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한 모든 자들을 종들과 함

께 기뻐하십니다(눅 15:7-10).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과 친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복을 내리십니다(엡 1:3). 그분은 믿는 자들의 의복도 바꾸어주십니다. 이는 신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계 3:5) 다가올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해당됩니다(스 3장).

창세기 4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분명한 예표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가서 말하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이것이 부여된 임무였음) 선물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25-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한 간증이 실로 놀랍다고 하겠습니까.

11월 6일

회개 이후 5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되었나이다.”(26절) 이 메시지에 관해 우리는 복음을 예시하는 세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이 메시지는 요셉 개인에 관해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영광이나 풍요로움, 혹은 양식의 풍성함 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도 그러했지요.) 그들은 요셉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하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가져다 줄 승리와 권능 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나 가난과 실패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확신 등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는 죄인들의 필요가 먼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롬 1:1-3).

2. 이 메시지의 첫 관심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 후 그의 삶을 보존하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전한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행 2:24, 32, 3:15, 17, 18).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저 높은 차원에서 그가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수행하신바 그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지금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가 섬겨야 할 분은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요셉의 권능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요셉은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왕좌에 계시며(계 3:21)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높임을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빌 2:9)

11월 7일

회개 이후 6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26절)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뻐서 믿지 못한 제자들과 같았습니다(눅 24:41). 매우 좋아서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래 전 알고 있던 요셉의 꿈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그 메시지를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았고 마음 속에

조심스럽게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37:11)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알았는데 후일 이것이 실현되고 나서야 그들에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편에 보낸 선물들은 야곱을 데려오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화해한 후 선물들을 받은(고전 12장)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아(롬 10:14-18)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데려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러 보내는 요셉은 자신의 왕좌 주위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오래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살아 있는 것으로 입증된 분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로 데리고 오고자 보내어졌는데) 천년왕국 동안의 유대인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 66:19).

요셉은 일곱 번에 걸쳐 울었습니다(42:24, 43:30, 45:2, 45:15, 46:29, 50:1, 50:17).

11월 8일

점진적 계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님께서서는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을 예시해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부당하심, 고난 받으심, 부활, 높임 받으심, 주님이 되심 및 결혼과 관련하여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8에서 우리는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 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主)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매우 높이셨음을 보게 되며 그 높이 심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 그리고 치리자가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점진적 순서로 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생애에서도 이 순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요 3:3-7)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게 됩니다(요 14:8, 사 9:6). 우리는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요(히 12:7-10), 하나님의 아들들로(요 1:12),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롬 8:15, 갈 4:6). 우리는 갓난 아이입니다(벧전 2:2). 이때는 많은 것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명령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 감에 따라 우리의 의무의 범위가 늘어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바 이는 우리가 겸손한 종들이고 그분은 주들 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숙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리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규례를 주사 이에 우리의 육신이 굴복하고 옛 사람이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우리가 육신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육신의 욕구와 아담의 나약함을 발 밑에 내려 놓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뿐 아

니라 태도와 동기와 갈망마저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 구원자이시나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11월 9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다 1

요셉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 이름은 그가 믿음으로 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가는 도중 그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칩니다(1절).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곳은 경계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순례 여정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하란을 향해 첫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맹세의 우물에서(28:10), 그리고 최초로 언약이 세워졌던 그 장소에서(21:33), 그리고 많은 추억이 어린 바로 이곳에서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일곱 번 말씀하셨습니다(28:13, 31:3, 32:1, 32:12, 35:1, 35:9, 46:2).

하나님의 인격이 제시됩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3절) 약속이 제시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3절)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니”(4절) 민족의 미래가 예언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 오리라.”(4절)

이집트로의 여행은 히브리민족의 언약의 역사에 있어 두 번째 단계입니다.

- 아브라함의 부르심

- 가족이 민족이 됨

이집트로의 여행은

-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함입니다(창 15:13).
- 가나안인과의 혼혈을 막고자 함입니다(10절, 창 43:32).
- 그들이 번영과 보호 가운데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월 10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다 2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70혼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창 46:5-27). 4백 년 후 약 150만 명의 혼이 출애굽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 안 되는 몇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냈을 때 이들이 이처럼 큰 민족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얻은 120명의 제자들은(행 1장)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민족(벧전 2:9)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24-34절). 그는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요셉의 말을 믿고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도중 요셉은 왕좌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러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궁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그의 교회를 맞이하여 하늘의 도성 안으로 안내하시는 주님을 연상시켜줍니다(살전 4:13, 사 66:15).

요셉은 그들을 심판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으나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29절).

이때 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그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가 아닐까요?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대변하시며(요일 2:2, 딤후 2:5) 미래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대변하실 것입니다(스 3:1-6).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33절). 마찬가지로 주님 또한 자기 백성이 거룩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걷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월 11일

이집트와 양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창 46:34)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비록 요셉의 허락이 있긴 했지만 파라오의 재가가 없이는 이집트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파라오와 면담하고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발언은 원칙과 신중함이 잘 조화된 지혜로운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가족들이 거처하고 자랄 장소가 필요했고 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동들을 향해 이집트인들이 지닌 감정으로 인해 두 민족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파라오에게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것처럼 싫어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이와 같은 취향은 요셉의 의견이 아니고 역사가들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이에 대한 명백한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가축과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매우 멀리 받았다는 역사적 증거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가들은 이런 자들을 절름발이로 또는 더럽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집트인들의 이들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의 왕들의 통치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 신빙성 있는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목동들이 순결치 못한 계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인들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11월 12일

요셉이 형제들을 다룸,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예표함

1. 죄인이 구원을 사고자 옵니다(42:5).
2.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십니다(42:7).
3.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나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42:6).
4.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알고 계시지만 그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고자

질문을 하십니다(42:7).

5. 죄인은 누가 자기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42:8). 죄인은 증인은 보지만 그의 말씀을 말하도록 증인을 보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6.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역과 부정직함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42:9). 죄인은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그처럼 알고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당신과 함께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목사에게 말했어?”

7. 죄인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42:10, 11, 13).

8.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42:12).

9. 죄인은 자신의 변명이 거부되면 자신을 더욱 옹호하려고 합니다(42:13).

10.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정죄를 가져옵니다(42:9, 12, 14).

11. 이때 그분은 그들에게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42:16).

12. 죄에 찢림을 받은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조바심을 냅니다(42:17).

13. 결국 죄인은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됩니다(42:21). (아직은 하나님께까지는 아닙니다.)

14.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지는 않습니다.

15.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 읽으실 수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16. 그는 사자(messenger)를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3일

요셉이 형들을 다룸 2

17.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42:25-27).
18. 자신들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두려워합니다(42:28).
19.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깨닫고는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42:28).
20.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정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십니다(42:35).
21. 이에 죄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42:38). 그는 증인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교회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피하려고 직업까지 바꿉니다.
22. 죄인이 돌아가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입니다(43:8).
23. 죄인은 영원한 정죄를 직면해야만 될 것입니다(43:9).
24.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재판관을 매수하려고 합니다(43:11-12).
25. 주의 임재 앞으로 돌아갑니다(43:16).
26. 죄인은 다시 두려움을 보입니다(43:18).
27. 죄책감(43:18)
28.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더욱 두려워합니다(43:18).
29.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종교의 노예가 되고자 하나 회개는 않고 긍휼도 신뢰치 않습니다(43:18).
30. 죄인이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43:19-22).
31. 성령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42:23).
32. 이들은 죄의 뿌리를 직면하기보다는 앞사귀만을 내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43:20-22).

33.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화평으로 맞이해 주십니다(42:23).

34. 그들은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심어 드리려고 겹을 깨끗하게 합니다(43:24-25).

3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소경됨과 불신에 대해 우셨습니다(43:30-32).

11월 14일

요셉이 형들을 다룸 3

36. 그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선물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43:32). 이는 죄인이 교회를 다니며 유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43:32).

38. 그들은 약간 개선되었으며 악한 옛 모습을 어느 정도 버립니다(43:34).

39. 그들은 행복하고, 많은 축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떠났으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44:3-4).

40. 이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뒤따라 갑니다(44:4).

41. 이때가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스스로 행실을 고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유익보다는 해를 끼칩니다(44:7).

42.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을 지적함으로 스스로 방어합니다(44:7-8).

43.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되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

상은 그들이 예수님(요셉)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44.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요셉(예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45. 그들은 죄의 삯은 사망임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그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44:9).

46.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44:10).

47.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인간의 이성과 수단이 끝나는 지점으로 데려가십니다(44:11-13).

48.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4:12)?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49. 드디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44:16).

50. 그들은 합당한 처벌에 복종합니다(44:16b).

51. 그런데 그들은 진노가 아닌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용서와 회복과 교제를 누립니다.

11월 15일

요셉이 형들을 다룸 4

52. “나는 요셉입니다.” (45:4)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야 완전한 계시가 주어 집니다.

53. 구원을 받기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45:5-8).

54.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오셨습니다(45:5).
55. 둘째,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셨습니다(45:8).
56. 이때 구원받은 죄인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45:22-23).
57. 옷을 갈아입음(45:22). 자기 의라고 하는 더러운 누더기는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되었습니다.
58. 구속 받은 자들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구원자께로 데려옵니다(45:9).
59. 그분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45:11).
60. 단지 용서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45:13).
61. 구속 받은 자들 간에 화평과 조화가 있습니다(45:24).
62.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합니다(45:15).
63. 회개한 한 죄인에 대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45:16).
64. 옛 처처로 가는 것은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일 뿐 진정한 거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45:17).
65. 가족은 이 좋은 소식을 믿는데 실패합니다(45:26).
66. 그러나 가족들은 그들이 삶에서 보이는 간증으로 살아 있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복들을 확인합니다(45:27).

이 지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의심하는 자들은 읽어보고 말해야 합니다. 기록자들의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꼭 감은 채 읽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성경이 책 중의 책임을 입증하는, 지금껏 살펴본 것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감히 꾸며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그분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계시해 놓은 그 책을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11월 16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다 3

창세기 47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소개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목동으로(3절) 자신들을 소개했고 고센에서 머물러 양떼들을 먹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자신의 나라 경계 안에서 최상의 땅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46장을 통해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양치기들에 대한 오랜 증오심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이들 일단의 목동들을 환영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 안에서 그들의 생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의 삶과 영향력이 그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그들의 생업이 이집트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집트인들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형제들은 파라오에게 자신들은 임시로 머무르려고 왔노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방문이 400년이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셋째, 파라오는 요셉의 형들 중 그 누구라도 요셉과 같은 지혜와 성품과 기개를 지닌 자라면 고용하고자 했습니다(6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고용주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서 그가 추천하는 다른 사람들 역시 고용하려고 할

만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세상의 예표로 보고 있는바 우리가 지적인 점들이 그대로 잘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진정 좋은 본을 보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을 향한 여정에서 생활을 할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좋은 간증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환영받도록 합시다.

11월 17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다 3

앞서 우리는 가축, 돼지, 그리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땅에 7년간의 기근이 닥쳐왔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요셉이 곡물을 저장해 둘 것을 지시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기근이 발생한 지역에서 어떻게 이삭의 자녀들이 양들을 칠 수 있는 푸르고 기름진 초장이 있을 수 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풀과 초장은 상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는 대신 곡물을 다 말라 죽게 하신 것을 암시하는바 이집트가 겪은 재앙이 일반적인 가뭄이었다기 보다는 초자연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백성은 굶어 죽고 있다면 이집트 사

람들은 짐승들에게 어처구니없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죽이거나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일련의 사람들이 짐승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물을 먹거나 쫓아내는 것마저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보편화된 이교국가가 있지요. 인도를 보십시오. 매년 수 천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가축들과 기타 식용이 가능한 것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소는 이시스로 알려진 이교신의 상징입니다. 사자의 서(죽은 자들의 책)로 알려진 이집트의 고문서에는 오시리스 신이 일곱 암소를 거느리는 황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에서 그 민족의 신들이 미침으로 인해 야기된 기근 가운데서도 이집트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리석음에 매달리고 있군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인간에게 최상의 지위를 주셨고 그 외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인간의 섬김과 용도를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거부한 민족은 결국 짐승을 숭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롬 1:18-24). 아마 이집트가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7년 재앙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애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바다 표범이나 딱따구리를 구출하려는 여자들이 자신들의 뱃속의 아이는 낙태시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낳은 즉시 도우미나 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유기견과 고양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부모들과 남편들 및 학교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는 자들이 바다 암소, 거북이, 어치 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회는 완전히 왜곡된 사회입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숭배하고 고등생명보다 하등한 형태의 생명을 숭배

하는 사회가 오늘날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이집트를 두 번에 걸쳐 파탄에 빠뜨린 이교도의 부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11월 18일

야곱이 파라오를 만남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창 47:7)

이 구절과 다음 세 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는 그의 나이를 물었고 야곱은 130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덧붙인 말은 그의 인생의 요약이라기보다는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선언은 야곱과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성품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물론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에서와의 충돌,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이별, 라반의 속임수, 요셉과 그 후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림 등.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권과 축복이라는 좋은 일도 있었고 라헬과의 사랑,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약속,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재회하게 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의 좋은 날들은 재껴 놓고 자신이 겪은 쓰라린 경험만을 증언하고 있군요. 반면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 역시 야곱 못지 않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많이 겪었고 이를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께 눈을 두고 힘든 날에

도 내일의 좋은 날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모든 인간사에는 햇빛과 비, 기쁨과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들이 떠오를 것 같으신지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면 너무도 많은 좋은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까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한숨을 쉬고 징징대십니까, 아니면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 12:34)

11월 19일

프랭클린 딜라노 요셉

(플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구제한 것을
빋대어 지은 이름임.-역주)

이집트 땅은 급속히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개인의 가정과 농장은 전례가 없는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매일 먹을 양식을 정부에 구걸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곡식을 샀으나 이제는 돈도 소용없게 됩니다. 이집트국민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집트로 온 외국인들 모두 생존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정부에 바쳐버립니다(창 47:14).

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15절), 요셉은 짐승들을 받고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수입의 원천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근은 더 심해지고 결국 요셉은 이들에게서 땅을 사고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더라. 이와 같이 땅이 파

라오의 소유가 되니라.”(20절)

사람들은 농장과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21절). 결국 길게 줄을 서 급식소에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준비도 없이 일 자리를 구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던 것이지요. 이때 파라오는 땅과 씨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게 됩니다(23, 24절). 이렇게 해서 이집트 땅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백성의 통제가 확립되었습니다(26절).

백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25절) 프랭클린 딜라노 요셉은 “보라 이날 내가 너희를 샀노라.”고 선언합니다(23절). 드디어 기근은 그치고 정부는 재산과 땅과 백성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0일

야곱이 믿음 안에서 죽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는 야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의 생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야곱이 믿음을 행사한 순간은 다름아닌 죽는 순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히 11:21) 창세기 47장의 기록은 히브리서의 진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도착한 후 17년째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29절) 이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요셉이 엄숙한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자신을 은혜와 친절과 진실로 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집트에 묻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들 옆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 속에는 몇 가지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 요청 속에서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죽어 없어지거나 그 민족과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서 분리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이 요청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사 자신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이 요청 속에서 오는 세대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서의 야곱의 역할도 기억하여 결국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히 11:13) 라는 진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과 관련 지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진술에 뒤이어 나오는 장에서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죽었습니다.

11월 21일

창세기 47장 묵상

1절: 고센 땅은 한때 미국인들이 놀라움을 표시할 때 사용하던 감탄사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유래하는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사야서 6:1-4의 “거룩한 연기”와 재림과 관련 지어 나오는 “위대한 날”, “위대한 그날 아침” 등의 표현이 있으며 시편에서 비롯된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주의 긍휼로 인하여”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미국의 문화가 타락해감에 따라 이런 성경적 용어들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2절: “제사장들은 한 몫을 가졌고…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에 따라 분배했을 때도 제사장들은 따로 분리해서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성경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바 고린도전서 9:14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당신에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집트 사람들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 이 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예표입니다. 즉 섬기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와야 합니다.

27절: 아브람은 언약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인해 온갖 종류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12:10-1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역시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하셨지요(26:2).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창세기 3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기 전에 삽입된 장임을 주

목하십시오. 이 장은 가나안인들의 도덕적 상태가 극도로 부패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들의 악한 영향력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 역시 가나안인들처럼 부패해버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은 종식되어 버렸을 겁니다. 가나안인들의 오염시키는 영향력에 대한 증거는 34장에서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함 1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이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취한 축복을 아이들에게 주고자 함입니다(1절). 야곱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는 못했으나 침상에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2절). 야곱은 분명 자기가 형을 어떻게 대했으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축복을 형으로부터 흠뻑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에게 축복하셨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야말로 그가 손자들을 축복할 더 좋은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였습니다(4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중동지방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히브리 조상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소유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야곱의 나머지 열한 명의 자녀들과 동일한 유업을 줄 것임을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을 준 것은 그

가 여전히 아버지의 총애 받는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요셉보다는 오히려 라헬 때문이었습니다(7절). 그녀는 아직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 빛과 사랑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태어난 아들과 이 아들에게 태어난 손자들에게 보상한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라헬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표현이 너무도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는지라 이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그 어떤 러브 스토리나 연애소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는데” 라헬은 늙었고 나약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가난한 목동의 힘든 유목 생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녀에게 가까이 있으려 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처음 그녀에게 눈을 맞추었을 때 이래로 여전히 그녀에게 밀착해 있습니다.

“그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야곱은 아마도 라헬에게 “여보, 힘 좀 내봐, 거의 다 왔다구. 조금만 더...할 수 있다구...” 라고 간청했을까요? 그녀의 생명이 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녀가 그와 함께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녀의 생명이 빠져 나감에 따라 그의 마음은 그녀와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녀를 길에 묻었는데”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물러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의 시신 곁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가 얼마나 항상 그녀를 사랑했는지 또 말하고 있군요. 그리고 나서 그는 딱딱하고 바위투성이인 땅을 파기 시작하여 자신의 어여쁜 자를 위해 누울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그는 그녀의 몸을 무덤 속에 누입니다. 시체를 덮을 삽도 없었으니 그는 손으로 한 움큼씩 한 움큼씩 흙을 모아 그녀의 시신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덮습니다. 어찌 이 고통을 지고갈 수 있으

리요만 그는 라헬을 위해서 오! 라헬을 위해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오 라헬
이여 그대는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약속의 땅을 방문했을 때 당시 나의 아내와 나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지도 모른 채로) 우리 팀에서 이탈하여 또 다른 부부와 함께 몇 마일을 걸어
서 라헬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는 한 건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
라엘인들에게는 다윗의 무덤과 더불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무장군
인들에게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의 큰 사랑을 말하고 간청한 끝
에 ‘금지된’ 그곳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안에는 아름다운 자색 카
펫아래로 라헬이 누워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보였습니다. 매우 감격스
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으로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의 신부에게 보여준 존귀한 대접을 여전히 그녀에
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한 여인이 (처녀였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불리는 이
작은 마을로 와서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을 그들의 조상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 이 땅은 10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1월 23일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함 2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인도되었고 늙은 할아버지는 그들을 축복하기
로 합니다(8-9절). 야곱은 눈이 어두워 외모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있
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그들의 성품이나 행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네 씨도 보여주셨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늘 넘치는 복으로 자신의 백성을 놀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엡 3:20)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큰 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야곱 앞에 배치시켰습니다(13절). 그러나 이리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손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여 첫째가 왼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 결정입니다(14절). 드디어 요셉과 두 아들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축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3중 증언이 들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 조상들의 하나님, 즉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 일생에 걸쳐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 구속자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신약의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중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 이와 같이 3중의 언급을 자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민 6:24-26, 신 6장, 사 6:3).

11월 24일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함 3

하나님은 자녀들(요셉의 아들들)을 복 주시라는 요청을 받으셨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두 가지를 주실 것입니다(16절). 우선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족 안으로 포함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땅의 한 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는 성경 기록의 역사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에 대한 상식에 입각해서 자기 아버지가 오른 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 놓자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잘 보이지 않아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손을 옮겨 므낫세의 머리로 가져가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하시며 그대로 축복하려 하십니다. 아마도 요셉은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도 큰 자가 될 것이지만 작은 아들이 더 큰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장자를 제쳐 놓는 이 원칙은 창세기의 가장 ‘기이한’ 특징 중의 하나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인 대신 셋이 선택되고 야벳이 아니라 셈, 하란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닌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리고 지금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택한 자됨을 주목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출생에 따른 특권에 대해 그분의 축복도 따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심지어는 멸시 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온 율법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제껴지게 될 때, 즉 구약이 아니라 신

약이 이를 대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역시 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며 모든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줄 뿐입니다.

11월 25일

창세기 48장 묵상

“이 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15절)이라는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실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지녔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16절) 여기서 성령님께서서는 창세기 32장에서 사람과 씨름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이었음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 구절에서 야곱이 대적한 것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기록에서 천사의 등장과 주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사건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59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증거의 전부 심지어는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경우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시와 부활 때에 등장하는 천사는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님과 천사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관련해서 그가 견지한 인생을 바라보는 두 방식을 대조해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파라오 앞에서(47:9) 자신의 날들을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고 했으나 요셉 앞에서는(48:16)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야곱이 지닌 두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우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nothing). 예외라면 인생은 순례자라고 간증한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고(everything)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매우 우울한 상태로 인생을 바라보았고 이로써 하나님을 증언할 귀한 기회를 놓쳐 버린 셈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의 훨씬 더 만족스러운 증언은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키셨으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속해 주심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것처럼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3, 4절) 바로 그 기념비적인 뻔엘에서의 밤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회상해가며 그는 진정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 갈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본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 줍니다. 파라오 앞에서 바라보는 인생과 요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대조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인생은 비참한 동시에 영광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야곱의 임종이 성경의 교리 전개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우리 뒤에 남은 자들에게 주님과 개인적 교제를 당부하는 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은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자 하나 이들은 한 민족이 그들의 몫으로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영적 진리에 관해서는 민족적으로 접근하고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반면 신약은 영적 진리에 있어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민족들에게 적용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것처럼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육적 출생을 통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장에 것처럼 당혹해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치 못하는 모든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이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과 개인간의 관계가 국적이나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에 기초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교훈들보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두드러진 교훈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도 그러하듯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48:21)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게 되는 그 한가지 이름은 다름 아닌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왔다가 가버립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도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가버립

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그분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그분의 백성들의 거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묻으시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부침과 변화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세워질 것이고, 그분의 목적은 실현될 것이며, 그분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은 떠났고 교회는 남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루시고 계신 그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버린 뒤의 일들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짧은 현세의 인생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사람들이 실패한다 해도 그분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그분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는…하시리라.” 이 땅의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는 임재와 무너짐이 없는 목적 달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사 26:4)

11월 27일

야곱의 믿음의 발전 단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야곱에 관한 기록에 근거해서 야곱은 실패와 신실치 못한 측면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느리고 때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발견됩니다. 인생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야곱은 세 번의 특정한 경우에 믿음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1. 그는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47:7, 10).

2. 그는 요셉에게 자기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맹세시켰습니다(47:27-31). 이 믿음에 관해 더 확실히 알아보려면 다음 구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7, 13:15, 15:18, 17:8, 22:17(마지막 문장), 26:3-4, 28:13, 35:12. 야곱은 약속의 땅이 반드시 그의 후손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래서 그는 비록 죽은 후일지라도 그 유업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 후 48장에서 요셉과의 마지막 만남이 나옵니다. 3-4절에서 야곱은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을 확고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구속을 바라보며 회상을 하는 반면(15-16a) 자신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미래를 또한 바라봅니다. 창세기 28:15-20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시지요. 이 엄청난 미래의 선언에 대해 그의 반응은 약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IF)”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반응이 이정도였다니! 아! 그러나 우리 인생 역시 이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속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훨씬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48:21) “하면(IF)”에서 “하시리라(WILL)”로 바뀌었으니 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전히 머뭇거리고, 넘어지는 형제들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니까요. 많은 믿음을 좋던 자들이 비참하게 끝나는가 하면 야곱처럼 안 좋게 시작했으나 끝맺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11월 28일

야곱의 생애를 돌아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분명한 3단계가 있었습니다.

1. 자아의 시기(창 25-32장)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아가 마음껏 발현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이 시기는 자주 추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육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따라 행동합니다. 야곱을 칭찬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브니엘에서 주님께서 자아를 내리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아의 생명은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아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야곱에겐 믿음이 라고는 없었습니다.

2. 징계의 시기(창 33-45장)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난의 용광로 속을 통과토록 하십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돈스럽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모두가 죄와 불신의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련으로 야곱은 하나님

의 언약과 약속들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 믿음의 시기(창 45-49장)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요셉을 야곱 앞에 다시 회복시키신 큰 은총의 결과 야곱의 믿음은 일취월장합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게 되고 미래의 상속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주님께 철저한 확신을 두도록 손자들을 확신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두 번의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현재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처음 두 단계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우리 또한 이 두 과정을 빨리 지나 즐거운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1월 29일

마지막 날들 1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창 49:1)

마지막 날들(last days)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23번이 나오는바 이를 검토해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그 일이 결말지어지는 완전한 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현이 사용되는 문맥을 보면 마지막 날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진리들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저지른 일들 때문에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신 31:29).

- 마지막 날들은 느브갓네살이 이방인의 때에 꿈의 종결에 해당됩니다(단 2:28).
- 주님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고 격렬한 회오리 바람이 사악한 자들 위에 덮칠 것입니다(렘 23:18-20).
- 곡이 북쪽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겔 38:16).
-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신 10:14).
- 환난 때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신 4:30).
- 예수님께서서 원수들을 굴복시키러 오십니다(민 24:14).
-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렘 48:47).
-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렘 49:39).
- 이스라엘이 참된 지도자와 경배 없이 보내던 날들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어지게 됨으로 종결됩니다(호 3:4-5).
- 주의 집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세워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 듭니다(사 2:2, 미 4:1).
- 눈이 먼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들(the latter days)까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렘 30:24).

11월 30일

마지막 날들 2

구약성경에서 사용되는 마지막 날들(last days, 혹은 latter days)이라는 표현은 대환난의 끝 무렵과 천년왕국의 시작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종결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비록 이 표현이 교회에 대한 시범적인 훈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유대인과의 관련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딤후 3:1)는 경고가 주어져있습니다. 또한 “조롱하는 자들과 비웃는 자들”(벧후 3:3, 유 18)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재림을 믿고 있는 자들을 비웃을 겁니다. 또한 잔인한 부자들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약 5:3).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권좌에 오를 것입니다(요일 2:18).

마지막 날들에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들과 대언자들이 제시한 것들보다 아들의 말씀들이 더 위용을 떨칠 것입니다(히 1:2).

악한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어린양께서 나타나실 것이고(벧전 1:5)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벧전 1:20).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요엘 2:8의 예언이 바로 이때를 언급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행 2:17).

마지막 날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듣는 자들 무리를 흥분시킬지도 모르지만 이 용어를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떤 사건과(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부주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날들이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심은 그와 같은 종결이 있습니다(단 9:24-27).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엡 3:21).

12월 1일

르우벤 1

야곱이 열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2절, 이스라엘, 히 11:21). 이 예언들은 완벽히 정확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예언되었습니다.

1. 르우벤은 장자로서 출생한 것으로 인해 힘과 위엄과 권능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창 35장)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갔습니다(대상 5:1-2). 신명기 21:17과 에스겔서 47:13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성령님께서서는 르우벤은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를 입증해 줍니다. 이 지파로부터는 그 어떤 재판관도, 왕도, 대언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의 광야 쪽을 택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유일한 갈망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민 32:5).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참여한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쪽에 정착하였고(민 32장) 그곳에서 그들은 갓 지파보다 열등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할 당시 르우벤 지파는 머뭇거리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삿 5:15-16). 여호수아 시절에 약속의 땅을 분배할 당시 르우벤은 남쪽 끝에 가장 작은 지역을 할당 받았습니다.

3. 이 지파는 물처럼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결합하여보면 이것은 이 지파의 수가 안정되지 못하고 증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신 33:6). 따라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46,500명(민 1:21)이었던

것이 그 다음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파들과는 달리 43,730명으로(민 26:7)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후일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그룹에 속하였고(신 27:12-13) 하사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축하실 때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12월 2일

르우벤 2

창세기 49:3은 르우벤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 묘사된 다섯 가지 특징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 맏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땅의 왕들보다 더 높으십니다(시 89:27).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히 1:2), 모든 권위가 그분의 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듯이(요 5:23) 아드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능력**” 야곱은 르우벤의 출생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난 것으로 이 능력은 믿는 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엡 1:19).

“**내 힘의 시작이요**” 야곱은 자신의 힘은 자녀들 즉 가족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은 처음에는 창조에서 볼 수 있으나 특별히 부활에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입니다(계 1:5).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또

한 부활 때 보이신 하나님의 큰 능력의 대상인 것입니다.

“위엄이 뛰어나고” 그 누구도 우리의 보배로우신 주님보다 고상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순결하심, 은혜로우신 행실,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 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위엄이 성육신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바른 모든 자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 그분의 왕관은 그 어떤 다른 자의 머리 위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능이 뛰어나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주 예수님의 손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고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강박한 바다들도, 울부짖는 바람도, 핵폭발도 다 미미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르우벤도 이 특징을 일시적으로만 보유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특성을 영원토록 지니실 것입니다.

12월 3일

시므온과 레위

성령님께서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도록 인도하시 이들을 “잔인한 도구”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덧붙여 이들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분노하며, 진노가 잔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창세기 34:25에서 디나의 복수를 했을 때 저지른 살인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소년 요셉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데 시므온이 앞장선 것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2:24에서 요셉이 시므온을 묶은 것도 이를 암시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품은 구약을 통해 꼭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시므온에게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몫을 확보하

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삿 1:3). 이때 유다는 시므온 지파가 그들 조상의 진노를 지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대상 4:42-43).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는 모세의 편에 서서 반역한 형제들 3000명을 죽인 바 있습니다(출 32:27-28).

레위에게 놓였던 저주는 후일 제거되었고 이에 음행에 대한 그들의 올바른 입장 덕분에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민 25:6-13).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통제하고자 “세대를 이어가는 저주”를 들먹이는 오늘날의 이단 종파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들의 불법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곱은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뉘고 흩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땅을 분배할 때 아무 몫을 받지 못하고 유다와 함께 거하며 그들의 도시에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들에게 할당된 권역으로 흩어져 48개의 성읍을 몫으로 받았습니다(수 19:1-8, 14:4, 수 21장, 민 35:8).

야곱이 후손들에게 레위로부터 분리할 것을 경고했던 그 레위의 특성들은(잔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는) 제사장들(레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은밀하게 음모를 꾸며 그들의 분노와 의지대로 이스라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던 그 암울했던 사건에서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유다 1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창 49:8)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

통치자가 되시고(단 9:24), 이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찬양하게 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을 잡는 것에 관해서는 첫째로 다윗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실 분께 두 번째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1-3과 시편 72:11, 그리고 빌립보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 앞에서 형제들이 절하는 것 역시 유다에 대한 야곱의 발언이라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식들”이라고 말하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분 발 앞에서 절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뻐할 것입니다.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은 비록 이스라엘의 10지파와 그 남은 자들이 일찍이 멸망하고 흩어져버리긴 했어도 유다 지파는 예수님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법을 주는 자는 유다의 몫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31에서 유대인들이 가야바에 의해 로마의 총독의 손에 재판권을 넘겨주었을 때까지는 법적 권위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로의 예언을 명백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시편(60:7, 108:8)과 대언자들(사 33:22)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예언의 나머지 부분은 포도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유다가 받은 몫은 포도밭이 있는 남쪽 지역이었으며(대하 26:9-10, 수 15:55) 엔게디 포도원 역시(아 1:14) 유다의 땅에 있었습니다(수 15:62).

르우벤이 빼앗긴 장자권은 하나님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유다는 통치와 관련된 것을 받았으며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유다 2

유다에 관한 축복의 예언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관계로 분명히 메시아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예언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1) 장엄함 (2) 승리 (3) 지배(통치)로 구분해서 보고자 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십니다. 그분께서 구속하시는 자들은 그분의 형제들이며(히 2:12),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공훈과 권능과 승리와 구속의 의지와 구속의 대가 등에 대해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은 경외심과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찬양 받는 이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운동선수를 응원하며, 배우를 자랑하는데 이는 각각의 분야에서 그들이 보인 뛰어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무덤으로부터 승리하사 일어나신 것을 본 우리들 모두는 그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계 5:12) 우리 모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사역을 시작합시다. 그와 같은 올바른 행위는 이르면 이를 수록 좋습니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철저히 굴복시키실 것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정복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힘도 아

니요,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속 4:6) 승리하셨습니다. 파리를 부셔버린 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간주될 수 없듯이 폭력에 의한 승리는 하나님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고 구속되게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가 그들을 위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아 앉아계시며 그분의 승리가 완성되어 그분의 발 밑에 모든 원수들이 발받침이 되는 날을(히 10:13)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좌에 오를 때 예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구속 받은 모든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이 세상에서도 세대를 이어 믿음에 의해 마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앞선 문장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나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뜻에 거슬러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번 문장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엎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자식들”은 구약시대 동안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것은 구속 받은 교회를 뜻하는 바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갈 3:26).

위 세 문장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1. 지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찬양함
2.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
3. 하늘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배함

유다(Judah) 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811번 등장하며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서 8:8에 한 번 나옵니다.

12월 6일

유다 3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은 9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즉 젊고, 사납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전능한 힘을 지니셨고 정복하는 권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계 5:5) 라는 묘사를 보게 됩니다. 4복음서의 첫 번째 것은 그분께서 이 왕권을 지닌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자라는 상징은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대변해 왔습니다.

“내 아들이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 갔도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아드님에게 말씀하고 계신바 그분께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될 그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묘사된 장면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탈취한 것을 떠나 승리 가운데 귀환하였습니다. 그분은 정사들과 권능들을 떨쳐버리고 이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으며(골 2:15), 포로 된 자들을 사로잡아 데려오셨습니다(엡 4:8).

“그가 엎드렸으니” 이 구절과 다음 문장은 웅크리고 앉아서 먹이를 포획하려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께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시고서(빌 2:7) 하늘에서 굽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것처럼 높은 곳에서 이처럼 낮은 곳을 본 적이 없었지요.

“웅크린 것이”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신”(사 53:6) 아버지에 의해 그분 위에 놓여진 죄 더미아래 웅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어떤 짐이 당신의 머리를 숙이게 했나요?” 라고 노래 했으니 이는 그 분께서 흠먼지 아래로 죄 짐에 눌러(우리의) 굽히시고 죽음에 까지 끌려가셨으니 그분의 원수들도 이를 모르고 그분의 친구들조차도 당시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앞드리신 것은 먹이를 포획하려고 웅크리는 사자의 자세였으니 이 굴복과 웅크림이 영원한 승리의 바로 그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높은 사자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분께서 영원한 지혜와 경험을 지니신 영원하신 분으로서(미 5:2)하신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오신 것이요, 땅을 굽어 보신 것이고 죄 짐 아래 웅크리셨다가 먹이를 결국 포획하셨지요.

우리는 창세기 앞 부분에서 어린양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대신에 이삭을 대신하여 다 자란 숫양이 바쳐지는 사건을 돌아보게 됩니다(창 24장). 그러니까 구원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아기 예수)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이 자신을 갈보리에서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그가 일단 탈취물을 포획하려고 몸을 굽히고 있을 때 그 웅크림으로부터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킬 건가요? 그 누구도 그리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여러 번 시도 했습니다(마 4:1-11). 베드로를 이용하여 이를 시도 했었고(마 16:22, 23), 또한 겔세마네에서도 애를 썼지요(마 26:39). 그러나 마귀는 실패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죽음에까지 자신을 웅크렸던 그 사자가 탈취물을 향해 직접 달려든 것입니다.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주님의 부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권능도-개인이든 집단이든-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무덤으로부터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웅크림이 그 최저점에 다다랐을 때 그분은 무덤으로부터 힘차게 솟구쳐 지옥의 군대들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2월 7일

유다 4

창세기 49:10에서 우리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서 더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홀은 통치 권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홀은 기스의 아들 사울 안에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처음 왔었습니다. 사울은 대언자들의 권면을 반대하던 불순종하는 백성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이 왕좌는 유다 지파 소속의 베들레헴의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왕권은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독립을 상실할 때까지 다윗 집안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떤 왕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왕권이 다윗 집안에 넘어간 뒤 오는 그 어떤 지파도 왕권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가 바뀌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집이 다스렸고 포로기간 중에도 이 왕가의 노선은 그리스도께 이를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왕권은 유다로부터 탈취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왕권은 다윗의 아들이신(롬

1:3) 주 예수님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앞선 말씀과 짝을 이루는 선언으로 “그의 후손들로부터” 혹은 “그의 씨”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와 그리스도의 시대 사이에는 법을 주는 자들의 노선은 이어졌으나 이들은 그 민족이 포로였기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에는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 분명히 제시되어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10절에서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서 땅을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12월 8일

유다 5

11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다에 관한 예언 속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주님의 두 번 오심(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에서 이번에는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49:11-12)

이 말씀은 유다가 얻게 될 권능, 혹은 번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나타난 주제는 포도주와 젖으로 상징되는 풍성함입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어린 수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심지어 최상급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지 않는 바 이는 나귀가 나무를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지척에 널려 있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귀와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은 이 때가 화평의 시절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평안하게 사용되는 이동수단이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화평한 시기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다가오는 왕국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상황입니다(왕상 4:25, 미 4:4).

옷을 포도즙에 빨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남아도는 포도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기근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얼마나 놀랐을지요.

유다의 눈과 이에서는 찬란한 건강과 풍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을 당시 그들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장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올 때 그들은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남자가 메고 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민족의 불신이 가져온 슬픈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한 한 분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땅은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되찾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모임(모여쁨)

유다에 관한 예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성취됨을 살펴보았

으니 이번에는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49:10)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들이(남녀노소) 그리스도에게로 여섯 번에 걸쳐 모여들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째, 주님의 지상사역 동안 누군가가 “그분께로 왔다” 라는 언급이 4복음서에 15번 등장합니다. 제자들, 큰 무리, 장로들, 바리새인들, 병자들, 심지어는 전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을 만지거나 혹은 치유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둘째,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 12:32) 이 말씀은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과 갈보리 산에 몰려들었을 때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그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모여들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죽으신 구원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를 불러내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멀리 흩어지고 오랜 동안 분열되어 살아오던 이 땅의 사람들 중 믿는 자들이 모여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 있는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행 15:14).

넷째, 마을과 지방, 그리고 큰 도시, 가정, 감옥, 큰 예배당, 그리고 자그마한 예배처에서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모여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마 18:20).

다섯째, 우리는 주님께서 믿는 남은 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겔 40-48장, 롬 11:24-28).

끝으로 이방민족들도 회심하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주님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행 15:17, 사 1:1-11).

그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2월 10일

스블론

야곱은 4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언급한 뒤 10번째 스블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으며 이 주님은 지상 생애 30년간 어린 아이와 목수로서의 삶을 바로 이 스블론 지파의 지역에서 사셨기에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스블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언급된 몇 구절을 통해 그 지파는 존경 받을 만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삿 5:18, 대상 12:33, 40).

야곱의 예언은 주로 이 지파의 거주지에 관해 말씀합니다. 후일 모세가 예언할 때 이 지파와 관련되어 바다(나감)와 시온(산)이 언급되었습니다(신 33:18-19).

스블론 지파는 선원과 상인이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은(수 19:10-11) 후일 갈릴리로 알려진 지역에 해당됩니다(마 4:15).

이 정열적이고 사업에 능한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과 무역을 했고 이 활동성은 후일 복음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열 두 제자들 중 11명이 이 지역 출신이며 가롯 유다만이 예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왕(유다)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신 후 이 구속자를 민족들에게 전파할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계신 성령님의 적절한 간섭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항구로서의 스블론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부터 돌아 온 후부터 정착한 곳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 자주 가셨고 그곳을 안식을 위한 항구로 여기셨습니다(요 7:1).

12월 11일

잇사갈

창세기 49:14-15의 예언을 추적하기는 어려운바 이는 잇사갈 지파에 관한 언급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열 두 지파 중 가장 적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두 짐 사이에 꿰어 얹은 건장은 나귀”로 언급됩니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그 땅에서 안식하기를 갈망했으며 종으로서 공세를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짐을 나르는 존중 받는 짐승이었습니다. 잇사갈은 한 민족의 진정한 힘을 대변하고, 어두운 곳에서 수고하며, 손으로 노동하고, 어깨로 짐을 매고 일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이들은 일이 끝난 후 조용히 안식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수고에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 어떤 나라도 가난과 궁핍을 딛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귀를 탔습니다(삿 10:4, 12:14). 이들은 그 짐승이 아니라면 먼지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채 그 짐승의 천한 지위로 인해 그 짐승을 자주 멸시합니다.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처럼(시 20:7) 병거를 신뢰하지 않는 독특한 백성이 되기 위해 말을 기르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신 17:16).

잇사갈 지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민 20:25, 대상 7:5).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나귀를 타셨고(눅 9:9), 그분의 군대 또한 재림 때 그러할 것입니다(삿 5:10).

상업의 세계에서처럼 주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바 이는 짐을 지고 나르는 자들은 거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잇사갈은 영원에 있어 모든 지파들 중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2월 12일

단 1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한 사람들은 단 지파에 관한 성경의 암울한 예언들을 읽을 때(창 49:16-18, 신 33:22)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뱀들과 사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이를 두고 동산에서의 옛 뱀(창 3장)과 우리의 대적 마귀(벧전 5:8)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 지파에 대해서는 나쁜 예언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될 때도 하녀 빌하로부터의 출생이었습니다. 물론 입다처럼 잘못된 시작을 극복한 예가 있으나 이것은 예외이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이 지파에 관한 두 번째 언급도 빌하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입니다(창 37:2).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에서 단의 아들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46:23, 단과 후심만 언급됨). 민수기 26:42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되는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책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지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떠올리게 해 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대기 상 2장과 10장의 족보와 계시록 7장의 증인 명단에서 단이 빠져 있는 사실에서 확정됩니다.

가끔씩 성령님께서 이 지파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뒷부분이나 끝부분에서 하십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단은 진영의 후방에 배치됩니다(민 10:23). 팡

을 분배할 때도 마지막 순서였는데 실상은 나머지 지파들이 남긴 것을 받은 셈입니다. 역대기상 27:16-22 명단에서도 꼴찌입니다.

야곱의 예언에서도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단 지파였고(수 19:41, 삿 13:2), 비록 그들의 아들이 뱀과 사자의 특징을 둘 다 지녔기는 했지만 창세기 49:18의 구원과 관련된 언급은 죄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로 볼 때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은 단 지파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단 2

우리가 사사기에서 단 지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환란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일어나게 될 거짓종교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동시에 A.D. 400년경 이래 인류를 뒤엎은 가짜 기독교의 추악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17장에는 미가라 하는 자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난 것을 알고 그는 돈을 돌려주었고 이에 어머니는 그를 복 받은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은을 바쳤는데 그녀는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도둑과 저주하는 여인이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개신교에서 자라난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에 미가는 신들의 집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들 중 하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봉헌했습니다. 어느 날 레위 사람 하나가 지나가자 미가는 자신의 ‘신앙’을 업

그레이드 하고자 그 사람을 고용하고는 아들을 대신해 가족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서도 그는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를 바란 것이 아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아마 전도를 별로 안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사기 18장에서 단 지파 몇 사람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6절)으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고자 그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종교 시스템에 반한 이들은 모든 신들과 제사장마저 탈취하기로 합니다. 그 제사장이 불평했고 이에, 그들이 한 가족보다 훨씬 큰 한 지파를 사역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자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합니다(20절). 그들은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의 거주민들을 도륙하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변경하고 부어 만든 형상들을 그곳에 세우고 자신들의 제사장을 입명합니다. 이와 같은 배교에 빠져든 이단 지파는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어 만든 형상과 제사장들(사제)이 연관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 종교는 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2월 14일

단 3

앞서 살펴본 대로 단 지파의 미래는 성령님에 의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신 33:22). 사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취되는 것이고 둘째는 사탄에 관한 언급입니다. 바산이라는 용어가

단의 사자는 후자임을 암시해 주는 바 이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 그분을 대적하는 바산의 황소들이(시 22:12) 그 분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예언은 훨씬 강력합니다. 단을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문다는 것과 함께 뱀에 대한 언급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주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그분이 말을 타고 있을 때 가해집니다. 이로써 이 부분은 갈보리 저 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군요(계 19장).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창 49:18) 라는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이 말씀 역시 주님의 재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11과 누가복음 2:30-32을 숙고해 보세요.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사 62:11)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눅 2:30-32)

따라서 이 예언은(창 49:18) 흰 말 타신 그분을 향해 일격을 가하려고 준비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땅에 구원을 가져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쓰러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 주여”라는 표현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빌립보서 2:10-11에 따르면 그 날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한다고 했으니까요.

12월 15일

갓 1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을 보자면 창세기 49:19에서 이 지파는 안정된 정착이 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33:20-21에서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되기 전에(민 32:1-18) 갓 지파가 어떻게 요단의 광야지역에서 자신의 몫을 스스로 지정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길르앗으로 알려진 곳입니다(신 3:12-13). 모세가 언급한 갓 지파의 확장에 대해서는, 원래 그들에게 배당되었던 곳(수 13:24-28)이 아닌 샤론 주변에 그들이 거주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첫 번째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대상 5:26), 이는 주로 그들이 약속의 땅 대신에 광야를 택하여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갓 지파의 정복에 관해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 예레미야 49:1-2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살펴 보아도 갓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섬김이라든가 가치 있는 업적에 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들에 이 지파로부터 누군가, 혹은 어떤 그룹이 일어나 이 땅을 뒤흔들 큰 일을 이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20에 보면 이 갓 지파는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적 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하고 팔이 상하게 될 치명적 상처에 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 11:17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 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스 11:17) 이 말씀은 짐승예(계 13장)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잘 들어맞습니다.

12월 16일

갓 2

이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하면서 보여준 자기 의지의 실행은 롯의 선택처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는 사실(삿 11:4-6, 11:11-12, 삼상 11:1)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단과 갓 지파는 물질적 번영은 이루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역사에는 별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드높이고 자신의 백성의 증언을 축복하고 계신 지역 역시 가난과 불의가 퍼져있는 곳입니다. 영적 번영은 안정되고 풍성한 삶과 병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물질적 소유가 오늘날 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더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 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신 32:15) 잠언 30:8-9의 아굴의 말이 가장 적합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다.” 이 원칙은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7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중 가장 최악의 교회인 라오디게아가 가장 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요. 어느 시대건 인간은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맘몬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12월 17일

아셀

아셀에 대한 예언은 빵과 생산에 관한 것입니다(창 49:20). 아셀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마 4:15)에 정착했고 약속의 땅에서의 그의 몫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수 19:24-31)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페니키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생산해 낸다는 것은 다윗의 집과(삼하 5:11) 솔로몬의 성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왕상 5:1-10).

빵에 관해 말하자면, 엘리야가 기근 시에 아셀의 지역인(수 19:28) 시돈에 살던(눅 4:26) 과부(왕상 17:9)가 그를 먹였지요.

왕의 진미는 또한 역대기하 30:1과 10-11절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아셀 지파 출신들이 히스기야 통치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2:36-38에는 아셀 지파의 여대언자 안나의 찬양이 또 다른 왕의 진미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시돈에서 로마로 가던 도중 빵을 받았습니다(행 27:3).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역들에서 나온 최고의 빵은 참된 왕 되신 그분이 예비하시고 제공 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성경에서 10번의 경우에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 하셨고 하늘의 양식을 베푸셨지요. 그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께로 나아

왔고(막 3:8-10), 치유 받았으며 더러운 영들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젊은 여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마 15:21이하).

아셀이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근다는 말은(신 33:24-25) 당혹스럽습니다. 이를 설명해줄 다른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요. 동시에 쇠와 놋에 대한 언급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금속은 느브갓네살의 형벌의 경우에 나오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12월 18일

납달리

납달리의 자손의 미래에 관한 말씀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창 49:21)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에서 이 약속이 일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서 바락이 군대를 지휘할 당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이 그와 함께 전투에 임했지요. 이들은 암사슴 같은 속도로 시스라로부터 군대를 구출해 냈습니다.

사사기 5장에는 무기력한 무리가(8절을 보면 그들이 무기가 없었음을 보게 됨) 그들의 형제들에 의해 어떻게 버려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의 자손은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지요. 이들은 구출되던 당시 좋은 말로 찬양을 하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납달리 지역에 중심을 둔 주님의 갈릴리 사역기간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 지

역에 속한 성읍은 가버나움, 밧세다, 그리고 고라신 등이 있습니다.

납달리 자손이 남긴 것 중 최상의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와 혼의 기질이었습니다. 신명기 33:23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불평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해 주세요”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셀 수 없이 많은 복으로 응답하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보다가 납달리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만족하고 충만하게 된 자들을 보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셨지요. 친구여! 당신은 그분이 베푸신 호의에 만족하시는지요?

12월 19일

요셉 1

성경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닌 요셉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두 아들의 후손 모두에게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22-26에 나와 있습니다. 22-24절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지요. 이 첫 부분은 그의 청년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손댄 모든 일이 다 잘되었고 결국 작은 시작이었으나 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이더라도 다 이겨내고 결국 극복해 버렸습니다.

둘째 부분은 형들의 행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활을 쏘아 맞

으나 그것은 분명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혈육에게서 멸시를 당한 요셉의 부드러운 마음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셋째 부분은 그가 이집트에서 성공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들의 화살들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보다 더 강하게 되어 그들을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든 시련과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든 못하든, 그분의 손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7년의 기근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돌본 것은 이집트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의 목숨을 보존시켜준 돌이요, 바위(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은 그의 허리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나옴으로써 두 몫을 얻은 것에서 성취됩니다.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땅 역시 두 몫을 얻었습니다(대상 5:1-2). 천년왕국 때도 두 몫의 유업을 분배 받게 될 것입니다(겔 47:13).

여호수아는 이들 예언이 가장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성취된 장본인인 셈이지요(민 13:8).

12월 20일

요셉 2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서 요셉에 관한 미래의 축복 부분은 여기서 직접 인용하여 그 장엄함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발언만을 두고 보면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명예를 안겨

주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 또한 야곱과 동일선상에서 요셉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창 49:25, 26)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 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馬)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신 33:13-17)

이 구절들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대의 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히브리 민족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으나,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만(예수님) 적용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적용치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였으며 성경이 이 성령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들로부터, 깊음을 통해, 영존하는 언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온 끝에 이르는 길에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복 주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왕관을 차지할 것이고 낮에 해가 뜨고 있는 동안에도, 밤에 달이 해를 반사하여 비추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축복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 그리고 땅의 열매 모두가 다 이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았고 구분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땅의 민족들은 그들을 몰아붙이고 몰아붙여서 결국은 멸절의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가 강해지고 그들이 큰 강으로부터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경을 다시 넓혀 결국은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고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니 이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교회가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듯이 이 민족 또한 그와 같은 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하신 것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그분께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월 21일

요셉 3

우리는 다시 한 번 요셉에 대한 예언 안에서(모든 측면에서) 사람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22절은 열매가 많은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의 뿌리는 영적 불임의 결과로 생긴 물리적 황폐함이 가득한 땅 이스라엘이라는 마른 땅에 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이 가지는 우물가에 앉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셨지요. 이때 그녀와 그의 제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사이를 가르는 중간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많은 가지이신 분께서는 그 벽을 넘어 우물가의 여인과 그 지역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23절에서 활 쏘는 자들은 활을 쏘고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와 등과 그 신성한 이마에 까지 상처를 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괴로움을 안겨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드님을 미워했던 자들로 인해 그분은 실로 고통에 익숙한 분이 되었습니다.

24절에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분의 두 번의 오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 그분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요 10장).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로서(단 2장) 돌아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반대하는 모두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의 복이 그분 위에 놓일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깊음까지, 그리고 가장 먼 땅 끝까지 모든 권능이 그분의 손에 놓일 것이요, 그 왕관이 실로 참된 주인이신 그분의 신성한 이마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25-26절).

그분은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신 후 낮고 낮은 이 땅의 말 구유로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죄인들로부터 구별(분리)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분은 모든 것을 차지하실 유일한 분이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게 합당하신 어

린양이시여!

12월 22일

베냐민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창 49:27)

이 예언은 아마 다음 4가지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우선 사사기 20-21장에 기록된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분명 이리처럼 먹이를 강탈하였습니다. (잔인한 전쟁을 주목하세요.)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은 승리했고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야베스길르앗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을 때 노획물을 나눈 셈입니다.

2. 이 예언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베냐민 출신 사울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사였던 왕은 여러 번의 전투에서 먹이를 먹고 승리의 노획물을 나눈바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양떼를 삼킴으로써 자신이 항상 이리 입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양떼의 재산과 자녀와 기쁨을 강탈하여 모두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3. 이 예언은 때로 베냐민 최대의 영웅인 사도 바울에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강탈하여 먹이처럼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남녀노소를 박해했고 투옥시켰습니다(행 9:1-2, 26:9-11). 그러나 그는 회심 후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노획물을 획득했습니다.

4. 우리는 또한 이 예언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

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성으로는 이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기심과 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대적하고 삼켜버렸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으로 새 인생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의 모든 자녀와 함께 노획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12월 23일

창세기 48, 49장 묵상

48:1 “병들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48:2 당신은 나이 들고 병든 분을 찾아가시지요? 당신의 교회는 요양원과 병원에서 사역하시나요? 이 구절을 보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 준 것을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48:10 성경에 기록된 첫 입맞춤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것이었습니다(창 27:26). 이 시력을 잃은 사람은 손자에게 입맞추면서 그 옛날을 기억했을까요?

49:1 “너희는 함께 모이라.” 이 표현은 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이 환란 전에 모이는 것으로 처벌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환란 후에 모이는 것으로 남은 자들이 축복받기 위한 것이지요. 이 두 번의 모임 중간에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49:2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며 그리한다면 그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9:33 아브라함(25:8)과 이삭(35:29)은 숨을 거둔 반면에(gave up the ghost) 야곱은 숨을 내어주었다(yield) 라고 기록되어 있군요. 첫 번째 것은 버티다가 거두어진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만족한 가운데 숨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49:33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지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12월 24일

창세기 50장 요약

1절: 찡한 장면이군요.

2절: 의사들이 염하는 장면입니다.

3절: “이스라엘”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음이 분명합니다.

3절: 염하는 기간이 4일 걸렸습니다. 40일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다섯 번째로 등장합니다.

3절: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 받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두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4-9절: 야곱과 요셉의 집안이 이집트의 지도자들과 함께 야곱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으로 갑니다.

10-14절 ㉞ 일주일간의 애곡이 끝나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그의 시신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의 귀환이 이어집니다.

15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떠났으니 그가 자신들의 과거의 죄로 인해 자신들을 벌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16-17절: 아마 이들이 한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합니다.

18절: 이삭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는 예언이 다시 한 번 성취되고 있습니다.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요셉의 처리 계획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자신을 만드신 그분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냉철히 숙고하게 되었을 겁니다.

20절: 놀라운 간증이군요. 요셉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도 잘 버티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이것이지요.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8:28과 빌립보서 1:6을 보세요.

21절: 요셉은 형들을 계속 돌보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

22-23절: 창세기의 이 마지막 문단은 앞선 구절보다 무려 54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삶은 틀림없이 일상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면서 평범한 생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중요한 직책에 따른 업무가 과중했을 텐데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의 믿음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삶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24절: 그에 앞선 아버지처럼 요셉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종식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4-25절: 요셉은 다음의 세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속해 있다.

(2)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가능치 않다.

(3)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5절: 요셉은 죽음에 있어서도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을 멀리 쫓아 보낸 것에 대해 용서했으나 그들의 사랑과 임재를 잃어버렸던 것을 결코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 묻어주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과는 달리 이 일이 자기가 죽는 순간 성취되기보다는 이 민족이 함께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까지는 자기 가족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12월 25일

예수님에 관하여 좀 더 알아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창 50:15)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요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강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사람도 신앙생활 도중 자신의 옛 죄들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는 다 잊으신 것을 기억해내고 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 잡힐 때가 있지요.

구원받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사랑의 돌보심을 입증해 주셨는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의심과 근거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짓으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잘 영위해 나가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떠올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나를 대적하실 거야.’ 라고 억측하는 것이지요.

이에 더하여 육신적이고 자의적인 잘못된 설교로 인해 구속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실 것이라든가, 자녀를 죽이심으로 학대하실 것이라든가, 직장을 빼앗아버릴 것이라든가(주로 “십일조를 안 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때리실 것이라든가, 천년왕국 때 잠시 동안 불 가운데서 있게 하실 것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악한 억측은 허황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억측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결코 우리의 과거의 죄들로 인해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이 시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12월 26일

두려움은 거짓을 낳는다

거짓말들과 거짓 교리들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혹은 진실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는지를 두려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자들은 거둬난 자들이 세상적으로 살거나 신실하게 섬기지 않을 경우에도 결코 정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봐(요 3:16-29, 롬 8:28-38)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협하거나 조작된 교리를 만들어 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했다는 ‘발언’ 을 듣고 그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원하건데 네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 발언을 야곱이 했던 안 했던 간에 (개인적으로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책은 가려졌으니까요.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전혀 그런 짓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죄들을 다 치우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보응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갈보리에서 흘려진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용서해 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데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자주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히 9:26). 그분은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히 8:12, 10:17). 죄들은 피에 의해 가려져 버렸습니다(골 2:14). 다 끝난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형들이 자기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 모두와 그의 사랑을 입증코자 한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고 완전히 신뢰치 못하다니….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분의 모든 말씀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분의 무조건적인

12월 27일

바람직한 섬김

창세기 50:17,18에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약간 역겨워 보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두려워 요셉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불신의 모습이니까요. 그들은 요셉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께서 용서하신 자들을 벌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분의 발 앞에 두려워하며 부복하지 않으면 그들을 상하게 하고, 때리고 멸하실 거라는 설교를 듣고서 ‘제단’ 앞으로 헌신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서는 우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불신의 표현이니까요. 그분께서 그리도 잔인하신가요? 두려움에 떠는 자녀를 원하실까요? 요한은 계시록 1:17에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

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 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 믿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0:21에서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로했고 친절히 말했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원자께서 계신데 우리의 의심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과 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심으로써 무한한 사랑을 입증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지요. 주님은 친절과 은혜와 공화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거칠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12월 28일

“임종 앞의 두 모습”

야콥은 죽어가는 순간 막벨라 굴에 묻힐 것을 바라면서 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에 그가 죽을 때 그곳으로 돌아가고픈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요셉은 죽는 순간 미래를 내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민족은 이미 오랫동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랐고 그에게는 가나안은 단지 추억에 불과했지요. (적어도 개인적 경험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야곱에게뿐 아니라 요셉에게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를 바라보며 “네가 나온 그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며 스스로 믿음을 지켰고 요셉은 “네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미래를 내다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풍요와 화평과 행복을 누리고 있던 때에 아들들로부터 맹세를 받았습니다. 반면 요셉은 곧 속박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무렵 형제들로부터 맹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이집트의 풍요 안에 머물지 말라”인 반면 두 번째 맹세는 “이집트의 역경 안에서 기진하지 말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집트에 영원히 묻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은 요셉의 확고한 믿음을 증언해줍니다. 신성한 매장지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대접과 존중을 받을 화려한 장례와 추앙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믿음이었지요. 요셉은 이 확신을 형제들에게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도 묻히지 않고 남아있는 몸이 침묵의 호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시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으로 남아 있을 것이요, 형제들로 출애굽의 해방일이 다가오리라는 불멸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12월 29일

결론

창세기가 마지막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길들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경의 첫 다섯 권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다섯 권의 책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담이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동산을 떠나는 것으로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핏기 없는 동생의 시신 곁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홍수로 덮인 땅과 더불어 창세기가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상들의 생애에는 이처럼 엄청난 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만큼의 극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가나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라면 요셉의 승리와 더불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행복감에 젖어있도록 마무리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 위에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관에**” 라는 표현으로 끝나버립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 즉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책은 계속된 실패와 끔찍한 죄,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눈에 떨 만한 멋진 장면과 승리의 장면은 아주 드문 모습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진리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뒤이어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 ‘예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욥 14:1). 창세기는 차갑고 어둡고 우울한 책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된 계획과 일이 아니면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창세기는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주님, 혹은 허망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월 30, 31일

후기

창세기 공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주위에 모여 요셉의 종이 되겠노라고 맹세하면서 요셉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창 50:18).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이 이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얼굴을 땅을 대고 엎드려 있는 이 열한 명의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요셉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가족은 생이별을 하였으며, 요셉은 시련을 겪었고 계속해서 고통이 뒤를 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재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찢어낸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 넘긴 자들의 목을 발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지낸 감옥에 그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 배로 되돌려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요셉의 놀라운 믿음과 사랑이 반짝입니다. 그는 신약의 로마서 8:28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을 구약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 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두게 하셨나니”(50:20)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새로운 시련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도구로써 여겼던 겁니다. 그를 왕좌에 앉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가져오게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가 화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순간의 시련 너머를 바라봅시다. 그 시련을 가져다 주는 자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맛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에 있기 때문이니라.”(레 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 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음을 의미함

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딤후 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전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함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0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1종과 소책자 40종 등 61종의 도서를 총 13만 2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

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1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 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옮긴이 : 김영균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 알렉산더 히슬롭, 〈두 바빌론〉, 도서출판 안티오크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도서출판 킹제임스
외 다수

